금주의 법구-〈법구경〉
항상 새벽처럼 깨어 있어라.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을 즐겨라.
자기의 마음을 지켜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00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7월 27일) 2022년 8월 24일 수요일



독립유공자 후손들 진관사서 힐링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 이하 문화사업단)은 국외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29명(미국계 19명, 카자흐스탄계 10명)을 대상으로 8월 15일 진관사에서 당일형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진관사는 1919년 독립운동 당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태극기가 발견된 곳이어서 이날의 행사는 더욱 큰 의미가 전해졌다. 사진은 템플스테이에 참여한 국외거주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현장 기사 3면〉 진관사=김주일 기자

삼보정재 강탈당한 봉은사 417억원 국가 배상 받는다

8월 18일 서울고법서 2심 승소 판결

1971년 공무원들 서류 조작
"불법행위로 피해 정부 배상"
정부 책임 70→60%로 축소

국가 농지개혁사업 과정 중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토지를 강탈당한 봉은사가 국가로부터 피해 보상 받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 · 김선아 · 천지성)는 8월 18일 봉은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는 봉은사에 417억 50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정부 책임이 더 적게 인정되면서 배상금 규모는 줄었다. 1심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정부 책임을 70%로 인정해 487억 1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정부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이번 소송은 1958년 이승만 정부가 농지개혁으로 봉은사 소유 토지를 사들인 후 경작분배하고 남은 토지가 1968년 농지개역사업 정리 특별법에 따라 원소유자인 봉은사에 반환되었어야 함에도 1971년 공무원 백모씨와 김모씨의 서류조작으로 유실되며 발생했다. 1959년과 1970년 소송 대상 토지가 봉은사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뤄졌지만, 1971년 공무원 백모씨와 김모씨가 해당 토지가 분배상환이 완료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들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1978년 8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봉은사는 망실 토지를 되찾기 위해 최종소유명의자를 상대로 토지 반환 소송에 나섰지만 소유권이 이전된지 10년이 넘었고, 제3자 선의 취득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2015년 1월 패소했다.

당시 공무원들의 서류조작으로 인하여 정재를 사실상 강탈당한 봉은사는 결국 2019년 12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시작했다.

당시 1심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는 원소유자인 봉은사에 환원됐다고 봐야 하지만, 공무원들이 분배 · 상환이 완료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정부는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2006년 종단이 근현대 망실 삼보정재 환수를 선언한 이후 가장 두드러진 성과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노덕현 기자

진우 스님 "소통 통해 불교중흥 완성"

8월 17일 기자간담회서 종책 공약 발표

소통 · 포교 · 교구 3대 기조
수행 · 복지 등 7개 중점분야
교구 특성 반영한 전략 개발
장기적인 포교종책도 약속해

중앙선관위 자격심사 통과하며
37대 총무원장 사실상 확정돼
오는 9월1일 당선증 교부 예정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에 당선 확정된 진우 스님이 종책 공약을 제시했다. 스님은 소통을 최우선으로 삼은 가운데, 포교와 교구를 3대 기조로 설정하고 7대 중점분야에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8월 17일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종책 공약을 일부 공개했다. 진우 스님은 이번 총무원장 선거에 단일후보로 출마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격심사를 변수 없이 통과해 무투표당선이 확정된 상태다. 9월 1일 당선증을 교부받을 예정이며 다음날인 9월 2일 원로회의 인준 절차를 거치면 차기 총무원장으로 최종 확정된다.

진우 스님은 이날 '불교중흥! 새 역사를 열겠습니다'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종단운영 3대 기조와 7대 중점분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3대 기조는 소통, 포교 그리고 교구이며, 중점분야로는 △수행 △교구 △포교 △교육 △승가복지 △문화 △사회다.

스님은 "사부대중이 꿈꾸면 불교가 달라진다. 잘하는 것은 더 발전시키고 고칠 것은 고칠 것이며, 바꿔야 한 것은 변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3대 기조와 7대 중점분야는 이같은 변화를 위한 굳건한 원칙으로 삼아 한국불교와 종단을 위해 원력을 세우고 신심을 다해 공심으로 매진하겠다는 약속이다.

진우 스님은 3대 기조 가운데 특히 소통을 최우선으로 강조했다. 신심과 진심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사부대중의 지혜를 모아나가겠다는 약속이다. 스님은 "과거와 소통하고 미래와 소통하겠다. 또 현재의 소통으로 불교중흥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최고의 과제로는 포교를 꼽았다.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확산하는 포교를 최고의 과제로 삼겠다는 취지다. 스님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포교라는 사명으로 도심포교와 청년, 어린이 등 다양한 계층에 맞는 방안의 지혜를 바르게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교구발전은 곧 불교중흥의 기틀이라는 신념도 드러냈다. 스님은 "종단의 주추과 같은 교구의 역할을 높이는 것은 곧 한국불교 도약의 반석이자 지름길"이라며 "교구본사 중심의 효율적인 종무행정을 제안하고 사회적 역할 확대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7대 중점분야 중에서는 수행을 첫 번째로 꼽았다. 스님은 "종도와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승가, 신뢰받는 종단을 구현하기 위해 매진하겠다"며 특히 "봉암사 결사에서 상월선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결사 운동을 더욱 확산해 한국불교의 새로운 중흥을 열어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구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도 제시했다. 교구별 특성화 전략의 적극 발굴은 물론, 교구 중심의 운영을 중앙에서 지원하는 형태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중점과제 중 포교의 핵심은 미래세대로 꼽았다. 이를 위해 전법위원회 신설을 통한 장기적인 포교정책의 수립, 불교콘텐츠 개발, 교구본사 중심의 포교시스템 구축, 계층별 핵심인력 양성 등을 실천안으로 꼽았다. 특히 포교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권역별 광역시를 기점으로 하는 명상힐링센터 건립, 규모있는 법회의 정례화를 통해 종단포교의 지평을 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前교육원장으로 종단 교육종책을 주도했던 경험을 살려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혁신도 선언했다.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출가교육 시스템, 연수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대표적이다. 특히 한국불교의 직면과제인 출가자 감소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예비출가'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전통사찰이 보유하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존 위주의 문화재 정책을 '활용'의 관점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개진한다. 스님은 연등회 전승과 함께 한국불교의 대사회적 역할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사회 주요의제에 대응할 수 있는 총괄기구 설립, 불교소양을 갖춘 분야별 정책전문가 양성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스님은 "사회적 약자 보호는 물론, 기후변화 등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의제에 대해서도 시민사회, 이웃종교와 연대하는 책임감 있는 종교의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신뢰받는 불교로 거듭나 세상의 든든한 벗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2면〉

세계불교인식논리학회 첫 한국 대회 개최

8월 22일 동국대서 개막식… 26일까지 진행

20개국 50여 명 학자 참여

불교인식론과 논리학의 최신 연구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국제 학술대회가 열린다. 세계불교인식논리학회는 8월 22일 동국대에서 제6차 대회 개막식을 개최했다. 대회는 8월 26일까지 진행된다.

세계불교인식논리학회는 불교학과 동양철학 분야에서 특정 주제를 갖고 열리는 학술대회 중 규모가 가장 크고 내용도 심도 있는 학회로 세계 권위를 자랑한다. 세계불교인식논리학회가 국내에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세계 20여개국에서 50여명 발표자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다. 불교학계의 세계적 권위자인 일본 가츠라 쇼류 히로시마대학 명예교수를 비롯한 원로교수를 필두로 중진학자와 신진학자들이 참여해 불교 인식론, 존재론, 논리학에 대한 최신 연구동향을 발표했다. 또한 한국 불교논리학의 전반적인 소개와 원효 스님 등의 사상에 대해서도 대회 기간동안 소개됐다.

이번 대회 준비위원장을 맡은 우제선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는 "이번 학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것은 한국불교의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라며 "세계 유수학자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한국불교의 위상 제고와 한국내 불교학 연구 성과를 세계에 보다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세계불교인식논리학회는 1982년 일본 교토를 시작으로 1989년 오스트리아 비엔나(2차), 1997년 일본 히로시마(3차), 2005년 오스트리아 비엔나(4차), 2014년 독일 하이델베르크(5차)에서 열린 바 있다. 신성민 기자

금정총림 정상화를 위한 범어문도 총회소집

금정산 범어사는 창건 이래 임진왜란의 전란으로 소실되었으나 先師들의 불심과 원력으로 재건되어 오늘의 대가람에 이르고 있습니다. 원효, 표훈, 낭백, 명학 조사스님 등 대선지식과 근세 경허, 용성, 성월, 만해 그리고 동산대선사께서 주석하시면서 도량을 수호하시고 불법을 헌창하여, 도제 양성과 포교를 통한 원력과 덕화는 오늘에까지 계승되고 있으니 대중은 신심을 더욱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 면면토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동산 대종사의 수행 가풍과 대중화합, 도량의 청향과 신심의 불광은 사그라지고 있으니 심히 통탄할 일입니다. 현재 범어사는 총림의 파행 운영과 주지 임명 문제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에 범어문도 총회를 개최하여 참회와 각성을 통해, 추락한 문도 대중의 위의를 회복하고 작금의 현안에 대한 지혜를 모아 문도 대중화합을 이루어 총림을 정상화시키려 합니다. 범어문도는 문도총회에 흔연히 동참하시어 범어사의 법향과 법음이 만방에 울려퍼지도록 해 주십시오.

총회개최
가. 일시 : 불기 2566(2022년) **8월 30일 오후 2시**
나. 장소 : 금정총림 범어사 보제루

총회안건
가.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교체에 따른 현안 문제
나. 금정총림 파화합에 대한 갈마의 건
다. 금정총림 발전과 문도 화합을 위한 대책
라. 기타사항

참석대상
범어문도 대중

■ **동산혜일대종사 1세 제자** : 원두, 일미, 선래, 흥교, 몽산, 대성, 영환, 도근, 계전 일동
■ **지도위원** : 출가연도 1950~1979년 범어사 재적스님
■ **상임대표** : 종훈, 정여, 수불, 원정, 상화(니)
■ **공동대표** : 범산, 상운, 정현, 화랑, 원범, 현정, 우담, 초안, 원타, 순행(니), 묘선(니)
■ **공동집행위원장** : 선재, 법안, 정산, 혜성, 대방, 혜진, 각명, 진명, 공마, 범일, 항명, 법상, 지명, 동완(니), 법운(니)
■ **사 무 처** : 도관, 정오, 강하, 경흥, 각진, 범천
■ **집행위원** : 범어사 재적승 전원, 금련회 회장 및 회원(니), 화엄회 회장 및 회원(니), 전국비구니회 부산지회 지회장 및 회원(니)
■ **기획위원** : 성광, 범혜 ■ **대변인** : 석산, 도명

일동 합장

불기 2566(2022)년 8월 18일

금정총림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

단일후보 당선, 종단적 공감대 모인 결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조계종 무투표 당선 첫 사례
총무원장 당선인 진우스님은

계파 · 정치 매몰없이 두루 원만
다양한 소임으로 종무행정 경험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선거에 단독후보로 출마한 진우 스님〈오른쪽 사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격심사를 통과하면서 무투표당선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진우 스님은 1994년 종단개혁 이후 선거절차 없이 총무원장에 당선된 첫 사례가 됐다. 선거인단 선출 등 선거를 위한 일련의 절차들이 생략됨에 따라, 애초 선거일로 예정됐던 9월 1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증 교부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 종단 체제에서는 처음 있는 일인 만큼, 선거를 관할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종무기관도 매순간 기존과 다른 새로운 절차 속에서 원칙과 기준을 정하기 위한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과거 경선구도에서 각 후보들이 치열하게 선거운동에 나서 공약을 홍보하는 시기지만, 이미 당선자가 확정된 이례적인 상황에서 선거캠프측도 고민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선거대책위원회가 사실상 인수위원회 혹은 준비위원회 형태로 구성되는 것도 새로운 변화다. 무투표 당선은 확정됐으나 당선증 교부 및 원로회의 인준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당선인으로서 공식행보를 본격화하기도 조심스럽다. 이에 진우 스님은 지난 8월 14일 상징적으로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와 원로의장 대원학산 대종사를 예방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행보만 이어가는 상황이다.

불교계 분위기는 "낯설지만 선거과열로 인한 혼란보다는 훨씬 낫다"는 반응이 많다. 일부, 경선구도에서 각 후보가 종책공약과 비전을 제시했던 활발한 모습이 사라져 아쉽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그동안 총무원장 선거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선거문화보다는 각종 논란과 무분별한 의혹 제기, 금권선거 논란 사례가 더 많았다는 점에서 진우 스님의 무투표당선이 향후 종단 선거문화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단독후보의 무투표당선은 사실상 진우 스님에 대한 종단적 공감대의 결집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진우 스님의 후보등록 직후 선거인단인 중앙종회 5개 종책모임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으로 지지선언을 한 것이 이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이에 앞서 원로 · 중진 스님들을 중심으로 선거혼란 최소화를 위해 합의추대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모였고, 8월 4일 교구본사주지협의회도 "제 37대 총무원장 선출은 후보자 난립으로 인한 분열과 비방이 아닌 수행과 포교가 검증된 단일후보로 추대되기를 간곡히 희망한다"며 합의추대에 동의하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검증된 단일후보에 대한 사실상의 합의추대를 통해 선거혼란을 최소화하고 종단 화합과 안정을 도모하길 바라는 종도들의 바람이 모인 상황에서, 당시 교육원장이었던 진우 스님은 일찌감치 '검증된 단일후보'의 유력인사로 거론됐다.

진우 스님이 단일후보로 대두된 데에는 특정 계파 · 정치에 매몰되지 않고 두루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온데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었다는 시각이 나온다. 또한 2012년 파행으로 논란을 빚은 백양사 사태 당시 주지 소임을 맡아 혼란을 수습하고 정상화를 이끌었고, 前총무원장 설정 스님의 갑작스런 사퇴 이후에는 권한대행을 맡아 종단 안정에 기여한 이력도 강점으로 분석된다.

백양사 정상화 후 2년만에 주지직을 내려놓은 후, 2015년 조계종 재심호계위원을 시작으로 중앙종무기관 소임을 두루 거쳤다는 점에서 종무행정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도 기대요인이다.

진우 스님은 2017년 총무원 사서실장에 임명된 후 호법부장과 기획실장, 총무부장, 불교신문 사장 등을 역임한데 이어, 2019년에는 교육원장으로 취임해 승가 인재양성의 한가운데서 종단 교육종책 개편 등을 통한 변화를 이끌어 왔다. 특히 진우 스님은 교육원장으로서 출가자 감소에 따른 학인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춘 기본교육기관의 개편도 추진했다. 진우 스님은 종무행정 뿐 아니라 사찰 종무에도 밝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9년부터 담양 용흥사 주지로 대웅전을 비롯한 전각불사를 통해 사격을 높이는 등 사찰일선 주지로서 불사와 포교에 매진해 온 데 따른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장점들이 모여 총무원장 단독후보로서 진우 스님의 당선 가능성을 높였다는 분석이다. 이에 중앙종회 5개 종책모임은 지지선언에서 "진우 스님은 수행과 포교가 검증되며 종단 발전을 위한 희생과 헌신의 이력을 가진 공심 있는 후보"라며 "수행과 교화를 본분으로 사회와 국민을 위해 정진해 온 진우 스님이 제37대 총무원장으로 여법하게 선출돼 종단과 사회에 희망을 전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한 바 있다.

불교계 안팎으로 첫 단일후보 당선인 진우 스님에 대한 기대감이 모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진우 스님은 "단일후보로 지지해 주신데 대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다"며 "한국불교의 당간지주를 세워온 수많은 스님들이 시대마다 이끈 소명의식과 수범한 공덕의 토대 위에서 한국불교 중흥의 새 역사를 쓰겠다는 신념으로 종도들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관음종 종정 홍파 스님, 조계종 예방

8월 17일 원행 스님에 인사
"4년 종단협 잘이끌어 감사"



관음종 종정 홍파 스님과 총무원장 법명 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임기 중 한국불교 발전을 일군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관음종 홍파 스님과 법명 스님은 8월 1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지난 4년간 추진된 한중일 · 한일불교 교류를 위한 원력에 감사를 전했다.

관음종 종정 홍파 스님은 "종단협 수장이자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지난 4년간 코로나 사태 등 혼란한 상황에서도 수행자로서 종단협을 잘 이끌어주셨다"며 "스님의 역할이 적지않았기에 임기만료를 앞두고 종단협 여러 스님들이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원행 스님은 "종단 간 화합과 협력은 물론, 특히 한일불교교류에 대해 관음종이 많은 역할을 해주셨다"며 "코로나 사태로 열리지 못한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와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 등을 잘 준비해 내년에 성대하게 치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예방에는 사회부장 원경 스님, 종단협 사무총장 도각 스님(관음종 총무부장), 사무처장 진경 스님이 배석했다.

송지희 기자

승려복지회 · 보리수요양병원 '종단 지정 의료기관' 재협약

8월 17일 입원진료비 감면
"불교병원 편안함으로 케어"



조계종 승려복지회와 의료법인 동행의료재단 보리수요양병원은 8월 17일 종단 지정의료기관 협약을 체결했다.

조계종 승려복지회(회장 삼혜)와 의료법인 동행의료재단 보리수요양병원(대표이사 현법)이 8월17일 김포 보리수요양병원 1층 로비에서 종단 지정의료기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보리수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조계종 스님들은 외래진료비와 입원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는다.

협약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이며 일방의 해약 통보가 없는 한 자동연장 함으로써 스님들은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승려복지회와 보리수요양병원은 2016년 협약을 체결했지만 법인 대표자 교체와 재정 악화 등으로 인해 협약이 유명무실 됐었다. 그러다 이날 다시 종단 지정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보다 많은 스님이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조계종 승려복지회장 삼혜 스님(조계종 총무부장)은 협약식에서 "승려복지회와 보리수요양병원의 지정의료기관 협약은 좀 더 많은 스님들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취지"라면서 "보리수요양병원 이사장 스님 이하 원장,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모든 관계자들이 스님들이 내원하며 불교병원에 왔다는 편안함을 가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케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법 스님은 인사말에 앞서 보리수요양병원에 대해 불교의 자비사상 구현이라는 미션아래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 △함께하는 병원 △환자 중심의 병원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환자들을 케어할 수 있는 의료진을 구축하고 안락한 시설을 유지하며 최적의 진료와 돌봄을 실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약은 보리수요양병원이 조계종 핵심종책사업인 승려복지제도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면서 "코로나19로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약사여래 원력병원'으로서 환자들 돌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5년 7월 개원한 보리수요양병원은 김포 용화사 바로 앞에 위치했다. 부지 10만 3359㎡. 연면적 4529.49㎡,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총 37실 173병상을 갖추고 있다. 일반외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등 의사 3명, 한의사 1명 등 의료진이 환자를 치료한다. 집중치료실에는 인공호흡기가 비치돼 있어 중증 환자들도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감염에 취약한 CRE, VRE 환자를 위해 격리 병동도 운영한다.

임은호 기자

대통령실 불자회에 "전통문화 계승" 당부

원행스님. 8월17일 임원진 예방
초대 회장은 이진복 정무수석



원행 스님을 예방한 이진복 회장과 임원진.

윤석열 대통령실 불자회가 공식 출범을 앞두고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다.

대통령실 불자회는 과거 청와대 불자회로 운영됐지만 현 정부체제에 맞춰 공식명칭을 변경하고 이진복 정무수석을 초대회장으로 임원진을 확정했다.

이진복 대통령실 불자회장은 8월 18일 임원진과 함께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다. 이 회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불교계와 소통을 기반으로 전통문화 계승보존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니 많은 가르침과 조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예방에는 허성우 대통령실 불자회 부회장(국민제안비서관), 조규보 운영위원장(국민제안비서관실 행정관), 신도균 사무국장(종교다문화비서관실 행정관) 등 임원진이 함께했다.

원행 스님은 이 회장에게 "대통령이 전통문화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약 등을 통해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통문화 계승보존을 위해 그동안 필요성이 인정됐음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현실적인 개선과제들이 적지 않은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진복 대통령실 불자회장의 공식취임법회는 9월경 서울 조계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송지희 기자

백만원력 결집불사

희망의 불교,
미래의 불교를 함께 열어갑시다.

백만원력 결집불사

-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분황사 준공
- 육·해·공군본부 계룡대 호국 홍제사 건립
- 불교요양원 건립
- 경주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 세종시 광제사 및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
- 10.27법난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관 건립
-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 기금 조성
- 위례 상월선원 신축불사
- 나눔 및 교육기금 조성

대한불교조계종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분황사 준공



●육·해·공군본부 계룡대 호국 홍제사 건립



●세종시 광제사 및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경주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모연동참안내

백만원력결집불사, 대한불교조계종 검색

NAVER daum

www.buddhism.or.kr

▶매일 발우저금통에 보시

▶정기후원(CMS) : 신청서 또는 전화신청

▶후원계좌 예금주 : 재)아름다운동행(백만원력결집)
농 협 301-0248-0882-41
국민은행 008601-04-152458
우 체 국 010579-01-005480

▶ARS 060-700-0012(한통화 3,000원)

▶문의전화 02)6273-0108, 0109

• 모아진 발우저금통은 재적사찰 또는 문의전화로 상담해주세요.
• 재)아름다운동행은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설립한 기부재단으로 백만원력결집 공식 모금창구입니다.

“힘들때마다 오늘 배운 명상으로 극복할 터”

해외거주 독립유공자 후손29명, 진관사 템플스테이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주최
다도 명상, 칠성각 등 순례

진관사=김주일 기자

“대한 독립 만세” “만세” “만세”

지난 8월 15일, 서울지역 항일 독립운동 거점 사찰이던 은평구 진관사서 광복 77주년을 맞아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 이하 문화사업단)이 국외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29명(미국계 19명, 카자흐스탄계 10명)을 대상으로 당일형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진관사는 1919년 독립운동 당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태극기가 발견된 곳이어서 이날의 행사는 더욱 큰 의미가 전해졌다.

예정시간보다 늦은 오후 2시 30분, 진관사 경외에 있는 한문화체험관 지하 1층에서 개회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나라가 어려운 위기에 처했을 때 독립운동을 한 선조들의 뼈아픈 희생과 고귀한 애국정신을 떠올리며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준다”며 “오늘 이 사찰 체험을 통해 자랑스런 독립운동가의 후손들께서 한국 전통의 문화를 느끼고 역사의식을 배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관사 회주 계호스님도 인사말을 통해 “77주년 광복절에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모실 수 있도록 해주신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 감사드린다”며 “자신의 목숨을 불꽃 속으로 던지신 백초월 스님을 비롯한 애국지사들에게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한문화체험관에서 명상체험 중인 참가자들.



템플스테이를 마치고 대웅전 앞에서 참가자들과 스님들이 만세를 부르며 즐거워하고 있다.

이어 스님은 “진관사는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의 거점사찰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독립운동가 백초월 스님의 고향과 같은 곳”이라며 “진관사 템플스테이 체험을 통해 마음속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시간이 됨과 동시에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사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백초월 스님(1878~1944)의 종손 백외식 선생도 “초월 스님께서는 진관사를 거점으로 독립운동을 하셨다”며 “1919년 11월 상해 임시정부 성립을 알리는 홍보물 배포했다가 12월에 왜경에 잡혀 옥고를 치루셨고, 1944년 청주 형무소서 순국할 때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조국 광복에 바쳤다”고 스님의 독립 정신을 강조했다.

간단한 개막 행사후에는 진관사 템플스테이 국장 선우 스님의 진행으로 차담이 열렸다. 비록 원탁 테이블이지만 스님은 참가자들에게 차 마시는 예법을 꼼꼼히 소개했다. 차담을 마친 참가자들은 3층 대방으로 자리를 옮겨 명상 체험을 했다. 사방이 탁 트인 방이라 창문을 여니 북한산 계곡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오늘 만큼은 마음을 조금 쉬게 하면 좋겠습니다.”라는 선우 스님의 멘트에 따라 가부좌를 튼채 앉아서 명상에 들어갔다. 이윽고 잠시후에는 아예 사선으로 누워 와선까지 골고루 체험을 했다.

40여 분간의 명상 체험 후에는 도보로 진관사 대웅전까지 천천히 행선을 했다. 마지막 사찰 체험은 대웅전 옆 태극기가 발견된 장소인 칠성각이었다.

이 태극기는 당시 진관사에 주석하며 독립운동을 주도한 백초월 스님이 일제의 감시를 피해 후세에 그 전하고자 숨겨놓은 것으로 추정된다.

칠성각 태극기 체험을 끝으로 이날 프로그램을 마무리한 참가자들은 대웅전 앞에 다시모여 기념 촬영을 하고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마무리 했다.

이날 체험에 참가한 독립운동가 최재형의 후손 박 타티아나(71, 여)씨는 “차 마시는 방법을 배운 게 가장 기억에 남고 자세히 들을 수 있어 인상 깊었다”며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라서 자랑스럽다”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백일정진기도로 선학원 사찰 보호 결의

전국비구니회는 8월 12일
법룡사 · 전국위원 사찰서
현수막 내걸고 동시 기도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장 상덕 스님이 미타암에 게재한 현수막.

전국비구니회가 선학원 소속 비구니사찰 보호를 위한 백일정진에 입재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는 8월 12일 오후 법룡사 만불전에서 회장 본각 스님과 운영위원장 상덕 스님, 집행부 소임자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학원 소속 비구니 사찰 보호를 위한 백일정진기도’를 입재했다. 입재일이 백중인 만큼, 같은 시각 전국 운영위원회와 집행부 소임자 스님들이 130여곳의 각 사찰에서 동시에 기도에 입재했다. 기도정진 회향일은 11월 9일이다.

백일정진기도는 지난 7월 11일~12일 긴급회의에 따른 평가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이다.

전국비구니회는 입재일에 앞서 현수막을 제작해 각 사찰에 배포했으며, 백일정진기도 봉행을 비롯해 지회 소속 사찰에 대한 동참 권유 등을 당부하는 공지를 통해 실천을 독려한 바 있다.

공식 입재법회가 법룡사에서 봉행되는 동안, 함께 입재한 전국 각 사찰들은 기도 사진과 현수막 게재 사진 등을 SNS를 통해 공유해 눈길을 끌었다.

전국비구니회는 “백일정진기도는 비구니 승가 보호를 위한 마음을 하나하나 모아내기 위한 여정”이라며 “간절한 마음들이 모여 선학원 소속 비구니스님들이 겪는 여러 어려움들이 해소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송지희 기자

선학원 정상화 발원 100일 기도집회 회향

선학원미래포럼, 8월 17일
회향식서 “활동 확대”천명



재단법인 선학원 정상화를 발원하는 염원을 담아 선학원미래포럼이 주도해 온 제2차 100일 집회가 회향했다. 선학원미래포럼(회장 자민)과 선학원 사부대중은 8월 16일 제2차 백일집회 회향을 기념하는 법석을 마련하고 그간 경과와 성명서를 발표했다.〈사진〉

선학원미래포럼은 경과보고를 통해 “지난 4월부터 ‘성범죄자 법진(최종진) 선학원 이사 및 일체 직책 사퇴 촉구’ 하고 선학원 정상화를 발원하며 진행된 제2차 100일기도에 많은 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집회에 동참해주셨다”며 “그 성과로 법진 스님이 이사장에서 물러났지만, 주지 몰래 절 땅을 팔아먹은 ‘총림선원 토지매각’ 사건과 선학원식 절뺏기라 할 수 있는 ‘청화사 사고사찰 지정 및 재산관리인 파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회향성명서를 통해 “선학원 정상화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2차 회향을 기점으로 전국비구니회와 연대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활동영역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선학원이 바로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지희 기자

불교계, 집중호우 이재민 위한 자비나눔 이어가

조계종복지재단, 동작구에 전달
연화정토사, 취약계층 쌀 지원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8월 16일 동작구 신대방1동 주민센터를 방문, 서울 도림천 범람으로 수해를 겪은 신대방1동 주민들에게 800만 원 상당의 이불 50채를 전달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8월 16일 동작구 신대방1동 주민센터를 방문, 서울 도림천 범람으로 수해를 겪은 신대방1동 주민들에게 800만 원 상당의 이불 50채를 전달했다.

불교계가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수해민들에게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고 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보인)은 8월 16일 동작구 신대방1동 주민센터(동장 김혜란)를 방문, 서울 도림천 범람으로 수해를 겪은 신대방1동 주민들에게 800만 원 상당의 이불 50채를 전달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이불 50채를 전달했다.


서울 연화정토사는 쌀 4000kg을 전달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동작구 신대방동은 8월 8일 하루 동안 381.5㎜의 비가 쏟아졌다. 시간당 141.5㎜ 폭우가 내리면서 도림천 물이 범람, 허리까지 물이 차올랐고 인근 주택 상당수가 침수, 600여 가구가 수해를 입은 상태다.

이날 전달식에서 보인 스님은 “동작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해를 겪은 분들이 너무 많아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오늘 전달한 이불이 마음이 춥고 고달픈 신대방동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재단은 전국에서 비 피해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수재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자원봉사 파견 및 후원을 계획하고 있다.

서울 연화정토사도 8월 16일 수해를 입은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아름다운동행에 쌀 4000kg을 전달했다. 서울 연화정토사(주지 성천)도 8월 16일 수해를 입은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아름다운동행에 쌀 4000kg을 전달했다.

주지 성천 스님은 “비 피해 소식을 접하고 신도들이 정성을 모아 십시일반 마련했다”면서 “폭우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름다운동행은 연화정토사의 뜻에 따라 쌀을 수해민 뿐 아니라 집중호우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료급식소 원각사와 새터민 자녀를 돌보는 삼정학교에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연화정토사는 매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신도들과 쌀을 모연, 기부하고 있다. 2020년에도 수해민에게 쌀 4톤을 전달한 바 있다. 또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와 동해안 산불지원, 종립학교에 장학금 전달 등을 지속하는 등 자비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임은호 기자

나눔의집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날

8월 13일, 광주 나눔의집서

광복 77주년이자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지정 10주년을 맞아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에서 기림의날 행사 ‘기억에서 소망으로’가 개최됐다.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1991년 8월 14일, 故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한 날로, 피해자 문제를 국내외 알리고 기억하기 위해 2017년 지정된 국가기념일이다. 8월 13일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에서 진행된 이날 법석에는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는 어르신 4분 중 강일촌, 이옥선, 박옥선 어르신이 직접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2022 세계유산 통도사 미디어아트 사업
화엄세계로의 초대
화엄의 세계, 있는 그대로의 행복을 발견하다
| 장소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영축총림 통도사
| 기간 2022. 9. 3 – 10. 3 (19:00 – 21:00)
| 주요콘텐츠 디지털 미디어 맵핑 (20:00/20:30), 빛 오브제, 디지털 민화 특별전
문화재청 경상남도 GYEONGNAM 양산시 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 통도사 WORLD HERITAGE TONGDOSA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교체에도 혼란 지속

동산화합승가회 문제제기에
前주지 경선 스님 전격사퇴
차기주지에 보운 스님 임명
승가회 측 여전히 반발지속
8월 30일 문도대회 예고도

송지희 기자 ·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동산화합승가회는 8월 14일 창원 성주사에서 '금정총림 정상화를 위한 범어문도대회 확대회의'를 개최했다.

부산불교의 구심점인 금정총림 범어사가 동산문도회 내부 분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번 내홍은 일부 동산문도를 중심으로 출범한 동산화합승가회가 前주지 경선 스님에 대한 소통부재 및 각종 의혹을 이유로 해임을 촉구하면서 시작됐다. 경선 스님이 즉각 자진사퇴를 결단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동산화합승가회가 차기주지 보운 스님 지명에 재차 반발하면서 문도대회까지 예고해 당분간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동산화합승가회(이하 승가회)는 8월 14일 창원 성주사에서 '금정총림 정상화를 위한 범어문도대회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보운 주지 스님의 차기 주지 지명은 파행"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승가회는 8월 30일 오후 2시 범어사에서 문도대회를 개최키로 결의하고 '금정총림 정상화를 위한 범어문도 총회 소집'을 공고했다.

동산화합승가회는 "타종단 스님의 원주 소임 임명으로 총림 재정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문중의 안배와 대중 공의 없는 총림 운영으로 총체적인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前주지 경선 스님의 해임결의서를 전달했다"며 "그러나 경선 스님의 사임에 따른 후속 논의에서 모든 스님들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방장 지유 스님이 보운 총무국장을 차기주지로 지명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확대회의에는 동산문도 60여명이 참석했으며, 비공개 회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결의 내용과 금정총림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발표했다. 해당 보도자료에서 동산화합승가회는 "방장 지유 스님은 동산혜일대종사 유업인 청정교단설립의 정화정신을 정면으로 파괴했다"며 주지 보운 스님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동산화합승가회가 보운 스님에 대해 문제삼는 대목은 건당제자라는 점이다. 스님들은 "범어문도는 타문중 건당제자인 보운 스님의 총림주지 소임을 절대로 허락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금번 사태의 책임자인 경선, 현암사미와 보운, 범종, 원여 등 문중질서 파행에 관여된 자는 모두 문도에서 제명하고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금정총림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 고문은 동산 스님의 1세 상좌 스님, 지도위원은 출가 연도 1950년도부터 1979년도인 범어사 재적 스님으로 구성된다. 상임대표는 종훈 · 정여 · 수불 · 원정 · 상화 스님이며 공동대표는 범산 · 상운 · 정현 · 화랑 · 원범 · 현정 · 우담 · 초안 · 원타 · 순행 · 묘선 스님이다. 공동집행위원장은 선재 · 법안 · 정산 · 혜성 · 대방 · 혜진 · 각명 · 공마 · 범일 · 종인 · 법운 스님이, 사무처는 도관 · 강하 · 정오 · 경흥 · 각진 · 범천 스님이 맡는다.

승가회 주장에 대해 범어사 주지 보운 스님은 "혼란한 상황에서 前주지 스님이 사임하고 종무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장스님께서 총무국장 소임을 맡고 있던 제게 주지를 시키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을 때 화합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약속드렸고 실제로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스님은 "대화의 창구는 항상 열려있지만 총림의 법통을 상징하는 방장 스님의 위상을 흔들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총림을 외호할 책임이 있는 소임자로서 묵과할 수 없는 부분으로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특히 종헌종법상 하자가 없는 주지 임명을 문제 삼아 철회를 요구하고 저에 대해서도 결격사유나 비위 문제도 아닌, 단지 '건당제자'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승가회가 문도대회까지 불사하고 나선 상황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여론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승가회 대변인 석산 스님은 "승가회 모두 범어사를 고향처럼 여기기 때문에 서로 생채기를 주는 모습은 지양하고 싶다"며 "내부적으로 소통을 위한 대화창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화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고 화합을 위한 소통이 있다면 언제든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대변인인 도명 스님 역시 "대중공의는 절집에서 중요한 원칙임에도, 현 집행부는 법적인 정당성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기득권을 통해 대중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느껴진다"며 "다만 한국불교와 부산불교의 이미지를 우리도 함께 걱정하기 때문에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 대화를 통해 의혹해결을 위한 기구를 마련한다면 언제든지 대화에 임하고 소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년 만의 여름캠프에 환희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8월11~14일 영부디스트

한국 불자대학생들의 원력을 느낄 수 있는 영부디스트캠프가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렸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조석주, 이하 대불련)는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통도사 및 청도 운문사 일대에서 '제13회 KBUF Young Buddhist Camp'(영부디스트캠프, 이하 캠프)를 개최했다.

'다시 만난 우리, 함께하는 청춘'을 주제로 열린 이날 캠프에서는 총 90여명의 대학생 불자들이 참여했다.

이날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포교부장 선업 스님을 통해 "대학생 불자들은 무한한 역량을 지닌 미래세대다. 진정한 불자로 도반들과 정진하며 희망의 길을 찾자"고 응원했다. 변대용 대불련 총동문회장과 주윤식 중앙신도회장도 입재식에 참여해 대학생 불자들을 격려했다.

조석주 대불련 회장은 "오랜만에 열린 캠프에도 90명이 넘는 법우들이 모여 기쁘다. 영캠프를 계기로 앞으로 더욱 단합하고 정진하는 대불련이 되자"고 말했다.

이번 영캠프에서는 청춘강연, 통도사 운문사 순례를 비롯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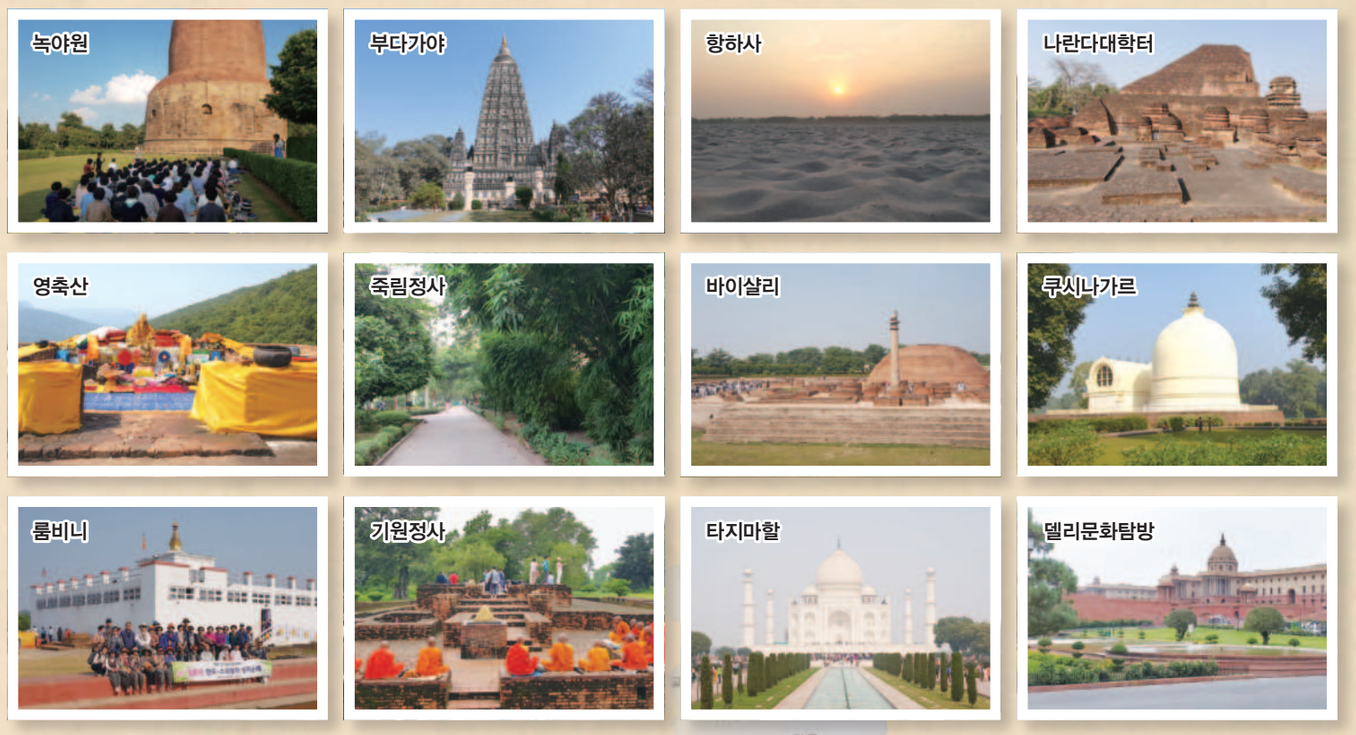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과 함께하는
인도·네팔 불교성지순례 12일

지도법사 : 대연스님
한국 유일의 인도 · 네팔 불교성지순례 가이드북의 저자이시며 인도를 30회 이상 다녀오신 대연스님이 직접 안내와 설명을 하는 성지순례입니다.

현대불교신문 성지순례는
■ 지도법사스님의 신심나는 설명과 유익한 순례를 약속합니다.
■ 인도불교미술에 대한 심도있는 설명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 불교전문 가이드가 진행합니다.
■ 쇼핑 옵션이 없습니다.
■ 동참하신 분들께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출발일 : 2022년 11월 1일~12일 동참금 : ₩2,990,000



주요일정
1일 : 인천 - 델리(인도항공 AI 0313) 인천국제공항 1청사 10시 05분 출발
2일 : 델리 - 국내선 - 바라나시 - 초전법륜지 녹야원, 사르나트 박물관 관람
3일 : 바라나시 겐지스강 보트 유람 - 항하사 - 부다가야
4일 : 보드가야 순례, 보리수, 마하보디 대사원, 전정각산, 수자타탑, 네란자라강
5일 : 최초의 사원 죽림정사, 영축산 여래향실, 칠엽굴, 날란다 대학 순례, 바이샬리 도착
6일 : 바이샬리 : 부처님 진신사리탑, 대림정사 중각강당, 원숭이 연못, 아소까 석주 순례, 께사리아 발우탑 순례, 열반성지 꾸시나가르 도착 - 열반지 쿠시나가르 : 열반당
7일 : 쿠시나가르 - 인도 - 네팔 국경 통과 - 부처님의 진신사리탑 랑그람 순례, 룸비니 도착
8일 : 탄생성지 룸비니, 석가족의 왕궁 카필라바스투, 네팔 - 인도 국경 통과, 삐쁘라흐와 진신사리탑 순례, 쉬라바스티 도착
9일 : 기원정사, 사위성, 앙굴리말라 회심처, 천불화현탑 순례 럭나우 경유 아그라 도착
10일 : 타즈마할, 아그라성(城) 관광, 뉴델리로 이동
11일 : 국립박물관 -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꾸뚭미나르, 연꽃사원, 뉴델리 관광 뉴델리 국제공항 출발(인도항공 AI 0312) 21시 50분
12일 : 인천국제공항도착 08시 15분



문의 : 현대불교문화사업단 02)2004-8213, 730-4008 순례진행 : (주)케이투어 아제여행 불교성지순례&특수지역전문

백중 맞아 가사공양 공덕으로 효 실천

봉선사, 8월 12일 '제10회 우란분절 공승법회'

사중스님에 가사공양
회주 밀운 스님 법어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가 우란분절을 맞아 하안거를 마친 스님들에 공양을 올린 공덕으로 선망부모를 천도하고 깨달음을 이끄는 법과 가르침에 감사를 올리는 뜻깊은 법석을 마련했다.

교종본찰 남양주 봉선사(주지 초격)는 8월 12일 경내 청평루에서 제10회 우란분절 공승법회를 봉행했다. 봉선사 공승법회는 과거 사은법회의 전통으로 이어져 왔으나, 2006년 사찰 차원의 가사불사가 사라지면서 중단됐다. 2020년 주지 초격 스님이 전통을 잇고자 원력을 세워 다시 재개됐고, 올해로 꼭 10회째다.

애초 하안거 해제법회와 함께 봉행해 안거를 해제한 수좌스님과 대중 스님 모두에 가사공양을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지만, 올해엔 보림선원이 보수공사로 운영되지 않아 봉선사 회주 밀운 스님과 주지 초격 스님을 비롯한 대중스님 30여명만 참석했다.

이날 봉선사 신도회는 신도들의 정성을 모아 대중 스님들에게 가사를 비롯한 공양물을 올렸으며, 회주 밀운 스님은 법어를 통해 우란분절의 참의미와 무명을 밝히는 지혜의 법문을 내렸다.

공승법회는 대령과 관욕의식, 괘불 상단불공 및 헌공, 축원, 반야심경 봉독 등 1부 행사를 시작으로 2부부터 본격적인 의식을 진행했다. 법회는 삼귀의례를 시작으로 우란분 가사공양, 공승례, 우우란분경 독송, 주지 스님의 인사와 밀운 스님의 법어 등으로 이어졌다.

김남명 25교구신도회장과 이도피안 봉선사 신도회장을 비롯한 신도회 임원들은, 대중 스님들을 위해 마련한 종단 가사를 공양하는 공승례를 올렸다.

이어 스님들은 공양받은 가사를 수하며 중생을 위한 회향을 다짐했고 대중은 불설우란분경을 봉독하며 의미를 기렸다.

회주 밀운 스님은 법어에서 진공묘유의 가르침을 알고 실천토록 당부했다. 특히 스님은 "불자들 모두 이를 이해하고 살아야 한다"며 "오늘 공승법회의 공덕과 실천행으로 불자들 모두가 부처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지 초격 스님은 봉선사의 공승법회 전통을 재차 강조한데 이어 그 의미를 전했다. 스님은 "오늘 공승법회를 통해 모두가 삼보에 귀의하는 예경의 마음을 항상 간직하, 불제자로서 삼보를 외호 · 공경하는 가운데 행복을 찾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양주 봉선사=송지희 기자

백중기도 회향, 전국사찰 방생 · 자비나눔 눈길

백중 회향을 맞아 전국 사찰에서 자비나눔 행사가 풍성하게 열렸다. **구례 화엄사**는 8월 12일 경내 각황전에서 자비나눔 백중 공양미 300포를 구례군에 전달했다.

이날 덕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사부대중이 정진하는 동안 모인 공양미를 지역민에게 회향하고자 한다. 행복한 구례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백중 공양미를 전달받은 김순호 구례군수도 "불자들의 정성이 모인 공양미를 관내 저소득 가정 및 복지시설에서 요긴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사찰에서도 백중기간 모인 공양미를 회향하는 자리가 연달아 마련됐다. **부산 천불정사**는 8월 16일 부산 금정구청에 백미 1000kg과 성금 300만원을 전달했으며, **부산 해인정사**도 12일 부산 사하구청에 쌀 100포를 전달했다. **대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는 대구 남구청을 찾아 쌀 130포를, 봉덕3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쌀 50포를 전달했다.

이와 함께 방생 법회 및 문화행사도 열렸다. **고창 선운사**는 8월 12일 극락보전 앞 마당에서 천도재를 연데 이어 천도의식을 마치고 도솔제로 이동하여 방생법회를 봉행했다. 천도의식을 마친 불자들이 연가마 및 반야용선을 앞세워 만들어낸 이운행렬은 장관을 연출했다.

서울 진관사(주지 법해)는 8월 12일 백중회향을 맞아 승보공양 및 지화전을 개최했다. 이와 함께 **부산 삼광사**(주지 영제)는 8월 12일 경내 지관전에서 '2022 세대공감 어울림 한마당'을 열고 점심공양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했다.

노덕현 기자

약자 함께한 10년…대사회적 불교 해법 제시









사노위의 지난 10년은 부처님 가르침을 담은 메시지를 세상에 던진 시간이었다. 땡볕 아래 몸을 던진 오체투지, 눈보라 속 행진, 끊임없는 기도회는 불교적 방법의 실천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아픔을 달래고 고통을 함께한 시간이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10년 평가와 과제

2012년 모든 아픔이 있는 낮은 곳으로 향하겠다며 출범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이하 사노위)가 10주년을 맞았다. 지난 10년은 부처님 가르침을 담은 메시지를 세상에 던진 시간이었다. 사회의 아픔이 있는 곳이 이들의 법당이요, 사찰이었다. 불교적 방법의 실천을 통해 사회활동을 실천해 온 사노위의 지난 10년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10년을 위한 과제를 살펴본다. 〈편집자 주〉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2012년 노동위원회로 출범, 2015년 실천위원스님 20명을 새로 위촉하면서 확대 개편된 후 노동문제에서 빈곤과 인권활동 등 사회 전반으로 영역을 넓힌 사노위가 다루는 분야는 매우 포괄적이다. 비정규직,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노동문제는 물론이고 인권과 동물생명권(살처분 문제), 한반도 평화, 위안부 문제, 이주민, 무연고사망자, 세월호, 성소수자 문제 등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이슈에서 목소리를 내고 참여해 오고 있다. 매주 최소 1회 이상 현장활동이 이어지며 각 사안별 연대회의까지 포함하면 한 단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처럼 보여지기도 한다.

조계종 종령기구인 사노위는 종단의 대사회적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그렇다면 불교계와도 딱히 관련이 없어 보이는 그토록 많은 분야와 많은 사안들에 대해서는 무엇을 위해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는 것일까. 그 이유는 10년 전인 2012년 8월 27일, 사노위 출범식 날 "약자의 아픔을 보듬고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겠다"고 한 발원문에 담겨있다.

우리 사회에서 대두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한 사노위의 지난 10년은 종교의 사회참여에 대한 방향성을 새롭게 만들어 낸 시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운동의 개념으로서가 아닌 종교행위로서 사회적인 여론을 만들어가는 여정이었다. 오체투지, 49재를 문화행사에 접목해 대중성을 확보했고 "사회문제 해결은 곧 투쟁"이라는 인식을 넘어서 함께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사노위의 오체투지는 또 다른 사회운동 형태를 만들었다. 온몸을 구부려 팔꿈치와 무릎, 정수리를 모두 땅에 닿게 하는 오체투지는 불교에서 삼보에 대한 최상의 예법이지만, 사노위의 오체투지는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의지를 강렬하게 피력하는 모습으로 대중 속으로 다가갔다. 이웃종교 성직자들 역시 오체투지에 함께 나설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불교적 예법의 사회화 덕분이다.

여기에 사노위의 꾸준함은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는 물론, 대중들에게도 신뢰감을 주기 충분했다.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10만배 기도와 KTX 해고 여승무원 복직을 위한 오체투지,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인양을 위한 끝없는 단식과 철야기도, 1년 넘게 계속된 아시아나케이오 원직복직 촉구 기도회 등 문제가 해결되는 날까지 현장에 있었던 스님들의 꾸준함 덕분에 사노위는 10년 동안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

10년 간 수많은 현장에서 우리사회 곳곳의 고통 받는 사람들을 만난 사노위는 이제 미래에 대해 깊은 고민을 내놓고 있다. 중생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뛰어든 길인만큼, 불교 교리와 사상을 사노위 활동에 녹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흔히들 현장에서 말하는 집회와 투쟁이 아닌 오체투지, 기도회, 49재와 추모재 등 불교적 방식을 선택한 것도, 아프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종교적 치유기능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2012년 출범해 10주년 맞아
인권·노동에서 동물권까지
사회 전분야서 폭넓은 활동

부처님 가르침 사회 현실화
종교행위로 사회여론 만들며
새로운 방향 만들어 내기도

사노위원장 지몽 스님은 "지금 사노위가 현장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면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좀더 본질적인 문제, 불교의 연기적 사유와 평등사상을 현대인들에게 쉽고 편하게 전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진정한 인식의 전환은 교육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의 경험과 노하우를 정리해 체계적인 매뉴얼을 만들고 이를 계승할 후학을 양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왜 불교계가 이토록 현장에서 10년 간 목소리를 냈는지, 불교계 실천행을 넘어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뒷받침 된다면 왜 스님들이 승복을 입고 현장에 서 있는지에 대한 생각도 정립이 될 수 있다는 게 지몽 스님의 설명이다.

모든 사회문제에 대해 책임 있게 대처하는 불교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양한웅 집행위원장은 "다양한 분야에 맞춰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 사노위가 종단의 대사회적 기구이자 독립된 기구로서 승격, 자체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확대개편 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사노위의 향후 10년은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 또다른 시작이라고 강조한 양 위원장은 "노동권 뿐만 아니라 인권, 성차별, 환경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차별과 편견으로 생성된 사회갈등이 사라지고 모두가 화합해 평등한 그날이 올 때까지 활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10년 주요 활동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 촉구
대한문 쌍용자동차 분향소 앞 10만배 기도, 5차례 오체투지 및 행진, 7차례 3000배, 회사대표 면담

세월호
■ 특별법 제정 촉구
도철 스님 32일 단식, 6차례의 3000배 기도, 24시간 매일 기도 및 72시간 연속 기도
■ 인양 및 미수습자 수습 촉구
3차례 오체투지, 미수습자 수습 촉구 10차례 기도 법회, 인양 기원 72시간 철야 기도, 참사 해역 5차례 기도 법회, 7개월간 인양 및 미수습자 수습위한 목포신항 임시법당 설치 후 매일 기도와 집중 기도
■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촉구
1000배 기도 및 법회, 5차례 오체투지

스텔라데이지호 해저 탐사 발원
6개월간 매주 2회 외무부 앞 기도

KTX 여승무원 문제 해결 촉구
6차례 오체투지, 서울역사 108배 등 6차례 기도회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정부청사, 국회, 각 정당 당사 앞 28차례 격주 기도회, 30km 오체투지 등 3차례 오체투지, 국회 앞 단식 농성장 40여 일 기도회

장기농성장 및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 촉구
쌍용자동차, 파인텍, 콜트콜텍, KTX 여승무원 등 장기 농성 사업장 중재 타결, LG트윈타워 기도(매주 5개월), 아시아나케이오 기도(매주 1년 2개월), 영남대병원 기도(매주 6개월)

산재 및 노동자 사망 문제 촉구
충남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김용균 노동자, 한국마사회 문중원 기수, 청주방송 이재학 PD, 서울의료원 서지윤 간호사, 동국제강 이동우 노동자 등 산재현장 추모기도, 49재 등

성소수자 권익 향상
반차별문화제, 성소수자 초청 법회, 성소수자 부모님 초청 법회, 성소수자 초청 산사음악회,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 초청, 퀴어문화축제 부스 운영

대사회 추모사업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13차례 주관(2016년부터 매년 2회 주관), 광주 5.18 민주화운동 추모제(매년), 제주 4.3 항쟁 추모제(매년), 효순미선 천도재, 코로나 희생자 추모재

이주노동자 권익 향상
단속과정에서 돌아가신 미얀마 딴저테이 노동자 49재, 1주기 추모재, 법무부 항의 방문 / 캄보디아 속행 노동자 49재, 1주기 추모재 / 여수 출입국 사무소 희생자 추모재 등 이주노동자 인권 활동과 연대 활동

빈곤
송파세모녀 49재와 추모재(매년), 무연고 사망자 추모재(매년), 단역배우 두 자매 천도재

세계평화 기원
우크라이나 평화기원 기도회 및 오체투지, 미얀마 민주 항쟁 희생자 추모 및 민주주의 실현 오체투지

사회적약자 초청 템플스테이
2013년부터 매년 4차례 진행 중

노동자 심리 상담 및 명상 '도반'
2013년부터 운영 중

사노위를 이끄는 사람들

"우리 모두의 행복 위해 거리 목탁 되겠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장 지몽 스님



지몽 스님은 2017년 동국대 대학원(명상심리 상담) 재학 중 도반의 추천으로 사노위에 합류했다. 실천적인 활동을 고민하고 있던 시기였다. 사노위에 합류하자마자 부처님 가르침은 철학이나 사상을 넘어 현실에서 구현돼야 살아있는 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몽 스님은 "명확한 목적과 사회의식, 부처님 가르침에 기반 한 이론적 확신이 없다면 수행자로서 지속해나가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고통받는 중생이 있는 현장에서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下化衆生)의 실현을 추구하는 확신,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사회의 인식을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다는 믿음으로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스님은 지난 10년간의 사노위 활동을 회고하며 "고통받는 이들은 특별한 그 누군가가 아닌 우리의 이웃이며 지인"이라면서 "누구든지 그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에 우리는 꾸준히 사회 곳곳에 관심을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사회에서 우리는 '공업중생'이라는 것. 때문에 나 혼자, 우리 가족만 행복할 수도 없고, 고통도 나로만 끝나지 않기에 함께 나아가야할 존재라는 것이다. 스님은 "목소리를 내면서 꾸준하게 묵묵히 나아가다 보면 사회구조적인 공업 역시 조금씩 녹아날 것"이라면 "그 아픔과 고통이 녹아난 자리는 분명 힘없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가 좀 더 살기 좋은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지몽 스님은 "활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로부터 불교에 대한 이미지를 다시 갖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환희심과 보람을 느낀다"면서 "초심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평등과 부조리로 고통받는 분들과 거리에서 함께 아파하고, 목소리를 내고, 해결방 안을 찾아가는 데 도움을 주겠다"면서 "관세음보살의 대자비심과 보현보살의 행원을 꿋꿋하게 실천하며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 거리의 목탁이 되겠다"고 서원했다.

스님과 불자들의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 지몽 스님은 "큰 깨달음을 체득한 스님의 출연도 중요하지만 사무량심으로 중생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서 동체대비를 실천할 스님들이 많아야 한다"면서 "사노위의 대사회적 활동을 함께하고자 하는 스님들을 기다리며 항상 문을 열고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약자들에 인정받는 사노위 될 것"
양한웅 집행위원장



양한웅 위원장은 2012년 사노위 출범부터 지금까지 사노위와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 사노위 활동 최전선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단체들과 연대를 위해 발로 뛰는 양 위원장은 사노위가 노동자가 거리낌 없이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는 곳이 되길 바란다. 사회적 약자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사노위의 존재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양 위원장은 사노위에 대해 "사회활동뿐 아니라 자비정신 실현을 구현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활동을 통한 불교적 실천으로 사회적 신뢰를 쌓고 노동자뿐 아니라 국민도 기대를 하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를 통해 무엇보다 불교를 바로 세우고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이를 위해 지난 10년, 양 위원장은 항상 거리에 있었다. 문제가 발생한 곳이라면 달려가 끊임없는 기도회와 기자회견을 열었고 오체투지를 행했으며 사태 해결을 위한 노사협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10년간의 시간에서 아쉬움이라면 활동하는 스님의 부족이다. 양 위원장은 "스님들이 현장에 와주시는 것만으로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스님들 참여가 늘어나면 노동운동에서 인권, 여성, 장애, 환경 등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의 폭을 더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양 위원장이 가진 바람 중 하나는 사노위 만의 작은 공간 마련이다. 양 위원장은 "실천위원스님 대부분이 일정이 있을 때마다 소임을 내려놓고 전국에서 기차와 버스를 갈아타며 왕복 12시간을 달려온다"라면서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실천위원 스님의 휴식공간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들이 수시로 오가며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또 기동성 있게 대처하기도 하는 사노위 만의 공간이 수도권 어딘가에 작게나마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9월 추대될 새로운 총무원장에 대한 기대도 전했다. 양 위원장은 "사회노동위원회가 외연을 확장하며 10년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역대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들의 절대적인 믿음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새로운 총무원장 스님도 불교사회 역할에 많은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화 위한 발걸음 지속"
이권수 행정관



2011년 조계종 종무원이 된 이권수 행정관은 2020년 12월, 사노위를 담당하게 됐다. 이 행정관은 "언제부터인지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떠올리며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왔다"면서 "사노위 10여 년을 지켜보며 고민하던 것들을 실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 행정관이 사노위 업무를 맡고 제일 먼저 한일을 오체투지에 동참하는 일이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사회약자들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사노위 담당 1년 반이 지난 지금, 이 행정관은 몸무게가 무려 7kg이나 빠졌다. 수차례 오체투지에 동참하고 각종 사회현장을 뛰어다닌 결과다.

사노위 활동을 시작한 이후로 스스로의 일에 더 큰 보람을 느낀다는 이 행정관은 종무원에서 한 단계 뛰어넘어 어려운 이들에게 큰 힘이 되는 활동가가 되길 희망한다. 이 행정관은 "우리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며 사회 변화를 이루기 위한 발걸음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범어사, 백중기도 회향 및 영산회상도 점안

백중기도 회향서 새 불화 3점 점안
기존 불화, 보존 위해 박물관 이관
새 불화, 천연석채 전통 기법 조성
새 불화조성 권영관 불모에 감사패
기도기간 14명 법사 스님들 설법해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이도경 부산지사장


금정총림 범어사가 8월 15일 경내 일대에서 '2022 백중 지장기도 회향 및 대웅전 탱화 점안식'을 봉행했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보운)가 90일 동안 이어온 백중 지장기도를 회향했다. 범어사는 8월 15일 경내 일대에서 '2022 백중 지장기도 회향 및 대웅전 탱화 점안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석은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지유 대종사의 증명으로 대웅전 석가영산회상도와 삼장보살도, 신중탱화 점안식으로 시작했다. 3점의 불화는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중요 문화재로 보존을 위해 지난 5월 범어사 성보박물관으로 이관했다. 특히 석가영산회상도는 성보박물관으로 이운하던 중 불화 배면(背面)에서 사리 4과가 발견돼 화제가 됐으며 지장백중기도 기간 동안 일반에게 공개하기도 했으며, 백중기도 회향 후 범어사성보박물관에서 상시전시를 열고 있다.

범어사는 여법한 보존을 위해 이관된 대웅전 불화 3점의 모사본을 새롭게 봉안하고 90일간 백중 지장기도를 이어왔다. 대웅전에 새롭게 봉안한 탱화는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15호 권영관 불화장이 불사를 진행했으며 천연석채를 활용한 전통기법으로 작품성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어 대웅전 앞마당 특설무대에서 사시불공 및 백중기도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방장 지유 대종사의 법문에 이어 신임 주지 보운 스님이 인사말을 전했고, 권영관 불모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 관음시식이 이어졌으며, 조계종 첫 비구니 어산어장 동희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이 영산재 공연을 펼쳤다.

방장 지유 대종사는 법어에서 "지옥에 가면 괴롭고 천상에 가면 즐겁다. 하지만 깨달으면 지옥이든 천상이든 어디를 가더라도 관계없다. 그래서 한마음이 깨끗하면 국토가 깨끗해지고 한마음이 흐리면 세계가 흐려진다"며 "마음으로부터 우주 삼라 시간과 공간이 생겼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생각 하나가 세계이다. 그 한 생각을 잘 살펴보시길 바란다"고 법문했다.

주지 보운 스님은 "올해는 백중기도 회향과 함께 대웅전의 탱화 조성불사까지 완수하게 되어 더욱 특별한 백중을 맞이하게 되었다. 범어사 경내는 모두가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전각에서부터 불상, 불화를 비롯해 나무 기둥, 기와 한 장 그 어느 것도 쉽게 모셔진 것이 없다. 우리 범어사 스님들은 과거부터 내려온 이 귀중한 불교문화를 계승하고 또 후대에도 무사히 전승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신축 범어사 성보박물관에 모신 탱화는 잘 보존하여 오롯이 과거의 역사를 남길 것이며 새로 대웅전에 모신 탱화는 여법하게 법당을 장엄하며 여러분의 신심을 증장시키고 훗날의 역사를 새겨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관음시식과 영산재 이후 스님들과 불자들은 소대로 이동해 위패 소지의식과 염불로 법석을 회향했다.

범어사는 매년 백중 기도 기간 동안 특별법석을 펼쳐왔다. 이번 해는 백중기도 기간 동안에는 前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을 비롯한 14명의 법사 스님들이 설법을 이어간 '2022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법회'를 진행했다.

고담정토문화원, 금정구청에 300만 원 · 쌀 1000kg 기탁

'이웃돕기 성금 및 물품기탁식'
매년 기도 성금으로 이웃돕기

사단법인 고담정토문화원(이사장 고담)이 8월 16일 부산 금정구청 3층 접견실에서 '이웃돕기 성금 및 물품 기탁식'을 개최했다.

고담정토문화원은 매년 백중 기도를 회향하며 기도 성금으로 이웃돕기를 실천하고 있다. 올해는 금정구청에 성금 300만 원과 쌀 1000kg을 기탁하며 소외이웃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했다.

기탁식에는 이사장 고담 스님과 범성천불정사 법사를 비롯한 신도들과 김재윤 금정구청장, 김경희 사회복지과장 등 관계자가 동석했다.

이사장 고담 스님은 "불자들의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보시금과 백미를 전달한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소외 이웃이 곧 우리 자신이다. 육바라밀을 실천하며 이웃이 건강하기를 기원하는 이 나눔은 곧 우리 자신에게 베푼 것과 같다"며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며 모두가 건강하시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재윤 금정구청장은 "고담 스님의 나눔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진심으로 감사하며 소외이웃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사단법인 고담정토문화원은 천불정사 산하기관으로, 부산 금정구에서 반찬 나눔, 쌀 나눔, 성금 지원 등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부산대학교 고시생을 위한 인재불사 지원에도 앞장서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마하사 · 연제구, 콘텐츠 개발 협약

10월~12월 매월 첫 주 주말에
시민 위한 힐링 프로그램 진행



천년고찰 마하사(주지 정산)와 부산 연제구(구청장 주석수)가 8월 17일 연제구청에서 '체험형 웰니스 관광 콘텐츠 사업'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마하사는 부산시민에게 힐링 프로그램을 선사하고 불교형 체험 프로그램 개발에 앞장설 계획이다. 부산에서 진행하는 '체험형 웰니스 관광 콘텐츠 사업'은 다양한 전통자원으로 새로운 관광명소 및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현대인의 마음에 쉼을 선사하기 위한 사업이다.

협약식에는 마하사 주지 정산 스님, 주석수 연제구청장, 안정호 연제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동참했다.

정산 스님은 "마하사는 연제구에 위치한 중요 전통 사찰이다. 문화적 컨텐츠로 삼기에 충분히 뛰어난 가치가 있다"며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시민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석수 연제구청장은 "연제구에 젊은 세대가 많이 유입되고 있다. 사찰과 협력해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 것 같다"며 "연제구민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며 함께해준 마하사에 감사하다"고 답했다.

마하사에서 진행하는 체험형 웰니스 관광 콘텐츠 사업은 10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첫째 주말에 진행된다. 연제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모집인원은 40명 선착순이며 상설프로그램은 마음챙김(화두 챙김)이며 공통프로그램은 그룹명상, 걷기명상, 절명상이다. 특화프로그램은 소리명상인 사운드배스, 불화컬러링 및 만다라그리기 등 아트테라피, 다도명상이 이어질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보혜 스님 첫 그림 전시회 열어

9월 1~8일, 부산시민회관 갤러리
'茶향이 절로 寺로' 출판기념회도


보혜 스님


조리(早離)와 속리(速離) 2022년. 수채화 물감. 수성색연필. 31.5×41cm

사단법인 향기로운문화동행 이사장 보혜 스님이 9월 1일부터 8일까지 부산시민회관 갤러리(소전시장 1층)에서 '茶향이 절로 寺로 보혜스님의 그림 전시회'를 개최한다.

스님은 첫 전시인 이번 전시에서 바다와 찻자리, 도자기 그리고 새가 담긴 작품 40여 점을 선보인다. 스님은 "고요하고 청정하게 맑은 수행자를 닮은 푸른 눈, 청안(淸眼)과 관세음과 대세지 전생의 이름인 조리와 속리 등 작품 이름에 불교적 내용을 담았다. 새는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 새의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행복을 선물하는 마음을 담았다. 또 도자기는 비워져 있다. 비움을 통해 채울 수 있다. 비움과 내려놓음의 가르침을 담고자 했다"고 작품의 의미를 설명했다.

보혜 스님은 20여 년 동안 차와 글을 통해 대중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왔다. 많은 예술인과 인연을 맺어 후원하고 문화로 연결된 삶을 지향했다. 차와 글, 연극, 음악 그리고 그림까지 스님의 문화 인연은 다양하다. 스님의 그림은 (사)부산화랑협회에서 주최하는 BAMA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여러 화가들과 만나면서 시작됐다. 그림을 보며 소통하는 것을 선호했지만 스스로 그림을 그릴 것이란 생각을 하지 못했다. 이번 전시의 그림들은 코로나 기간 동안 마주한 스님의 마음을 비춰낸 결과물이다.

보혜 스님은 "그림을 배운 적은 없다. 우연한 인연으로 시작했고 인연들의 권유로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림이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수단임을 알았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이심전심(以心傳心)인 깨달음을 말로 표현하면 거짓처럼 생각됐다. 언어가 끊어진 자리서 마주하는 마음의 소통을 그림을 그리며 표현하고 느낄 수 있었다. 작품을 하는 동안 느껴진 삼매의 환희는 시간과 공간을 사라지게 했다.

"처음 그림을 그린 날 오후 7시에 붓을 잡았는데 창밖을 보니 환하더군요. 아침 7시까지 그림을 그렸다는 사실을 모르고 시계를 보며 시계가 고장난 줄 알았어요. 지금도 일과를 마치고 그림을 그리면 시간 가는 것을 모를 때가 많아요."

이번 전시는 스님이 처음으로 여는 그림 전시이며 청량사 불사를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한 것이기도 한다. 현재 스님은 새롭게 불사를 진행 중이다. 대웅전과 함께 문화관을 설립한다. 대웅전은 전통식으로 짓고 문화관에는 교육관과 야외공연장, 카페 갤러리, 루프탑 공간이 자리할 예정이다. 문화관을 통해 스님은 문화와 종교가 하나가 된 화합체로 '동행'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았다. 문화관 건물은 연꽃이 활짝 핀 형상으로 건축될 예정이다.

보혜 스님은 "문화 예술 그리고 종교가 하나가 되어 서로 성장하는 장소로 회향되길 기원한다. 문화 예술과 종교가 하나 되어 서로가 함께 성장하는 동행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픈 행사는 9월 1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오픈 행사에서 보혜 스님은 시집 제4권 〈茶향이 절로 寺로〉 출판기념회도 함께 열 예정이다. 특히 스님과 인연을 맺은 임상진, 박경묵 화가의 작품도 함께 전시된다.

보혜 스님은 "불심으로 그림을 그리는 임상진 화백의 그림을 평소 좋아했다. 또 묵화로 그림을 그리고 선(禪)적인 작품을 그리는 박경묵 화가도 좋아해 인연이 되었다"며 "화가들을 후원해왔는데 이번에 한 점 정도씩 찬조를 받게 됐다. 문화로 함께하는 동행의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소중한 인연에 감사드리며 '다연기획'이 힘차게 출발합니다!

불기 2567(계묘)년 달력 주문 받습니다

삼보에 귀의하옵고,
시방의 평온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제방의 스님과 불자님들께
'다연기획'이 힘찬 출발의 인사를 올립니다.

'다연기획은' 불교 전문 종합기획사로서
2022년 6월 폐업한 '감로기획'에서
20년~30년간 일해 온 직원들이 다시 만나
설립한 회사입니다.

'다연기획'은
불자들에게 소중한 시간을 알려 주는 **불교 카렌다**
사찰의 각종 행사와 의례의식에 필요한 **행사용품**
각종 카다록과 단행본 및 현수막 등 **홍보용품**
사찰과 신행 단체의 **행사 기획 및 대행**
분야에서 일해 온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사찰의 행사와 전법 활동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며
사찰의 발전과 불자님들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2년 여름 다연기획 임직원 일동



도서출판 다연기획 Tel 02)723-4301 Fax 02)723-4303

‘국난 극복’ 염원…고성 건봉사 염불만일회 1년

건봉사서 8월 14일 정진법회

758년 신라 발징 화상 비롯한 31명 스님, 1820명 신도 효시 7차 염불만일회로 2021년 입재 국가무형문화재 등록 추진 예정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고성 건봉사 철야정진에서 염불기도를 하고 있는 스님과 불자들.


만장을 앞세우고 스님과 불자들이 아미타불을 염호하며 정진하고 있다.

신라 경덕왕 17년인 758년 금강산 건봉사에서는 발징 화상을 비롯한 31명의 스님과 신도 1820명이 1만일 동안 아미타불을 염송하는 미타만일연회(彌陀萬日蓮會)를 구성, 염불만일회의 시작을 알렸다. 이후 염불만일회는 일제 강점기 독립을 기원하고 국운 융창을 위해 6차례 열리는 등 국난 위기때마다 열렸다. 최근에는 동산반야회를 비롯해 성남 정토사 등 다양한 곳에서 염불만일회를 구성해 수행문화를 진작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실상 원조격인 건봉사에서 8월 14일 ‘제7차 염불만일회’ 1주년 기념 정진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정진 법회는 지난해 8월 24일 코로나 팬데믹 중에도 입재한 데 이은 것으로 7차 염불만일회의 전체 기간은 약 27년 5개월이다. 이날 정진법회에 참여한 50여 사부대중은 1년간 이어온 염불기도의 공덕을 회향하며, 2년차 입재를 맞아 코로나 극복과 남북평화가 이뤄지기를 기원했다.

건봉사 7차 염불만일회에는 약 300여 전국불자들이 동참하고 있다. 이번 1주년 기념 정진법회 및 철야정진기도에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불가피하게 일부 인원만 참여토록 했다.

건봉사 주지 현담 스님은 “7차 염불만일회를 통해 건봉사는 아미타 염불 도량으로 면모를 갖추게 됐다. 염불을 통해 코로나 종식과 세계 평화를 지속 발원하자”며 “아미타 부처님 염송을 법회에서만 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각 가정에서도, 일상 속에서도 계속 하여 마음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년 차 정진법회 전날인 13일부터는 철야정진도 펼쳐졌다. 철야정진에서는 현담 스님의 ‘아미타부처님’ 주제 법문, 정근, 새벽예불, 천도재 회향 순으로 진행됐다.

발징 화상 등이 염불만일회를 진행한 등공대의 참배는 무더위와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개별 희망자들로만 이뤄졌다. 건봉사는 이날 2년 차 입재와 함께 동참 사부대중이 매달 두 차례 건봉사 철야정진 기도와 함께 가정에서 정진을 이어가기로 했다.

정진에 동참한 이정순 건봉사 신도회장은 “1주년을 맞아 많은 인원이 한자리에서 정진하길 바랐으나 코로나 재확산으로 함께하지 못했다. 하지만 정진은 평소에도 계속 하는 만큼 도반들이 각자 위치에서 계속 정진하고, 그 가피로 코로나가 종식돼 다음 정진기도에 함께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현담 스님은 “건봉사는 염불만일회 시원도량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 전통을 지닌 곳으로 향후 염불만일회의 국가무형문화재 등재를 추진하고 전통문화유산으로 계승 발전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코로나 종식 발원 자비방생 법회 열리다

하동 쌍계사 8월 14일 고성 당항포서 방생법회


쌍계사가 개최한 제32회 자비방생 대법회에서 불자대중들이 코로나 종식을 발원하고 있다.

하동 쌍계사(주지 영담)는 8월 14일 고성 당항포 관광지에서 제32회 코로나종식을 위한 자비방생 대법회를 봉행했다.

자비방생 대법회에는 하동 쌍계사 주지 영담 스님, 쌍계총림 본·말사연합회장 이암 스님, 남해 보리암 성조 스님, 율원장 종성 스님, 대중 스님 및 본·말사 사찰 임원진, 최만림 행정부지사, 정점식 국회의원, 이상근 고성군수, 최을석 고성군의회 의장, 각 사찰 임원진 및 박해덕 경남포교사단장 등 사부대중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성전 스님의 사회로 시작된 법회서는 범패 공연(당주 선훈 스님, 염불원장 승원 스님), 자비방생법회 축원, 육법공양(쌍계사 선다회), 개회식, 삼귀의, 대회사(본·말사연합회장 이암 스님), 환영사(쌍계사 주지 영담 스님), 내빈 소개, 청법가, 고산 대선사 법어 동영상, 축사(최만림 경남 행정부지장, 정점심 국회의원, 이상근 고성군수, 최을석 고성군의회의장), 사홍서원, 공지사항, 방생법회의식, 조영남의 작은 음악회 순으로 진행됐다.

쌍계사 주지 영담 스님은 환영사에서 “방생법회는 고산 스님부터 하안거 해제 후 기도정진과 사찰 간 친목도모와 불교화합 그리고 7개 시·군 지역 발전에 도움을 주는 취지와 의미를 담아서 개최한 것이 시초”라며 “이번 32회 방생법회를 맞아 지역발전과 일상회복이 이뤄지길 바란다. 아울러 고성 당항포 문화행사도 번창하여, 국민 모두가 함께 즐기면서 힐링하는 기회가 되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본·말사 연합회장 이암 스님은 대회사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대재앙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법화경〉에서는 마음이 청정해야 국토가 청정하다고 한다. 방생과 함께 스스로 무지, 욕망,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모든 업을 되돌아보고 해소하길 바란다. 이를 통해 모두가 상생하는 평화의 세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정심 국회의원은 축사로 “불살생은 부처님 근본가르침 중 자비와 생명존중을 의미한다. 방생을 통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더 나아가 불교 생명살림 등 실천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용월사 여순사건 희생자 추모 수륙대재


8월 17일 여수 용월사서 펼쳐진 여순 희생자 수륙대재 모습.

호남지역 한국 현대사의 아픔인 여순사건의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추모 위령재가 열렸다. 여수 용월사(주지 원일)는 8월 17일 경내에서 인천 정현사(주지 벽인)와 공동으로 ‘해원 상생 수륙대재’를 봉행했다.

1948년 10월 19일 발발한 여순사건은 제주 4.3사건의 진압을 거부한 여수주둔 군인들의 봉기로 촉발된 사건으로, 진압과정에서 민간인 5000여 명이 뚜렷한 증거나 재판도 없이 부역자로 몰려 희생당했다. 지난 2021년 여순사건특별법이 통과해 진상조사와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이 시작했다.

행사에는 원일 스님, 벽인 스님, 주철현 국회의원, 정기명 여수시장,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김광일, 서대현 도의회의원, 강재현, 강현태, 진명숙, 김종길, 이미경, 고용진, 구민호, 이석주, 김채경 여수시의원 등 100여 명의 불자들이 동참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존폐위기 순천 신광사, 단식농성 진행



순천 신광사 사부대중이 관통도로 건립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도로 건설로 존폐위기를 맞은 사찰의 스님이 단식투쟁에 나섰다. 순천 신광사(주지 경빈)는 8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 현장사무실 앞에서 ‘신광사 관통하는 도로’로 인해 사찰 존립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예정인 신광사 중요 전각 이전을 촉구하는 시위와 함께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주지 경빈 스님과 일상 스님을 비롯해 지역 사찰 스님과 신도들은 ‘신광사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항의시위와 함께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경빈 스님은 “공사를 시작한 지 3년 동안 사찰을 방문하거나 설명회를 열지 않고 있다가, 지난 7월 27일경 익산시청 도로관리과장이 사찰을 방문하여 공사 내용을 설명하였으나, 현재 진행되는 공사가 당초 설명과는 다르고 공사로 인한 발파와 벌목으로 예불조차 진행하기 힘든 상황이며, 미륵불의 균열과 각 전각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도로는 2019년 6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진행하는 국도 27호선 순천 주암~벌교구간(3-2공구) 4차선 도로공사로, 이 구간이 완공되면 순천 신광사 극락전에서 직선거리 20m지점에 도로가 자리하며, 극락전 위로 5m 지점까지 임야 경사면으로 절개해 지나갈 예정이다.

이에 신광사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항의시위와 함께 중요전각 5동을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신광사는 1968년 창건한 사찰로 여러 차례 불사를 거쳐 1990년에 주 법당인 극락전을 시작으로 1992년 오방신전과 종각, 1993년 산신각을 건립해 지금의 도량을 갖췄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고창군사회복지시설, 말복 맞아 무료공양



고창군사회복지시설(시설장 대원 스님)은 8월 16일, 말복을 맞아 ‘무더위 원기회복을 위한 무료 중식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월, 지역에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해 달라는 지역 후원자 이순연 대표(애니카랜드 고창점 & 고창 금호타이어 시몬대리점)의 지원으로 마련됐다. 이날 나눔활동에는 후원자가 직접 배식봉사에 참여해 한층 더 뜻깊은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점심메뉴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철 식생활 지원을 위한 갈비탕이 제공됐다. 고창푸드마켓·선운기초푸드뱅크의 ‘기부식품나눔행사’와 연계하여 생필품 꾸러미(쌀, 마스크, 가요CD)도 함께 나누어 그 의미를 더했다.

이 행사에 함께한 어르신은 “매년 삼복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게 정성어린 점심을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고창군사회복지시설장 대원 스님은 “앞으로도 지역복지를 위해 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활력 넘치는 복지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선운사 도솔암, 우란분절 천도재 봉행



국내 3대 지장기도 도량으로 알려진 고창 선운사 도솔암이 우란분절을 맞아 선망조상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우란분절 대천도재를 봉행했다.

8월 12일 극락보전앞 마당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시련, 대련, 영가씻김천도, 상단불공, 제사, 이운, 소전, 방생의 순으로 진행됐다.

진도 씻김 전수자 김단아 씨가 진행한 영가씻김천도의식은 악사 이창규, 정효선 씨와 함께 진도씻김방식으로 진행됐다.

도솔암 총무 성본 스님은 “선망조상 천도에 갈망을 가진 신도대중의 뜻을 받들어, 불공드리는 스님들 뿐 아니라, 진도 씻김 전수자 팀을 초청했다”고 말했다.

천도의식을 모두 마친 불자들은 만장과 연 가마, 반야용선을 앞세운 이운행렬로 장관을 연출했다. 이날 행사에 동참한 불자들은 극락보전에서 소대가 마련된 도솔암 아래 주차장까지 이어지는 길을 하얀 연등을 들고 만장과 반야용선을 뒤따르며 인연 있는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운불련, 불교리더쉽아카데미 진행



코로나19로 지친 광주운전자불자회원을 위한 강좌가 열렸다.

한국운전자불자회 광주지회(회장 이현만)는 (사)빛고을나눔나무(상임이사 중현)의 후원으로 8월 17일 광주교통문화연수원 중강당에서 ‘광주운전불자회와 함께하는 불교리더쉽아카데미’ 강좌를 개최했다.

6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한 이날 강좌에는 김관태 대표(경영컨설팅 살림)를 초청해 ‘한국불교를 이끌어갈 불자의 자세와 불교지도자의 리더십’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이현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원들에게 불자로서의 자긍심과 역할을 다시 일깨우고, ‘달리는 법당 거리의 포교사’로 다시 우뚝 서는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빛고을나눔나무 상임이사 중현 스님은 축사를 통해 “늘 지역사회에서 헌신하고 있는 거리의 포교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불제자의 자긍심과 수행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성주사 제33회 보리수템플스테이 개최



창원 불모산 성주사(주지 법안)가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간 성주사 설법전에서 제33회 어린이 보리수 템플스테이를 실시했다.

이번 보리수 템플스테이에는 25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해 자신의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자 했다.

법안 스님은 환영사에서 “방학 중 템플스테이에 참여하여 마음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대견하다. 사회에 진출했을 때 마음의 보물을 잘 사용하는 이들이 될 것”이라며 “자신을 관찰하고 친구들과 화합, 협조하는 것을 아는 것이 부처님 가피”라고 설했다.

첫날 일정으로는 방사배정과 함께 안전교육 및 습의(찬불가 율동연습 및 규칙과 합장, 좌복 앉는 방법, 의식가, 절하는법), 입재식 및 공양습의, 명상, 저녁예불, 삼보일배 및 참선, 사경, 사리탑돌이 등이 진행됐다.

둘째 날에는 아침예불 및 108참회, 공양, 팀별 만다라 만들기, 호흡수행, 염색 손수건 만들기, 합장주 만들기, 물놀이, 편지쓰기, 걷기명상 등이 진행됐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日 호류지, 역대 최고 클라우드 펀딩 성공

'아름다운 호류지' 위해 모금 돌입
목표액 8배…2030세대 관심 보여
환경 정비와 시설 유지 비용 활용

박영빈 객원기자

일본 나라현 소재 천년고찰이자 세계문화유산인 호류지(法隆寺)가 인터넷으로 지원을 호소하는 클라우드 펀딩을 벌여 목표액의 8배 가까운 금액을 모금해 화제다. 8월 13일 일본의 '산케이 신문'은 불교계 클라우드 펀딩으로는 대성공을 거둔 호류지 소식을 특별보도했다.

호류지는 지난 6월 15일, 클라우드 펀딩 전문 사이트인 '레디포(ready for)'를 이용해 클라우드 펀딩에 나섰다. 당초 목표액은 2천만 엔(한화 약 2억 원)으로 설정, 후원금액에 따라 호류지에서 제작한 한정 기념품이나 소장문화재의 복제품 등을 답례로 설정했다. 이번 클라우드 펀딩은 불교계에서 흔히 진행하는 성보문화재나 전각 등의 수리가 아닌 사찰의 환경정비나 시설 관리, 경비보안 등 시설유지에 관련한 비용을 모으는 것이라는 점이 이례적이다.

호류지 측은 "길어지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문화재 관람료나 불전보시가 줄면서 여러모로 타격이 큰 상황이다.



최초 목표액의 8배 이상의 기금 모금에 성공한 호류지 클라우드 펀딩.
사진출처=클라우드 펀딩 사이트 캡쳐

연간 약 65만 명이었던 참배자는 2017년에 약 20만 명으로 격감했다"면서 "경비 재검토와 절약 등 노력했지만 운영이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은 히메지성과 함께 일본 최초의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지 30주년"이라면서 "어려운 시기지만 '아름다운 호류지'를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전달하고 싶다"고 클라우드 펀딩을 열게 된 이유를 밝혔다.

레디포 측에 따르면 "호류지에서 펀딩을 개시한다는 점이 화제가 되면서 개시일이었던 6월 15일 당일에 이미 최초 목표금액이었던 2천만 엔을 모두 달성했다"면서 "직접적으로 문화재와 관련되지 않은 불교계 펀딩으로 이렇게 성공을 거두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밝혔다. 성공에 더해 종료일까지 지속적으로 모금을 받으면서 해당 클라우드 펀딩은 목표액의 8배에 가까운 1억 5700만엔(한화 약 15억 4천만 원)을 모아 종료됐다.

펀딩에 참여한 사람들은 "수학여행으로 방문한 추억의 장소", "모두가 아는 그 곳", "세계와 일본의 보물을 아름답게 지키자"와 같이 다양한 메시지를 남기며 호류지 측이 전한 '아름다운 호류지'라는 메시지에 공감했다.

레디포 측은 "본 사이트에서 진행된 클라우드 펀딩 가운데 종교시설 부문에서는 과거 최고액"이라면서 "특히 지원자의 연령대도 2~30대 중반의 젊은 세대가 27.8%로 가장 많이 참여했고, 스마트폰 활용에 익숙한 40대까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10~20대도 12.4%나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참여 금액이 5천 엔부터라 부담 없이 기부할 수 있는 점, 펀딩이 미디어를 통해 다뤄지며 친근해진 점 등으로 인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호류지 측은 클라우드 펀딩의 성공에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 "이번 클라우드 펀딩에 참여한 모든 분들을 호류지 최고의 성보인 백제관음상 앞에서 축원했으며, 명단을 영구히 봉안할 예정"이며 "모인 금액은 당초의 목표는 물론, 더 나아가 비지정 문화재들의 수리와 복원 등 광범위하게 호류지 소장 성보들의 유지 보수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 문화청은 올해부터 국보 등의 수리나 방재공사 등의 비용을 클라우드 펀딩을 포함한 민간기부로 조달하면 국가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민간자금을 활용해 문화재 보호에 의욕이 있는 소장처들을 먼저 뒷받침하려는 시도다.

산케이 신문은 이번 펀딩에 대해 "불특정 다수에 의한 불교문화재에 대한 펀딩 성공은 가시적인 성과"라면서 "향후 다른 사찰과 기관들에게까지 영향이 가야한다"고 평했다.

불상 밟고 올라선 소녀…인도 영화 '훼불' 논란

인도 OTT '피해자' 1화 '담맘' 일부 장면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소니리브(SonyLiv)를 통해 방영 중인 인도 OTT 앤솔로지 시리즈 '피해자'(Victim)가 훼불 논란에 휩싸였다. 시리즈 중 최근 공개분인 '담맘'(Dhammam)의 일부 장면 때문이다.

인도 인터넷 매체 '더페더럴'(The federal) 등 외신은 8월 14일 "30분짜리 '담맘' 편에서 한 소녀가 부처님 가르침을 언급하는 부분이 논란"이라며 "불교계는 해당 장면이 부처님을 경시하고 조롱한다고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담맘'은 인도 카스트제에 대한 주인공들의 분개, 그중에서도 범죄에 연루된 한 소녀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한 남성이 소녀를 해하려 하자 소녀의 아버지와 남성이 몸싸움을 벌인다. 그러다 소녀의 아버지가 남성을 죽이고, 소녀는 이를 목격한다. 이후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 소녀의 아버지를 공격한다.

문제의 장면은 극 초반부 벌판에 버려진 불상을 두고 한 부녀가 주고받는 대화에서 시작된다. 소녀는 불상의 어깨를 밟고 올라가 하늘을 나는 시늉을 한다. 밭을 일구던 농부인 그의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황급히 달려와 소녀에게 "당장 내려와라"고 소리를 지른다. 그러면서 그의 아버지는 "버려진 불상이라도 '신'이다. 불상을 밟고 올라서서 더럽혀선 안 된다"라고 다그친다.

이에 소녀는 "부처님은 스스로 '신'이라고 말씀하신 적 없다"며 반항한다. 아버지는 소녀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지만 이내 "당장 내려오라"고 다시 한 번 꾸중한다.

해당 장면에 대해 일부 평론가는 "세상에 신은 없고 오직 부처님과 그의 가르침만 있다는 것을 소녀의 말을 통해 상기시켰다"며 호평했다.

하지만 불교계와 일부 평론가들은 "그동안 작품마다 부처님을 긍정적으로 표현해왔던 파 란지스 감독이 이번엔 실수를 했다"며 혹평했다. 타밀나두불교승가위원회의 보디 암베드카르 사무총장은 "소녀의 대사에서 일러주듯 불교는 단순히 신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 인간 가치를 따르는 종교"라면서도 "그러나 소녀가 더러운 발로 불상을 밟고 올라서는 장면은 지나치게 자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영화 '피해자' 감독 파 란지스(왼쪽)와 영화의 한 장면(오른쪽) 사진출처=더페더럴

예고편이 공개된 후 해당 장면에 대해 논란이 일자 감독은 본편해서 해당 부분을 편집했지만 다른 장면들은 고스란히 내보냈다. 이에 암베드카르 사무총장은 "불자도 아닌 란지스가 노이즈마케팅 차원에서 불상을 악용한 것"이라며 "란지스 감독은 제작자로서 가져야 할 윤리의식을 져버렸다"고 덧붙였다.

반카스트제에 기반한 인도의 정치인이자 불자인 고우타마 산나도 "감독이 불교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해당 장면을 연출했다"고 암베드카르 사무총장의 의견을 지지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영국 가정집 차고 기도실로 '탈바꿈'

담마파디파 스님들,
차고 개조로 사찰 확장


차고를 개조해 만든 법당과 주지 스님.
사진출처=BBC

영국 에든버러 외곽에 건설 예정이었던 거대 불교 사원 건설 계획이 보류되자 스님들이 한 가정집을 법당으로 개조해 눈길을 끈다.

BBC의 8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스님들은 기존 사원 차고를 기도실로 개조하고 태국 현지서 모셔온 불상을 봉안하는 등 담마파디파(Dhammapadipa) 사원 보수 공사를 진행했다.

스님들은 2005년 한 가정집에 처음 담마파디파 사원을 설립했다. 이후 태국 억만장자이자 프리미어 축구클럽 레스터시티의 회장을 역임했던 비차이 스리다나프라바(Vichai Srivaddhanaprabha)는 에든버르 외곽에 있는 부지를 매입, 담마파디파 사원을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2018년 헬리콥터 추락으로 그가 목숨을 잃으면서 담마파디파 사원 이전 계획도 무기한 연기됐다.

카첸 져드폴(Kachen Gerdphol) 주지 스님은 BBC스코틀랜드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에든버러 남동쪽에서 매우 좋은 부지를 발견했고, 우리를 직접 데려가 마음에 드는지 물어봤다"며 "부지와 건물은 매우 웅장하고 장엄했다. 그는 생전 불교에 대한 신앙심이 매우 컸다"고 회고했다.

스님들은 평범한 가정집에 꾸렸던 현재 사원을 확장하기로 했다. 주지 스님은 "우리는 비차이 회장을 보냈지만, 영국에서 태국 불교를 알리기 위해 사원 확장이 불가피하다"며 "5만 파운드(한화 약 8000만 원)를 들여 현재 사원으로 활용되는 가정집의 차고를 개조, 확장했다"고 설명했다.

차고는 거대한 기도실이 됐고, 차고 문은 대형 방음창으로 교체됐다. 불단 중심에는 태국에서 운송된 500kg 금으로 도금된 불상이 자리했다. 해당 사원은 태국승가위원회(Thai Sangha Council)의 공인을 받았다.

박정현 객원기자

"푸념거리 천도합니다"

日, 이색 천도재 화제
남녀노소 다양한 푸념


다양한 푸념들이 쓰인 종이쪽지가 법당에 걸려 있다. 사진출처=곤넨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고 3년째 여름,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뜻하는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코로나 블루는 물론 일상 속에 생겨난 걱정과 푸념거리를 천도하는 이색 천도재가 봉행돼 화제다. 일본의 온라인 뉴스매체인 '에리어 닷'은 8월 14일, 지난해에 이어 2회째 봉행된 푸념 천도재를 특별보도했다.

도쿄에 소재한 정토진종 사찰 '곤넨지(嚴念寺)'는 13세기 중반에 세워진 고찰로, 염불도량으로 오랜 명맥을 이어온 사찰이다. 곤넨지는 지난해부터 백중을 맞아 '푸념 천도재'라는 이색 천도재를 봉행하고 있다. 곤넨지의 부주지 스가와라 요우 스님은 "코로나19로 인해 이동에 제약이 생기고, 사람간의 만남과 대화가 이어지지 못하며 안에서 응어리진 생각들을 시원하게 말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푸념 천도재의 의의를 전했다.

스님은 지난해 백중을 앞두고 도반스님들과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하던 중 푸념 천도재의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전했다. 스님은 "망자를 천도하기 위해서 먼저 살아있는 유가족들의 깊은 슬픔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배운다. 여기서 착안해 코로나 블루가 가진 슬픔이나 분노라는 무거운 감정을 푸념이라는 친근한 개념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사찰에 방문한 참석자들은 긴 종이쪽에 평소에 강하게 가져온 푸념을 쓰고서 등불이 설치된 벽에 하나씩 붙여 나갔다. 참석자는 초등학생부터 88세의 노인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다. 참석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푸념을 읽으며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을 찾아내거나, 걱정해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박영빈 객원기자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승려연수과정 수강생 모집
현대인을 위한 생활수행과 포교

코로나 이후 법회 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

일 정 2022년 8월 24일(수) ~ 26일(금), 2박 3일
장 소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지번) 신평동 150-8)
문 의 031-470-3196, 3200 (월요일 휴무)
정 원 50명(선착순)
교육비 20만원(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교육방법
▶ 변화하는 시대의 사찰 운영 사례
▶ 온라인법회 운영과 컨텐츠 제작 및 사례
▶ 마음과 과학

	1일차 (8월 24일, 수)	2일차 (8월 25일, 목)	3일차 (8월 26일, 금)
09:00~12:00		수행과 포교의 연계성 '원리와 사례'	현대인을 위한 포교
14:00~17:00	현대적 생활 수행과 포교 방안	생활 속의 마음공부 '실천중심 방법론'	
18:30~20:30	불교 속의 과학 과학 속의 불교	뉴노멀 시대 온라인 법회 활용 방안	

재단법인 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돈오란 수행과정 마지막 자리서 얻는 진정한 깨달음”



돈오입도요문강설
원순 스님 지음
법공양 펴냄/2만 원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돈오입도요문론〉은 단숨에 깨달아(돈오, 頓悟) 부처님 세상인 행복한 삶으로 들어가는 (입도, 入道) 요긴한 방편(요문, 要門)을 제시하는 글(論)이란 뜻이다. 송광사 인월암에 주석하며 경전 번역과 교학에 진력한 원순 스님이 마조(馬祖, 709~788)스님의 제자 대주혜해(大株慧海)가 저술한 〈돈오입도요문 강설〉을 새롭게 펴냈다.

원순 스님이 이 책을 강설하게 된 인연은 은사인 성철 스님 가르침을 쉬운 언어로 대중에게 설명하려는 의지에서 출발했다. 원순 스님은 “은사이신 성철 스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육조단경 만큼이나 돈오입도요문을 중요시 생각하셨다”며 “성철 스님은 선문의 근본은 견성이며 이 견성이 곧 돈오라고 말씀하셨다. 돈오란 수행과정의 마지막 자리서 얻는 진정한 깨달음이다. 해오점수에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깨달음을 진짜 깨달음으로 착각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돈오입도요문론〉은 깨달음으로 들어가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50여 주제로 정리해 문답식으로 설명했다. 논지가 간단명료하고 강렬하게 선가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어 요긴한 선수행 지침서로도 평가받는다.

〈돈오입도요문론〉 저자인 대주혜해 스님이 불법을 구하자 마조 스님은 이렇게 묻는다.

“자기 집의 보배 창고는 돌아보지 않고 집을 떠나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구하려고 하는가?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법을 구하려고 하는가?”

“어떤 것이 저의 보배 창고입니까?”

“지금 나에게 묻고 있는 그대 자체가 보배 창고이다. 그대에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조금도 모자랄 게 없어 쓰임새가 자유자재한데 어찌 그것을 놔두고 밖에서 구하려 하는가?”

이 한마디 가르침에 대주 스님은 마조 스님을 6년간 모시고 살게 된다. 그 후 월주 대운사로 돌아온 스님은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고 살며 〈돈오입도요문론〉을 저술했다. 이 책은 스님이 몸소 직접 기록한 글로서 뒷날 가필이나 삭제한 글이 없으므로, 〈육조단경〉 〈전심법요〉 〈벽암록〉 〈임제록〉 등 문도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그 어떤 어록보다 완전한 저술로 여겨 선가에서 가치가 높다.



송광사 인월암에 주석하며 경전 번역과 교학에 진력한 원순 스님이 강의하는 모습.

〈돈오입도요문론〉, 단숨에 깨달아 행복한 삶 가는 방편 제시해
깨달음 가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내용 50여 주제로 정리해 설명
논지 간단 명료하고 강렬한 선가 가르침 전해 선수행 지침서로

또한 이 글을 마조 스님이 생전에 보고 극찬하며 인가해 〈육조단경〉 〈신심명〉 〈증도가〉와 함께 귀중한 자료로 선종사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원순 스님은 “대주 스님은 이 책에서 오직 ‘돈오(頓悟)’ 이 길만이 해탈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돈(頓)’이란 단숨에 헛된 망념을 없애는 것이요, ‘오(悟)’란 헛된 망념이 사라진 부처님 마음자리로 ‘더 얻을 게 없음을 깨닫는 것’이다. 여기서 대주 스님이 말씀하시는 ‘돈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오돈수(頓悟頓修)’의 ‘돈오’에 해당한다. 대주 스님 가르침을 듣고 ‘어떤 곳에서도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져 이 자리에서 확실히 알고 모든 공부를 끝낸다면 이런 사람을 우리는 ‘돈오돈수(頓悟頓修)’를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원순 스님은 책에 성철 스님의 ‘출가송’ ‘오도송’ ‘열반송’ ‘발원문’도 함께 실었다. 스님은 “숨 가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한 생각 쉬고 ‘단숨에 깨달아 도에 들어가는 요긴한 길’을 읽는 인연으로, 오는 세상 뭇 삶들이 다 함께 부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은사 스님은 평소 이 책을 중요시 여겼기에 이 책 내용을 알면 큰스님 게송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원순 스님은 그동안 〈명추회요〉를 번역한 〈마음을 바로 봅시다〉, 대혜 스님 서장을 번역한 〈禪 스승의 편지〉 〈한글원각경〉 〈선요〉 〈몽산법어〉 〈도서〉 〈연꽃법화경〉 〈선가귀감〉 〈금강경오가해설의〉를 저자별로 번역한 여섯 권의 금강경과 선가귀감을 강설한 〈선 수행의 길잡이〉 등 다수의 불서를 펴냈다.

스님은 어렵기만 한 불교경전은 사람들과 소통되지 않는 생명력 없는 책이란 신념으로 경전이 대중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불교를 알기 쉽게 번역해 출간하는 것을 원력으로 삼았다.

현재 화엄경 경전불사 원력을 세워, 많은 사람들이 〈화엄경〉을 친근히 읽을 수 있도록 방대한 분량의 〈대방광불화엄경 제 80권〉을 이 시대의 언어로 번역하고 있으며 부산 동명불원 주지를 맡고 있다.

‘도덕경 인성교육 연구’ 재해석해 쉬운말로



당당하게, 따뜻하게, 아름답게 살자
청공도경 스님 지음
성연 펴냄/1만7천원



저자인 청공도경 스님

현대인들 인성교육 위해 쉽게 풀어
〈도덕경〉 철학 현대에 맞게 재해석

‘얻으려면 먼저 주어라’ ‘채우려면 먼저 비워라’. 이 말은 곧 배려와 존중, 그리고 공존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노자의 〈도덕경〉 핵심이다. 노자는 중국 고대의 사상가이며 도가의 시조이다. 〈도덕경〉은 춘추시대 말기에 노자가 난세를 피해 함곡관에 이르렀을 때 윤희가 도를 묻는데 대한 대답으로 적어준 책이라 전하나, 실제로는 전국시대 도가의 언설을 모아 한나라 초기에 편찬한 것으로 추측된다.

내용은 우주간에 존재하는 일종의 이법을 도라하며, 무위의 치, 무위의 처세훈을 서술했다. 이러한 노자의 사상을 읽어낼 수만 있다면, 그 자체로 심오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과 문화의 장벽이 가로막는 중국 고전을 읽는다거나 교육자료로 사용하는 것에는 아무래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많다.

이에 저자는 책을 통해 “노자의 도덕경을 통한 인성교육 연구를 재해석해 쉬운말로 표현했다. 그래서 이번 책 ‘당당하게, 따듯하게, 아름답게 살자’는 현대인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쉽게 풀어쓴 책이다.

〈도덕경〉에 담긴 철학을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도 이 책의 장점이다. 하지만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 노자의 사상을 여타 학문과 짚어가며 요점 정리했다. 노자의 사상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독자들도 이 책을 통해 인성교육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고, 도가의 사상적 흐름이 어떠한지 배울 수 있다.

저자인 청공 도경 스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는 교육을 사회적 적응이나 입신출세 수단으로 여기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학생들의 자살, 학교폭력, 일베 문화는 학교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실정”이라며 “따라서 모든 우주 만물을 관계로 설명한 노자의 〈도덕경〉은 인성교육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스님은 “〈도덕경〉은 만물의 존재 방식과 운행 원리를 설명하는데 이것이 인성교육에 적용된다면, 인성의 정의는 관계적인 측면서 풍부하게 논의할 수 있다. 또한 세계와 공동체의 상황, 글로벌 영역에 따라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내면의 평화를 찾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동체를 구축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방향을 찾는 것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일 기자

무아 가르침 깨닫고 실천할 때 코칭이 가능



마음발견의 기술
김종명 지음
불광 펴냄/1만7천원

모두가 이미 답을 갖고 있다

코칭 행위는 인간에 대한 믿음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 코칭은 모든 사람이 그 자체로 온전하고, 필요한 해답을 자신의 내부에 가지고 있으며, 창의적이라고 본다. 코칭 행위가 기반하는 인간에 대한 믿음은 불교가 기반하는 인간에 대한 믿음과 그 방향이 같다. 불교는 모든 사람이 불성(佛性), 즉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 혹은 성품이 있다고 믿는다. 인간의 마음은 본래 청정해서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나,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 일시적으로 더러워져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수행을 통해 더러워져 있는 것들을 닦아 내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불교는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가르치고, 코칭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것을 돕는다.

불교 가르침으로 더 깊이 이해한 코칭

코칭은 패러다임, 실천, 프로세스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며, 이 차원들 각각은 불교의 근본 가르침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먼저 코칭의 패러다임은 코치가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말한다. 코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공감해야 하며, 누구나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성품인 ‘탁월성’을 갖추고 있음을 믿고 그 탁월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것은 삼법인, 즉 제행무상, 제법무아, 일체개고와 연기법이라는 불교의 근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코칭 행위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코칭 실천은 코치가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즉 기분 · 생각 · 욕구를 알아주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코칭의 여덟 가지 핵심 역량에 대응하는 불교의 팔정도(八正道)를 실천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코칭의 프로세스는 코치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목표를 발견하게 하고,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실제로 목표를 성취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불교의 사성제 또는 신(信) 해(解) 행(行) 증(證)을 실천하는 것에 해당한다.

‘순간 함께 춤추는 코칭’은 무아서 시작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無我)’는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나’라는 것은 없다.”는 뜻이다. 무아의 가르침을 깨닫고 실천할 때 코치는 겸허하고 열린 마음으로 코칭 행위를 하게 된다. 이러한 이상적인 코칭이야말로 고민을 가진 이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에 몰입하는 코칭, 즉 고민을 가진 이와 함께 ‘순간을 춤추는 코칭’이다. 코칭 행위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시키는 것을 도움으로써 그들을 이롭게 한다. 동시에 코칭 행위는 팔정도에 따라 코치의 마음을 수양시킴으로써 코치를 이롭게 한다. 이런 점에서 코칭의 정신은 ‘자리이타(自利利他)’의 보살 정신과 같다. 코칭의 원리를 온전히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 수행하고, 그 수행을 통해 얻은 깨달음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김주일 기자

(사)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불교통신대학·대학원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대학장 / 대학원장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나란다삼장불교대학
강원 교육
학 장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 운영 행정지원
◉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원서교부 : 2022년 8월 부터
■ 개 강 : 2022년 9월 5일
■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서무선 박사님 외

불교예술대학
범패 · 작법무
교 수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습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 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 강의내용 : 상주권공
■ 수업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6시
■ 개 강 : 2022년 9월 6일 오후 3시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43가길 6 | www.kumgangnet.com | 금강선원 사무국 02)969-2410, 969-4981

제10회 묘엄불교문화상 후보공모

고(故) 세주 묘엄 명사스님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묘엄불교문화재단에서는 불교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를 선발, 표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상 후보를 공모합니다.

공모기간 2022년 8월 22일(월) ~ 11월 7일(금)
시상내역 2명(또는 단체), 각 상장 및 1천만원 상금

추천자격 및 선정기준
1. 불교교육, 포교, 수행, 불교학술, 불교예술 등의 분야에서 열악한 여건 속에서 의미 있고, 뛰어난 활동을 다년간 지속해 온 결과, 불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로서, 그 활동으로 인해 최근 5년간 다른 기관(재단)으로부터 수상한적이 없는 후보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2. 단체는 설립된 지 5년 이상이고, 회원 30명 이상인 곳이어야 하며, 근거자료와 함께 그 동안의 활동업적이 첨부돼야 한다.

접수 및 문의
• 접수방법 : 직접접수 및 우편접수
• 접수양식 : 묘엄불교문화재단 카페에서 다운로드 (http: //cafe.daum.net/myoeom.org)
• 접 수 처 : 46292 부산시 금정구 금정로 42(장전동) 문화공간 봄(BOMM) 2층 윤종갑 교수
• 문 의 : 사무국장 윤종갑 010-2314-2722 greencw@hanmail.net
※자세한 사항은 묘엄불교문화재단 카페 참조

수상자 발표
• 개별통지 후 재단 카페에 공지
• 시 상 식 : 2022년 11월 30일(수) 오전 10시 수원 봉녕사 대법당 세주 묘엄 스님 제11주기 추모다례재일

재단법인 묘엄불교문화재단

캔버스 오일 페인팅의 禪畵 '생각 이전'

김레이시 개인전 '생각 이전(Before Thinking)'
서울 '갤러리 한옥' 8월 19일부터 29일까지

언어끊어진 '생각 이전' 세계의 그림으로
한지 수묵 아닌 캔버스 오일 페인팅 선화
직관의 선(line)이 만든 선(禪) 세계 그려


김레이시_Before Thinking 2_ oil on canvas(130.3×291×2.8cm_2022)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내 작품은 직관의 산물이며 내면의 내용을 표현하는 과정에 대한 끊임없는 신뢰입니다."

미국에 활동 기반을 둔 현대화가 김레이시가 8월 19일부터 29일까지 서울 북촌 '갤러리 한옥'에서 개인전 '생각 이전(Before Thinking)'을 개최한다.

김레이시의 그림은 선(禪)의 세계다. 주로 한지에 수묵 영역에서 볼 수 있는 선화(禪畵)가 아닌 캔버스에 오일 페인팅 선화다. 김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말로 그릴 수 없고 문자로 설명할 수 없는 '생각 이전'의 세계를 작품 20여 점을 통해 선보인다.

순수평면화의 장르에서 추상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의 그림을 감상하고 이해하고 느끼는 일은 쉽지 않다. 추상화라는 장르 자체가 쉽지 않은 장르이고, 선의 세계가 쉽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이다. 선화의 세계는 선사가 토해낸 한 순간의 할(喝)과 같아서 이해와 설명의 영역이 아닌 '느낌'과 '공감'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화가 이전의 김레이시가 만난 직관의 세계가 화가 김레이시의 직관의 세계로 옮겨지면서 그림은 시작된다. 언어의 세계가 해결(설명)할 수 없는 직관의 느낌들이 다양한 색채의 선이 되어 캔버스를 채운다. 그 직관의 느낌들은 '생각 이전'으로 대변되는 것으로, 말과 글이 끊어진 세계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소리 같기도 하고 빛이거나 그림자 같기도 한 선들이 원래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 목적지를 향해 꿈틀거리며 뒤엉킨다. 그렇게 선(line)은 직관의 흐름을 따라 그려진 선(禪)이 된다.

'선화'를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선(禪)이라는 것 자체가 말과 문자로 설명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 말이나 문자로 설명을 하는 순간 그것은 '선(禪)'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설명의 세계가 아닌 직관적 느낌의 세계 선, 선화는 바로 그런 세계의 회화적 표현이다.

김 작가는 자신의 그림을 층들과 색의 조합으로 정의된 선 기반 언어를 반영한 그림이라고 말한다. 각각의 작품에 임할 때마다 자신의 가장 진실한 상태에 도달하려고 애쓴다. 그는 누구든 자신의 근원적인 진실함에 다가가려면 행동함과 실재함의 직접성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그것을 '본성'이라고 말하며 그 본성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내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세계를 선(禪)이라고 말한다. 그는 "선은 우리가 이 본성을 너무 오랫동안 잊고 버려두었지만 그래도 결국 언제든 다시 스며들 듯 살펴보고 마주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한 번 깨닫기만 하면 언제든 이 분명한 접근은 내가 만들어낸 그 모든 것들에게서도 너무나 쉽게 옮겨져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페인팅의 과정은 나 자신만의 길 위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이들과의 이어짐을 만들어낸다. 나의 작업은 일불승불교 혹은 커다란 수레라고 불리는 것에 함께하며, 그것은 다른 이들과 같이 할 때의 공감 조화 안에서 전부를 찾아갈 수 있음을 담아낸다"고 말한다.

그가 작품에서 추구하는 '본성'은 분별을 통해 옳고 그름의 과정을 겪기보다는 이미 있어왔던 그 자체로 돌아갔을 때 마땅히 직접적으로 알게 되는 것을 말한다.

김 작가가 페인팅으로 나타내는 작업은 마음의 본래 자리를 향한 과정들 중 하나로 직관을 통한 작업이다. 각각의 페인팅의 내용들은 찰나의 경험들을 모은 것이며, 이것들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그들 자신의 진실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창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서울여자대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MFA Pratt Institute NY, USA 등 서구에서 수학한 김 작가는 2015년 열었던 개인전 'In Between'에서 숭산 스님의 화두 '모른다'를 옮긴 작품들을 선보인 바 있다. 지식이 아닌 무의식과 의식의 균형에서 발생하는 직관적인 '행(行)'을 통해 본인의 마음을 반추하고 본질에 다가가려는 페인팅으로 이루어진 작품들이었다. 그래서 김 작가의 그림은 수행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당연히 수행의 시간인 것이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일상과 감정들을 의식적으로 조율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한 통찰이다. 미묘한 찰나의 순간들에서 찾아낸 이미지들이다. 이번 전시의 작품들 역시 그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다.

선(禪)은 '생각을 쉬는 것'이다. 생각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김레이시는 바로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그림은 '생각 이전'의 풍경이다.

김레이시는 '2010 Dialogue of Silence / 팝아트팩토리 서울'을 시작으로 10여 회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길 위에 선 물건들 / 스페이스 선 플러스 서울' 등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했다. 전시 문의 (02)3673-3426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 연계 답사 진행

'신들의 세계, 도리천의 세상 속으로'
8월 24일, 31일, 9월 7일 낭산 현장
사천왕사 터 출발 전 황복사 터까지


前 황복사 삼층석탑


사천왕사 녹유 신장벽전


사천왕사 동 귀부

국립경주박물관이 특별전 '낭산, 도리천 가는 길(6월 15일~9월 12일)'과 연계하여 경주 낭산의 주요 문화유산을 둘러보는 답사프로그램 '신들의 세계, 도리천의 세상 속으로'를 운영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성인을 대상으로 8월 24일, 31일, 9월 7일 오후 3시 30분에 낭산 현장에서 진행된다. 답사프로그램 '신들의 세계, 도리천의 세상 속으로'는 현재 열리고 있는 특별전 '낭산, 도리천 가는 길'의 여운을 현장에서 느껴보기 위해 마련했다.

특별전 '낭산 도리천 가는 길'은 신라인이 각별하게 여긴 경주 낭산과 낭산에 남아있는 다양한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고, 이들이 가지는 의미를 종합적으로 조명하기 위한 전시로 전(傳)황복사 삼층석탑 사리장엄구의 금제불상 등 낭산 관련 유물 389점을 선보이고 있다.

특별전과 연계한 답사 프로그램은 사천왕사 터에서 시작해 낭산 고분군, 선덕여왕릉, 능지탑을 거쳐 마지막으로 전 황복사 터를 답사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특별전시를 기획한 이현태 학예연구사가 현장 설명을 담당하며, 특별전에는 미처 담지 못한 낭산과 관련한 흥미로운 이야기와 낭산 유적의 입지에 담긴 의미 등 깊이 있는 해설을 들려줄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2022년 8월 10일부터 18일까지 국립경주박물관 누리집(http://gyeongju.museum.go.kr - 교육·행사 - 교육프로그램)에서 가능하고, 별도의 참가비 없이 무료로 운영된다. 코로나19의 재유행과 날씨 등을 감안해 참가자는 각 회별 성인 20명으로 제한하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낭산의 시원한 소나무 숲을 거닐며 무더위를 날려버리고 박물관의 전시실에서 만나는 낭산 문화유산의 감흥을 현장에서 직접 느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054)740-7500 박재완 기자

도신 스님 〈웃는 연습〉 출판기념 북콘서트

9월 4일 전통문화예술공연장
사인회 · 시인과의 토크 등



"초대합니다. 날개 잃은 매미 앉아 울 수 있는 나무가 되어주신 당신께 목청 돋웁니다."

서산 서광사 주지 도신 스님〈사진〉이 9월 4일 오후 2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시집 〈웃는 연습〉 출판 기념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노래하는 스님'으로 알려진 도신 스님은 지난 6월 첫 시집 〈웃는 연습〉을 출간했다. 2018년 시인으로 등단하고 뒤늦게 중앙대 대학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했다.

북콘서트는 사인회, 여는 시, 행사 소개, 축사 및 내빈소개, 시인과의 토크, 시낭송, 밴드 색즉시공 공연, 시극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문의 (041)664-2001

박재완 기자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오직 호흡뿐 = 호흡의 물리가 터짐 = 제6차크라 열림 = 전기뱀장어의 몸 = 기공의 대가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예약) : ☎ 010-5282-7292 ■ 등록번호 : 138-50-00260
강남구 논현동 – 기공소리 통증치유명상센터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모든 통증 치유'

기공의 대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대한불교 영산법화종 **영산법화사**
2022년 하반기 종도모집

재단법인 영산법화회는 대한민국 제일 법화도량으로 법화조사님의 개창 66주년을 맞이하고 동시에 장흥도량에 큰 불사를 앞두고 있어 법화경에 인연 있는 종도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법화경 전문 도량으로 현재 공찰이 미국 LA 외 전국19개 도량이며, 기본자산이 일천억이 넘은 법화 제일 도량입니다. 스님 복지 우선으로 4대 보험, 각종 노후를 편안하게 지낼 수 있으며, 현재 재단 이사장이며 교단에 법주 이신 행학 큰스님을 위주로 법화홍통을 하고 있으며, 디지털법화도서관 및 법화노인요양원 등 사회에 이바지하는 복지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법화홍통(法華弘通)으로 꿈과 희망을 찾으시려는 재능 있는 많은 인재 분들의 지원 바랍니다. 꿈을 널리 펼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을 해드립니다.

나무묘법연화경

▣ **모집대상** : **출가승려, 행자, 법화경 연구자, 사찰등록 하실 분**
▣ **모집인원** : 00명
▣ **입종서류** : 사찰 및 승려등록 신청서 1부
주민등록증 사본, 반명함판사진 3매
법당내부 · 외부 사진(사찰등록하실 분), 타종단 법랍인증(승려증사본)
▣ **출가행자 모집** : 18세 이상
▣ **분 담 금** : 상담 후
▣ **영산법화사 각 도량 소개** : 영산법화사 홈피(http://ysbuphwasa.org) 참조
▣ **디지털법화도서관** : 법화경 관련 서적 50여종
▣ **문의전화** : **02)762-4922** (서울 종로구 동숭길116 영산법화사 본사)

※ 본 재단은 개인재산에 일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재단법인 영산법화회 이사장 행 학

세계불교학대회 개막…韓불교학 알리다

8월 15~19일 서울대 일원서 개최
첫 한국 대회… 국내외 석학 참여
코로나19 유행으로 5년만에 열려
韓불교 관련 연구 논문 대거 발표



제19차 세계불교학대회 조직위원회는 8월 15일 서울대 규장각에서 세계불교학회 제19차 학술대회 개막식을 개최했다.


김용태 동국대 교수가 세계불교학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한국불교미술 관련 발제를 하고 있는 샬롯 홀릭 런던대 교수.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학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세계불교학대회가 한국서 처음으로 열렸다.

제19차 세계불교학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조은수)는 8월 15일 서울대 규장각에서 세계불교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uddhist Studies, IABS) 제19차 학술대회 개막식을 개최했다.

세계불교학회는 1976년 창립됐으며 유럽 · 북미 · 아시아 지역의 주요 불교학자들을 망라하는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불교학술단체다. 1978년 뉴욕 컬럼비아대학에서 제1회 대회를 개최한 이래 유럽, 북미, 아시아를 순회하며 3년마다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대만, 태국에서 열렸으며, 한국 개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2017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제18차 대회에서 중국 명문 저장대(浙江大)와 열띤 경합 끝에 이뤄낸 성과라서 더욱 값지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장기 유행으로 2년간 두 차례 연기된 끝에 5년만에 열리게 됐다.

이날 학술대회 개막식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원행 대종사를 비롯해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과 국내외 불교학 석학 250여 명이 참석했다.

조은수 대회 조직위원장(서울대 철학과 교수)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 대회의 의미를 되짚었다. 조 조직위원장은 "한국 대회는 세계불교학대회 역사상 처음으로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회의'로 진행된다"면서 "이를 통해 5일간 33개의 패널과 21개 섹션에 걸쳐 약 200여 명의 직접 참가자와 100명의 온라인 참가자가 참가하게 된다. 5년 전에 기대한 500명에 미치지 못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놀라운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1700년 한국불교사에서 처음으로 세계불교학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대회를 음양으로 지원한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과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은 한국 대회를 통해 한국불교가 세계에 알려지길 기대했다.

수불 스님은 환영 만찬에서 환영사를 통해 "현재 한국의 K-팝, K-드라마와 영화 등의 K-컬쳐는 세계문화를 리드하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한류의 문화적 배경에는 한국 특유의 간화선 정신이 배어있다"면서 "간화선수행이 인류 정신계에서 미래의 대안이 되리라는 것이 한국불교의 원력"이라고 밝혔다.

본각 스님은 "전 세계의 석학이 한국에 모인 것은 한국불교에게 굉장히 기쁜 일"이라며 "내년에는 샤카디타 세계 대회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이 같은 국제 행사들은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5일 간의 대회 기간 동안에는 불교철학부터 문헌학, 미술사, 역사를 비롯해 수행 · 명상, 사회문제, 윤리학 등 폭넓은 주제의 발표들이 이뤄졌으며 최근 급성장하는 과학기술과 불교 연구를 접목한 연구 주제들도 다뤄졌다. 특히, 한국불교 관련 연구를 담아낸 패널과 섹션이 다수 포진돼 눈길을 끌었으며, 이를 듣기 위한 학인 스님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안준영 미시간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한 '한국불교 연구의 새로운 접근' 패널에서는 한국불교학 연구의 주요 동향부터 한국불교 1세대 페미니스트 일엽 스님의 연구성과, 조선의 숭유억불에 대한 새로운 해석 등을 담은 연구논문들이 발표됐다.

한국불교학 연구의 주요 동향을 소개한 조은수 서울대 교수는 국내외에서 새로운 자료의 발견으로 연구의 지평이 넓어졌으며, 자료 및 아카이브의 디지털화와 한국 정부의 지원 연구 프로젝트로 주목할 만한 결실을 맺었음을 강조했다.

김용태 동국대 교수는 '숭유억불 개념의 재고와 조선불교 전통의 새로운 인식' 발표를 통해 조선시대를 관통하는 숭유억불의 개념이 근대기 일본 학자들이 만들어낸 개념임을 살피고 조선불교가 쇠퇴했다는 선입견을 재고해야 함을 주장했다.

이 밖에도 김연미 이화여대 교수와 이승례 리움박물관 학예사가 조직한 '현대 한국불교의 물질문화' 패널과 이도흠 교수를 좌장으로 한 '아시아의 참여불교의 이론과 실천' 패널에서도 한국불교 전반을 조명하는 연구 논문들이 발표됐으며, 개별 섹션에서 한국불교 관련 논문 20여 편이 소개됐다.

한편, 학술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8월 20~22일 해인사와 통도사 등 전통산사를 순례하며 한국불교문화를 체험하기도 했다.

불교, '포스트 휴먼' 논한다

불교평론, 8월 26일 창간 기념 학술심포지엄

미래의 인간은 어떤 모습일까. 적지 않은 학자들은 인간과 기계 · 기술의 융합으로 경계가 사라질 것을 예상한다. 인간이면서 기계인 '포스트 휴먼'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변화를 불교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불교평론은 "창간 23주년을 맞아 '포스트휴먼 시대의 도래와 불교'를 주제로 기념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8월 18일 밝혔다.

2022년 만해축전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8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포스트 휴먼'의 개념부터 정치, 윤리, 생명 문제, 섹슈얼리티 등을 불교적으로 해석하는 논의들이 이뤄진다.

박수호 중앙승가대 교수는 '포스트 휴먼의 기본 이해와 주요 쟁점'을, 해인사 승가대학장 보일 스님은 '몸속으로 들어온 기계, 몸을 확장하는 기계'를, 이진후 포스텍대학 교수는 '코로나 시대의 생명권력과 생명정치'를, 이범수 동국대 교수는 '포스트 휴먼 시대의 생멸(生滅) 문제'를 각각 발표한다.

또한 김봉률 동국대 교수는 '포스트 휴먼과 불교 그리고 섹슈얼리티'를, 허남결 동국대 교수는 '포스트 휴먼 시대, 인간과 동물의 상생과 공존'을 해인사 국일암 명법 스님은 '포스트 휴먼 시대와 불교의 역할'을 발제한다.

불교평론은 "'포스트 휴먼'으로 정의되는 새로운 존재는 지금까지의 인간과 여성, 인간과 동물, 인간과 기계, 인간과 자연의 차이를 폐기하고 인간중심주의에 기초해 형성된 사회질서와 가치체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면서 "'포스트 휴먼'이라는 새로운 주체를 통한 사회적, 정치적, 윤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학술심포지움을 개최한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밀교학회 '불교학밀교학연구' 창간호 발간

회당학회서 명칭 변경 후 학회지 새로 창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목표
불교 · 밀교학 등 담아낼 것



진각종 회당학회에서 새롭게 출발한 '한국밀교학회'가 학회 학술지 〈불교학밀교학연구〉 창간호를 발간했다.

'한국밀교학회'는 회당학회를 전신으로 하는 밀교학술단체로 밀교종단인 진각종, 총지종, 위덕대 밀교문화연구원이 중심이 돼 운영되고 있다. 진각종 교육원장 효명 정사가 학회장을 맡고, 고문에는 원로스승 혜정 정사와 덕일 정사, 서윤길 前 동국대 교수를, 자문단에는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 총지종 통리원장 우인 정사, 장익 前 위덕대 총장 등을 선임했다.

〈불교학밀교학연구〉 창간호는 특집논문과 일반논문으로 구성됐다. 특집논문으로는 △〈공양차제법소〉의 현신성도 의궤화 고찰(정성준 위덕대 연구교수) △금강정경계 경전의 전래와 유통(김치온 서울불교대학원대학 연구교수) △〈대승장엄보왕경〉의 사상 연구-〈법화경〉〈화엄경〉, 인도 신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보리심론〉의 전래와 유통-저자 문제를 중심으로(박준석 위덕대 교수)가 수록됐다.

일반논문으로는 △분황 원효의 기신사상- 일심과 본각의 접점과 통로(고영섭 동국대 교수) △간화선의 중도에 대한 고찰-대혜종고 간화선을 중심으로(오용석 원광대 연구교수) △중국 근대 진화론적 시계에서 본 대승현생적 세계와 인간정토의 경계(김연재 공주대 교수) △의례율조 명칭 '소묘'와 일본불교의 특성(윤소희 불교음악원 학술위원장) △〈남양선생시집〉 간행과 〈고려대장경〉 조성사업(최연주 동의대 교수) △힌두탄트라리즘의 세계관 고찰- 시바파 불이론의 36원리를 중심으로(심준보 한국외대 HK연구교수)가 실렸다.

한국밀교학회장 효명 정사는 "밀교 관련 단체를 하나로 묶어 '한국밀교학회'로 명칭을 변경해 불교학, 밀교학, 회당학을 연구하고 실행하는 학회로 거듭나고자 한다"며 "향후 학회지 〈불교학밀교학연구〉를 한국연구재단에 등재함으로써 새로운 학문의 무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현대인의 지친 삶을 위한 쉼터

바쁜 일상, 속도에 쫓기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지친 삶의 연속이다. 그러다보니 자신이 주인으로 살지 못하고 종속적인 삶 속에서 혼란과 두려움 뿐이다.

어떻게, 무엇에 의지해야 하나?

마음치유 · 심신수련 · 쉼 터

빙의, 신병, 우울증, 불면증, 화병, 중독, 스트레스,
가정 · 사업문제, 심령치유, 소원성취기도, 장기요양

한반도 시작, 땅 끝 해남 견성원에서
새로운 삶의 기운을 받아 가세요!

수행도량 견성원 010-8208-7836

사주명리 / 점술 개인지도 · 애동제자 환영

금강경한문 + 법화경강좌

부산
일시 :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30분 ~ 4시 30분
장소 : 부산역 앞 광장호텔 뒤 참맛집 5층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200-13)

대구
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30분 ~ 4시 30분
장소 : 이시아 폴리스 태왕아너스타워 상가1층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241)

● 동참자격 : 불교정법 공부를 서원 하신 분
● 수강회비 : 무료 (단, 교재비 3만원 자부담)
● 교육기간 : 1년 2학기 (수시모집)
● 문의전화 : 010-4501-8711

嶺南僧伽大學 總長 崔 空 德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78

▶ 79회 예고
아쇼까왕 대군은 다야강 앞에서 배수진을 친 깔링가국 보병 주력부대 10만 명과 일전을 벌인다. 그러나 깔링가국 보병은 중과부적으로 참패한다. 아쇼까왕은 깔링가국 왕이자 총사령관을 처형하고 자신은 그 칼을 다야강에 버린다.



아쇼까왕, 다야강으로 진격하다

건기에 비가 내렸다. 건기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아주 드문 일이었다. 땅을 촉촉이 적실 정도는 아니었지만 빗발이 옷을 적셨다. 군사들은 두 손을 번쩍 들고 만세를 불렀다. 건기의 비가 행운의 신을 부른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마우리아국 대군은 기세 좋게 짬빠성을 출발했다. 마하다니강 너머는 깔링가국 영토였다. 보병은 타고 온 전선에 다시 승선했다. 강가강을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브라마뿌뜨라강을 만나는 지점에서 하선할 계획이었다. 그 지점부터 강가강은 동쪽으로 흘렀다.

두 강이 합류하는 그 지점이 마우리아국 대군의 2차 집결지였다. 짬빠성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한 코끼리부대와 기마부대도 2차 집결지로 향했다. 아쇼까왕은 짬빠성을 떠날 때부터는 보병과 함께 하지 않고 전투코끼리를 타고 지휘했다. 정찰대장이 아쇼까왕에게 달려와 보고했다.

"대왕님이시여, 2차 집결지는 안전합니다. 적들이 없습니다. 적들은 마하다니강 2요자나 밖 너머에 있습니다. 그런데 적들이 왜 마하다니강 멀리 있는지 이상합니다."

아쇼까왕이 말했다.

"우리는 적들이 어디에 있든 마하다니강부터 전투한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오. 방심을 경계해야 하오."

옆에 있던 선봉대장이 말했다.

"대왕님이시여, 마하다니강을 건너는 우리 군사를 협공하기 위한 적들의 위장전술이 아니겠습니까?"

아쇼까왕이 대답하지 않자 정찰대장이 말했다.

"협공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니오. 군사들이 은폐할 수 없는 벌판이오."

"경계병도 보이지 않소?"

"그렇소."

두 대장의 말을 듣고 있던 아쇼까왕이 말했다.

"적들은 다야강에서 배수진을 치고 있을 것이오. 다야강 앞에서 우리 대군이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오."

정찰대장이 다시 말했다.

"마하다니강은 깊고 다야강은 얕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합니다."

"적들이 배수진을 치고 싸우다가 불리해지면 바로 다울리 언덕으로 후퇴하여 유리한 지역을 선점하기 위해 그럴 것이오."

"그렇다면 적의 전투지휘소는 다울리 언덕에 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대장의 말이 맞소. 적들은 우리에게 밀리면 다울리 언덕을 성처럼 이용해서 싸울 것이오. 다울리 언덕 뒤쪽에는 최후 방어선을 치고 있는 적군이 또 숨어 있을 것이오."

정찰대장과 선봉대장은 아쇼까왕의 예상과 판단에 내심 놀랐다. 깔링가 군사가 어떤 작전을 펼지 정확하게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판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많은 전투경험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20대 전에 부왕시절 탁실라와 옛 아반티국 웃자인의 반란을 진압하면서 체득한 전술과 전략의 결과였다.

이윽고 마우리아국 대군은 2차 집결지에 모였다. 2차집결지에 오는 동안 안전사고나 도망병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짬빠성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한 군사들은 사기가 한껏 올라 있었다. 아쇼까왕은 코끼리부대장을 불러 지시했다.

"이동법당 수레를 싣고 온 뗏목을 전투코끼리 옆구리에 묶으시오."

"수십 척의 뗏목을 다 그렇게 합니까?"

"그렇소."

호위대장에게는 강이 많은 깔링가국에서 군사들의 도강용으로 뗏목을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코끼리부대장에게는 아쇼까왕의 전술이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았다.

코끼리부대장은 아쇼까왕에게 지시를 받은 대로 즉시 뗏목의 통나무들을 힘센 전투코끼리들 옆구리에 묶었다. 전투코끼리가 움직이는 데 속도가 조금 느려졌을 뿐 아무런 장애가 없었다. 전투코끼리를 탄 아쇼까왕이 그제야 코끼리부대장에게 말했다.

"뗏목의 통나무들로 다리를 만들어 강을 건널 것이오."

"대왕님의 전술은 위대하십니다. 코끼리들이 어떻게 강을 건너갈 것인지 저는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아쇼까왕은 대장들에게 2차집결지부터는 공격대오를 유지하도록 명을 내렸다. 기마부대, 코끼리부대, 보병, 이동법당수레 순으로 움직였다. 대오는 즉각 전투를 치를 수 있는 독수리 날개 같은 횡대를 유지했다.

마침내 마우리아국 대군은 마하다니강 강변에 도착했다. 정찰대장의 보고대로 강변에는 적들의 경계병이 단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다시 한 번 더 정찰을 시켰지만 적의 그림자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아쇼까왕이 대장들을 불러놓고 말했다.

"이것도 적의 유인작전이오. 그러나 여기서 지체하지 마시오. 보병은 즉시 마하다니강에 뗏목으로 다리를 만드시오."

"대왕님이시여, 적의 유인작전이 오히려 우리 군사를 이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소. 나라면 여기서 일전을 벌이겠소. 적은 우리에게 다리를 놓을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있소."

"짬빠성을 떠날 때 비가 왔는데 행운의 신이 우리 군사를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동법당이 있소. 고따마 붓다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오."

수십 만 명의 보병이 나서서 다리를 가설했다. 아쇼까왕과 대장들은 이동법당 앞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승리를 기원했다. 사문들이 불경을 합송했다. 이동법당 수레에는 전투코끼리 두 마리가 묶여 있었다. 이동법당 앞에서 기도를 한 아쇼까왕은 일어나 전투코끼리에 올라탄 뒤 호위대장을 앞세우고 순시를 했다.

보병 수만 명이 움직이기 때문에 다리 가설은 신속했다. 전투코끼리 옆구리에 묶어서 가져온 통나무들을 밧줄로 고정한 뒤 마하다니강에 놓기 시작했다. 고정시킨 뗏목들이 강 이쪽저쪽을 채우자 그대로 다리가 되었다. 그 사이 전투코끼리들은 강물에 코를 박고 물을 실컷 마셨고, 군마들은 강변의 부드러운 풀을 뜯으며 배를 불리는 데 정신이 없었다.



이제는 마우리아국 대군이 강을 건너기만 하면 바로 전투에 돌입하는 상황이었다. 마하다니강 유역은 폭풍 전야 같은 분위기였다. 먹구름 같은 전운이 짙게 감돌았다.

한편, 깔링가국 주력부대는 아쇼까왕의 예견대로 다야강 앞에서 배수진을 치고 있었다. 다야강 뒤쪽 다울리 언덕에도 석성을 쌓고 깔링가국 군사와 백성들이 수성전으로 방어할 태세였고, 다울리 언덕 뒤 평원에서는 깔링가국 기마부대들이 타격전을 펼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다리 가설이 끝나자마자 아쇼까왕이 대장들에게 명령했다.

"강을 건넌 뒤 모든 부대는 전투횡대를 갖추고 공격하라!"

"예, 대왕님!"

"공격 순서는 기마부대, 코끼리부대, 보병 순이다. 나 아쇼까는 맨 앞에서 지휘할 것이다."

전투코끼리를 탄 아쇼까왕이 먼저 다리를 건넜다. 그런데 전투코끼리가 앞발을 들고 허공을 솟구쳤다가 통나무를 밟았다. 전투코끼리 앞발의 힘이 얼마나 센지 통나무 하나가 우지직 하며 부러졌다. 순간적으로 전투코끼리 앞발이 하나 강물에 빠졌다. 아쇼까왕은 앞으로 거꾸러질 뻔했지만 다행히 무사했다. 다만 옆구리에 찬 아쇼까왕의 칼이 강물에 빠져버렸다. 호위대장과 선봉대장이 쫓아왔다. 몸의 중심을 잡은 아쇼까왕이 말했다.

"애지중지하던 칼을 잃어버렸소."

"대왕님이시여, 군사들을 강물 속으로 들여보내면 바로 칼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시간이 없소. 나에게는 이 장검이 있으니 상관없는 일이오."

선봉대장이 말했다.

"대왕님이시여, 그러긴 하오나 단검을 빠뜨린 것은 불길한 일입니다. 그러니 단검을 찾으신 뒤 적을 공격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깊은 강물 속에서 칼을 찾는다는 보장은 없소. 이상한 소문이 퍼져 군사들의 사기가 저하될지 모르오. 그러니 나는 이 일과 상관없이 공격을 개시하겠소. 북을 두드리게 하시오."

"예, 대왕님."

아쇼까왕이 먼저 마하다니강을 건너갔다. 북소리에 따라 기마부대가 건너왔다. 그리고 코끼리부대, 보병이 무사히 강을 건넜다. 아쇼까왕은 기마부대 한 중앙에서 긴 칼을 휘두르며 지휘했다. 대군을 따라오지 않는 것은 이동법당 수레뿐이었다. 사문들은 전투에 참가하지 않고 멀리서 무운을 비는 기도에 들어갔다. 물론 이동법당 수레 주변에도 수십 명의 보병 군사가 배치되어 적의 기습공격에 대비했다.

기마부대 10만 명은 4열 전투횡대로 뒤에 오는 보병을 감안해서 천천히 진격했다. 긴 기마부대원의 끝은 구릉에 맞닿았다. 코끼리부대 9천 명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동시에 움직이자 평원의 푸나무들이 일시에 흔들렸다. 보병들은 메뚜기 떼의 이동처럼 평원을 새까맣게 뒤덮었다. 탐망을 나갔던 정찰대장이 돌아와 아쇼까왕에게 보고했다.

"대왕님 말씀대로 적들은 다야강 앞에서 배수진을 치고 있습니다."

"규모는 어떠하오?"

"보병 주력부대만 10만 명은 될 것 같습니다."

"다울리 언덕의 군사는 어떻소?"

"주력부대만 궤멸시킨다면 다울리 공격은 수월할 것입니다. 지역주민인 토병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다울리 언덕 뒤에 있는 기마부대의 저항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 대군을 당해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쇼까왕은 전령을 시켜 호위대장과 선봉대장, 코끼리부대장을 불렀다.

"대장들을 이곳으로 오게 하라."

선봉대장은 기마부대를, 호위대장은 보병을 통솔하고 있었다. 잠시 후 대장들이 바로 달려왔다. 선봉대장이 말했다.

"대왕님이시여, 부르셨습니까?"

"정찰대장의 보고에 의하면 적 10만 보병이 다야강 앞에서 배수진을 치고 있는 것이 확실하오. 그러니 우리 기병 5만 명을 먼저 보내 공격하시오."

"코끼리부대는 다야강을 바로 건너가 다울리 언덕 뒤에 있는 적의 기마부대를 궤멸시켜버리시오. 호위대장은 보병으로 적의 산졸(散卒)을 소탕하고 난 뒤 다울리 언덕을 점령하시오."

명령을 받은 대장들이 원위치로 돌아갔다. 기마부대 1진 5만 명이 일제히 다야강을 향해 비호처럼 달려갔다. 기마부대장이 기마군사들에게 명했다.

"너희 한 명의 칼에 적 열 명의 피를 묻혀야 한다. 알겠느냐!"

기마부대 2진 5만 명은 보병 뒤로 돌아가 예비 기마부대로서 아쇼까왕의 지시를 기다렸다. 코끼리부대 9천 명도 바윗덩어리가 굴러가듯 무섭게 돌진했다. 코끼리 발에 잡목이 부러지고 흙먼지가 자욱하게 일었다. 마치 혹서기에 부는 흑풍 같았다. 코끼리부대장도 대원들에게 소리쳤다.

"쓰러진 적들을 모두 짓밟고 돌진하라!"

장창을 든 보병은 흙먼지 속에서 함성을 지르며 달려 나갔다. 호위대장은 군마를 타고 보병 속을 헤집고 다니며 소리쳤다.

"적들에게 용서는 없다. 보이는 대로 다 죽여라!"

사실, 깔링가국 주력부대인 보병 10만 명은 아쇼까왕의 1백여 만 명의 대군 앞에서는 흑풍에 나부끼는 나뭇잎 같은 전력일 수밖에 없었다. 아쇼까왕이 유인작전이나 포위전술, 지연전술을 쓰지 않고 속전속결의 전술로 정면 돌파작전을 명령한 것은 바로 전력의 절대적인 우위를 믿기 때문이었다.〈계속〉



김진무의 중국불교의 고승들 ⑯ 남산율종(南山律宗)의 창립자 도선(道宣)

▶ 한줄 요약
도선 율사는 율학을 정립하여 남산율종을 창립했다는 점에 있어서 중국불교에 커다란 업적을 세웠다.



율학 정립, 남산율종 창립…당대 최고 학승

〈唐代〉

당(唐) 초기의 격렬했던 불도지쟁(佛道之爭)의 상황에서 중국불교의 정체성과 교단의 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 고승이 바로 도선(道宣, 596~667) 율사(律師)이다. 도선은 〈사분율(四分律)〉과 관련된 일련의 저술을 통하여 계단(戒壇)을 건립하였고, 〈석가씨보(釋迦氏譜)〉 등의 찬술하여 불조(佛祖)의 인연을 밝혔으며, 〈대당내전록(大唐內典錄)〉 등을 찬술하여 중국에서 번역되고 찬술된 목록을 정리했고, 〈광홍명집(廣弘明集)〉 등을 찬술하여 도교의 비판에 대응하였고, 〈속고승전(續高僧傳)〉 등을 찬술하여 고승들의 행적을 정리하였다. 도선은 모두 35부 188권에 이르는 방대한 저술을 남기고 있어 가히 당대 최고의 학승이며 율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도선의 생애와 그의 저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도선의 전기는 〈송고승전〉과 〈석문정통(釋門正統)〉, 〈신수과분육학승전(新脩科分六學僧傳)〉, 〈고승적요(高僧摘要)〉 등에 실려 있으며, 〈불조통기(佛祖統紀)〉와 같은 사서에 그 행적이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도선은 오흥(吳興: 浙江省 湖州市), 혹은 일설에는 단도(丹徒: 江蘇省 鎭江市) 출신이라고 하며, 속성은 전(錢)씨이다. 〈송고승전〉에는 모친이 임신하자 꿈에 범승(梵僧)이 나타나 "그대가 임신한 애는 바로 양조(梁朝)의 승우(僧祐) 율사이다"라고 알려주었다고 한다. 실제로 승우는 〈출삼장기집(出三藏記集)〉을 찬술하여 불전의 역경과 찬술 목록을 정리하였는데, 도선도 그와 유사한 성격의 〈대당내전록〉을 찬술하였고, 도선은 승우가 찬술한 〈홍명집〉을 보완하고 확대하여 〈광홍명집〉을 찬술하는 등 두 고승의 행업(行業)은 유사한 바가 있다.

도선의 부친은 남조의 진(陳)에서 이부상서(吏部尙書)를 역임하였고, 그에 따라 도선은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아 9세에 능히 부(賦)를 찬술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15세에 갑자기 집을 떠나 장안(長安)의 일엄사(日嚴寺)에 들어가 혜군(慧頵)에게 법을 배우다가 다음 해 출가하였고, 20세에 대선정사(大禪定寺) 지수(智首) 율사로부터 구족계를 받았다. 21세에 지수로부터 본격적으로 율학(律學)을 수업하였는데, 당시 지수는 율학으로 최고의 명성을 얻고 있었으며, 〈사분율소(四分律疏)〉 20권 등을 찬술하여 '사분율종'의 제8조라고 칭한다.

도선은 이 시기에 〈사분율〉에 대한 토대를 확립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도선은 혜군과 지수로부터 율학을 배우는 한편, 스스로 정해진 스승이 없이 천하를 유람하며 다양한 경전과 교의를 수학하였다고 논술하고 있다. 특히 무덕(武德) 7년(624) 은사인 혜군과 함께 주석하던 일엄사가 '불도지쟁'으로 인하여 고조(高祖)의 명령으로 폐쇄되자 숭의사(崇義寺)로 옮겼다가 그 해에 다시 종남산(終南山)으로 가서 백천사(白泉寺)에 머물게 되었다. 무덕 9년(629) 31세에 도선은 이곳에서 그동안 연구했던 율학을 정리하여 〈사분율산번보궐행사초(四分律刪繁補闕行事鈔)〉 3권(현 12권)을 찬술하였는데, 이 책에서 최초로 독자적인 율학의 견해를 밝혔다고 한다. 다음 해 다시 〈사분율습비니의초(四分律拾毘尼義鈔)〉 3권(현 6권)을 찬술하였다.

이후 도선은 몇 년에 걸쳐 전국을 유행하며 뛰어난 율사들을 참알하여 자신의 의심을 해결하였는데, 정관(貞觀) 9년(635) 40세에 심부(沁部: 山西省 沁縣)의 운실산(雲室山)에 들어가 〈사분율산보수기갈마(四分律刪補隨機羯磨)〉 1권과 그에 대한 〈소(疏)〉 2권을 찬술하였고, 그 후에 다시 〈사분율비구함주계본(四分律比丘含注戒本)〉 1권과 그에 대한 〈소〉 3권을 찬술하였다. 정관 11년(637)에 습주(隰州: 山西省 臨汾市)의 익사곡(益詞谷)에서 〈양처경중의(量處輕重儀)〉 2권, 〈니주계본(尼注戒本)〉 1권을 찬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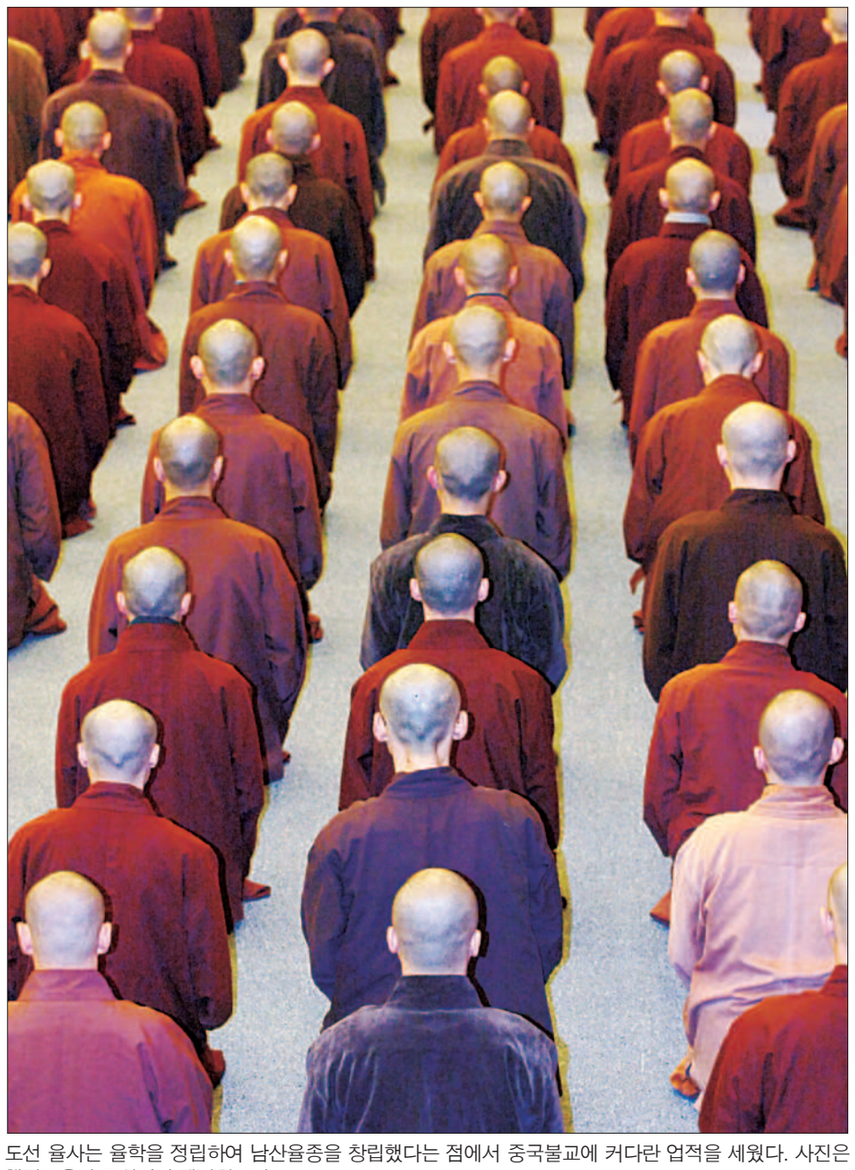
또한 정관 16년(642)에 도선은 종남산 풍덕사(豊德寺)에 들어가 19년(645)에 이르기까지 〈비구니초(比丘尼鈔)〉 3권(현 6권)과 〈속고승전〉 30권을 찬술하였다. 이 해에 서역으로 구법하였던 현장(玄奘, 602~664)이 많은 경전을 지니고 귀국하여 홍법사(弘法寺)에 역장(譯場)을 개설하고 수많은 고승을 초빙하였는데, 도선도 초청받아 참여하였다. 그러나 다음 해(646)에 다시 종남산

〈사분율〉 등 188권의 방대한저술
전국 유행하며 뛰어난 율사 참알
태종 칙명으로 현장 역경에 참여
종남산에 계단 20여 명 구족계도
중국 문화 연구자도 저술 고평가

으로 돌아가 풍덕사에서 〈사분율산보수기갈마〉 1권을 2권으로, 그에 대한 〈소〉 2권을 4권으로 늘려서 찬술하였다.

그 후 도선은 종남산에 머물며 현경(顯慶) 2년(656)에 이르기까지 계속 율학과 관련된 다양한 저술을 찬술하였다. 현경 3년(657), 장안(長安)에 서명사(西明寺)가 신축되자 현장이 태종에게 추천하여 상좌(上座)로 주석하라는 칙명에 따라 다시 입경하였고, 다시 현장의 역경에 참여하였다. 도선은 서명사에 머물면서 또한 〈대당내전록〉 10권, 〈광홍명집〉 30권, 〈석가씨보〉 1권 등을 찬술하였다.

그러나 용삭(龍朔) 5년(665)에 현장이 입적하자 다시 종남산의 정업사(淨業寺)로 옮겼다. 이로부터 도선은 계단(戒壇)의 건립에 집중하였으며, 드디어 건봉(乾峯) 2년(667) 2월, 종남산에 계단을 건립하였고, 의규(儀規)에 따라 20여 명이 구족계를 받았다. 도선은 이후에 〈관중창립계단도경(關中創立戒壇圖經)〉 1권과 〈율상감통전(律相感通傳)〉 1권을 찬술하였다. 이렇게 평생 염원하던 계단을 건립한 이후 10월 30일, 정업사에서 세수 72세, 법랍 52세로 입적하였다.



도선 율사는 율학을 정립하여 남산율종을 창립했다는 점에서 중국불교에 커다란 업적을 세웠다. 사진은 행자교육 수료식과 수계법회 모습.

도선의 제자는 1000여 명이 넘는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 특출한 이는 대자(大慈), 문강(文綱), 명각(名恪) 등이 유명하며, 특히 문강과 그의 제자 도안(道岸)은 도선의 유교(遺敎)를 천양(闡揚)하여 남산율종이 더욱 발전하게 하였다. 도선의 입적 후 의종(毅宗) 함통(咸通) 10년(869)에 '징조(澄照)'라는 시호와 '정광(淨光)'이라는 탑호를 내렸으며, 휘종(徽宗) 숭녕(崇寧) 2년(1103)에 '법혜대사(法慧大師)'라는 시호를 더하였다.

도선 율사는 무엇보다도 율학을 정립하여 남산율종을 창립했다는 점에 있어서 중국불교에 커다란 업적을 세웠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도선이 건립한 '계단'은 중국에서도 선범(先範)이 되었으며, 이후 한국과 일본의 '계단'의 건립에도 심원한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도선의 전기에 평생토록 "세 가지 베옷만을 입었으며, 콩잎으로 한 끼만을 먹었고, 유행할 때는 오직 주장자에 의지하였고, 앉아서 침상에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기사로부터 철저한 수행자의 모습을 보였다고 하겠다. 그에 따라 '남산율사(南山律師)'라고도 칭하며, 그의 명성이 서역에도 널리 알려졌다고 한다.

도선의 업적은 무엇보다도 방대한 저술로부터 찾을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선은 모두 35부 188권에 이른다고 하며, 〈송고승전〉에는 "220권"이라고도 한다. 그 가운데 〈사분율〉을 중심으로 하는 율종의 저술 이외에 중국불교에 대한 영향을 논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우선, 〈광홍명집〉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대(梁代) 승우가 찬술한 〈홍명집〉을 더욱 확대하여 '광'을 붙이고 있다. 이 책에서는 〈홍명집〉을 근간으로 하여 이후에 활동한 이들의 논설 등의 자료를 집성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호법(護法)'을 위한 저술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당(唐) 초기에 발생한 '불도지쟁'은 도선이 이 책을 집성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저술로는 〈집고금불도논형(集古今佛道論衡)〉인데, 여기에서는 제목과 같이 역대에 도교와 불교가 논쟁한 자료를 집성하고 있다. 이 저술 역시 '불도지쟁'과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주목할 사실은 도선이 활동한 시기인 고종(高宗)과 관련된 사실까지 수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에 따라 〈광홍명집〉과 〈집고금불도논형〉은 불교가 중국에 전래한 이후 발생한 유도 양가와의 교섭 관계, 국가의 불교에 대한 정책 등을 연구하는 데 필독서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석가씨보〉와 〈석가방지(釋迦方志)〉, 〈불화동점도찬(佛化東漸圖贊)〉, 〈성적현재도찬(聖迹見在圖贊)〉과 같은 불조(佛祖)의 전기와 관련된 저술과 〈대당내전록〉과 같은 목록집이다. 도선이 이러한 저술을 남긴 것은 바로 불법승(佛法僧)의 삼보(三寶)에 대한 온전한 정립을 의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삼보'는 바로 불교의 근간이고, 이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없다면 신행이나 구도 역시 그 틀을 잃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당내전록〉에서는 '법보(法寶)'인 경율론의 역경(譯經)과 역경가들의 전기 등을 정리하고 있다.

셋째로 〈속고승전〉의 저술이다. 앞에서 '불보(佛寶)'와 '법보'를 정립했다면, 〈속고승전〉에서는 바로 '승보(僧寶)'인 고승들의 행적과 사상을 논하고 있다. 여기에 '속'을 붙인 까닭은 남조 양대 혜교(慧皎)의 〈고승전〉을 계승한다는 의도이다. 그렇지만 〈고승전〉은 주로 남조의 고승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결여된 북조의 고승을 추가한다는 의미도 들어 있다고 하겠다.

넷째로 〈집신주삼보감통록(集神州三寶感通錄)〉, 〈도선율사감통록(道宣律師感通錄)〉, 〈율상감통록(律相感通錄)〉 등과 같은 신앙과 교화의 종류이다. 앞에서 불법승의 삼보에 대한 저술이 존재한다면, 그 삼보에 대한 신앙과 그 영험, 교화 등을 논해야 마땅할 것이고, 실제로 이러한 저술들은 모두 도선의 만년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도선의 저술은 가장 근본적인 율종과 관련된 부류, 불교가 중국에 전래된 이후에 발생한 유도 양가와의 관계 및 국가정책 등을 논한 부류, 불보와 법보를 논한 부류, 신앙과 교화를 논한 부류 등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사실상 이 네 부류 가운데 하나에 정통하기도 어려운데, 도선 율사는 이를 모두 완벽하게 찬술하고 있다. 특히 도선은 율사답게 자료를 철저하게 검증한 후에 논술하였음은 학계에서 공인된 사실이다. 그러므로 중국불교 연구자뿐만 아니라 중국문화의 연구자들도 도선의 저술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도선 율사에 대한 '당대(唐代) 최고의 학승'이라는 평가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前 동국대 불교문화원 부교수〉

www.boryeon.com

도량장엄 전문기업
보련기획

도량장엄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등자동승강장치
원불전, 인등, 위패
각종 시설물 제작·시공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문현로 189번길 27

도 량 장 엄 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 등 자 동 승 강 장 치





원 불 전





인 등



위 패



김선희 교수의 변상도 바로 읽기 ⑯ 관무량수경변상도

▶ 한줄 요약
정토신앙 담은 '정토변상도'는 당나라 시기에 최대 전성기를 맞는다. 규수박물관에 소장된 〈관무량수경변상도〉는 당나라에서 일본으로 건너온 작품으로 그 시기를 대변하는 최대 역작이다.



中문화 황금기 담은 불화, 日에 전해지다

이전 연재에서 밝혔듯이 과거 한 · 중 · 일 3국의 불교는 그 어느 종파보다도 아미타사상에 입각한 정토신앙이 널리 퍼지고 흥성하게 되면서 이에 따라 〈정토변상도〉가 많이 그려졌다. 중국 미술사상 수 · 당 이후 대략 7세기 전후해 미적 감각에서부터 예술 양식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북위시대 전기의 암울 침잠했던 흐름이 홀연히 밝고 선명한 모습으로 일신한 것이다. 우리가 앞에서 붓다 '본생도'에서 살펴봤듯이 숭고, 비원(悲願)의 아름다움이 북위시대 흐름이었다면 당대에 이르러 현실의 즐거움으로 바뀌면서 우리와 친숙한 보살, 비천, 금벽(金壁) 휘황찬란한 전각, 누각으로 나타났다. 중국문화의 황금기인 그야말로 찬란한 대당세계(大唐世界)가 펼쳐진 것이다.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변상도' 역시 이 시기에 최고 절정을 이뤘다. 이 시기 중국 장안에서 서쪽으로는 지중해 연안까지 동쪽으로는 신라 경주, 바다 건너 일본까지 '비단길(Silk Road)'이 이어져 교류가 빈번했다.

이렇게 교류가 빈번했던 시기의 많은 문물이 오갔을 터인데, 우리나라에는 이 시기 미술품으로 전해지는 것이 한 점도 없어 아쉽다. 그러나 일본에는 언제 전해졌는지는 불명확하지만 찬란한 당(唐) 문화를 대변하는 〈관무량수경변상도〉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는 규수국립박물관 소장 〈관무량수경변상도〉로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을 위해 손수 제작했다고 전해진다. 이 〈관경변상도〉는 당나라에서 일본으로 전해져 일본 정토종의 당마사(當麻寺)에 모셔져 '당마만다라(當摩曼荼羅)'라고 불린다. 정토교의 기본 경전은 〈아미타경(阿彌陀經)〉 〈무량수경(無量壽經)〉 〈관무량수경(觀無量壽經)〉 등 세 가지 경전으로 이뤄져 있어 '정토삼부경(淨土三部經)'으로 불린다. '정토삼부경'은 말 그대로 극락세계의 부처님이신 아미타불을 믿고 모든 선근과 공덕을 닦아서 모든 사람들이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바라고, 또 그러한 사실을 내용으로 펼치고 있다.

정토계 경전의 내용을 회화적으로 표현한 '정토삼부경' 만다라 중 일본 규수국립박물관 소장 〈당마만다라〉는 가장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사상적으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 '변상도'는 아미타여래가 주재하는 서방극락정토의 모습을 중심으로 〈관무량수불경〉의 요의(要義)와 당나라 선도(善導) 대사의 〈관무량수불경소(약칭 관경사첩소)〉의 내용을 아주 섬세한 수법으로 절묘하게 표현해내고 있다. 이 그림은 화려 · 장엄하며 정교하고 완벽한 구성미를 갖추고 있다. 또한 뛰어난 화법으로 표현하고 있어 가히 불교회화사에서 정토수행을 이끄는 최고 걸작이라 할 수 있다. 그림 속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부처님께서 왕사성 기사굴산(耆闍崛山, 영취 · 취두 · 취봉)에 있을 때, 마가다국 왕사성(王舍城)에는 아사세(阿闍世)태자가 부처님을 시기하고 모함하던 나쁜 벗 데바닷타(提婆達多)의 꾀임에 빠져 부왕 빔비사라왕(頻婆娑羅王, 재위 기원전 580~550)을 감옥에 가두었다. 이때 왕비인 위제희 부인(韋提希 夫人)은 왕을 도울 방법을 강구했다. 그러던 중 궁중 깊이 갇히게 되자 슬픔과 시름으로 몸이 마르고 마음 또한 산란하기 짝이 없었다. 위제희 부인은 멀리 기사굴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지난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아난존자를 보내어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깊은 시름에 잠겨있으나 거룩하신 부처님을 뵈올 길마저 없습니다. 원하옵건대 목련존자와 아난존자를 보내주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바람을 들으신 부처님께서는 곧 목건련과 아난에게 허공으로 날아가도록 하시고는 부처님도 기사굴산에서 홀연히 자취를 감추고 바로 위제희 부인이 있는 왕궁으로 가셨다. 이때 위제희 부인은 부처님을 뵙자 목에 걸고 있던 구슬 목걸이를 끊어버리고 엎드려 울면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이시여 원하옵나니 저를 위하여 괴로움도 번뇌도 없는 곳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마땅히 그 곳에 태어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부처님께서는 위제희 부인을 포함한 모든 중생을 위해서 서방아미타정토를 볼 수 있고 거기에 태어날 수 있도록 ①일상(日想)을 시작으로 ②물을 생각하는 관(水想), ③땅을 생각하는 관(地想) ④보배나무를 생각하는 관(地想), ⑤공독수를 생각하는 관(八功德水想), ⑥보배누각을 생각하는 관(總觀想), ⑦연화대를 생각하는 관(華座想), ⑧형상을 생각하는 관(像想), ⑨부처님 몸을 생각하는 관(徧觀一切色身想), ⑩관음보살을 생각하는 관(觀觀世音眞實色身想), ⑪대세지보살을 생각하는 관(觀大勢至色身想), ⑫두루 생각하는 관(普觀想), ⑬섞여 생각하는 관(雜想), ⑭신자의 품성에 따라 구품왕생을 설하는 3관 상배관(상품상생 · 상품중생 · 상품하생), ⑮중배관(중품상생 · 중품중생 · 중품하생), ⑯하배관(하품상생 · 하품중생 · 하품하생)의 16관을 설하셨다.

화면의 중앙 즉, 내진(內陣)은 가장 중심되는 내용으로 좌우 및 아래쪽 3편으로 구성돼 있다. 중앙에는 아미타불과 관음 · 세지보살의 삼존을 중심으로 제성중 34존(尊)과 연지(九品연못), 누각 등 극락정토의 모습을 웅장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 그림의 바깥쪽(外陣)의 좌측 가장자리는 '관경(觀經)' 서문에 나오는 아사세태자의 이야기를, 오른쪽 가장자리는 본론의 16관상 중 제1관상부터 제13 관상까지, 아래 부분은 제14 관상부터 제16 관상까지 서술하고 있는 삼배구품(三輩九品) 아미타불(阿彌陀佛) 내영(來迎)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일본 규수국립박물관 소장 〈관무량수경변상도〉의 모습. 14세기 가마쿠라 시대에 조성됐다.

"규수박물관 소장 '관무량수경변상도' 唐 문화 대변… 교류 통해 日전해져 화려 · 장엄한 도상, 구성 완벽 '눈길' 정토 수행 이끄는 불교회화사 '걸작'"

이 그림은 가마쿠라 시대의 뛰어난 모사 작품 중 하나이며, 예를 들어 여래와 보살의 얼굴과 신체의 미세한 부분까지 정교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 밖에 제존(諸尊)과 연지, 심지어 하늘까지도 금니(金泥)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군청과 청록색을 중심으로 밝고 투명한 색채를 적용하여 눈길을 끈다. 이 그림은 시가(滋賀)현 오쓰(大津)시의 원만원(圓滿院)의 전래품으로 구 표구(裝裱)는 영향(永享) 7년(1435)의 수리했으며, 화기에는 묵서가 남아있다.



〈관무량수경변상도〉의 아미타삼존불 부분도의 모습.

이 그림은 '정토삼부경' 중 〈관무량수불경〉(약칭 觀經)의 내용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으며, 일본 서산(西山) 정토종 개산조사 증공상인(證空上人, 1177~1247)의 해석에 따라 중국 정토종 제2조 선도(善導) 대사의 〈사첩소〉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며, 불보살 권화시현(權化示現)의 작품으로 꼽힌다. 따라서 이 〈관경변상도〉는 일본의 정토사상 발전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그림에 대한 내력으로 두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일본의 고대 전설이다. 일본 나라시대(710-793) 우대신(右大臣) 후지와라 도요나리(藤原豊成)의 딸 히메지(姬氏)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매우 그리워하며 야마토(大和, 지금의 나라)의 당마사로 출가 비구니가 되었으며, 법명은 법여(法如)라고 전해진다. 서방정토왕생에 대한염원이 간절하여 7일 동안의 발심으로 서방극락세계에 이르기를 염원했다.

여섯째 날을 한 비구니가 나타나 소원을 이루게 해주겠으니 말 100마리에 실을 수 있는 분량의 연꽃 줄기를 모으라고 지시했다. 그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3일 동안 연꽃 줄기를 모았다. 이때 그 비구니가 다시 나타났고, 법여는 그 비구니의 지시에 따라 절에서 우물을 파서 채취한 연줄기를 씻어 실로 뽑아냈다. 연실을 햇볕에 말렸는데 자연스럽게 오색이 찬란했다. 한편 이와 동시에 또 다른 여자가 나타났다, 두 사람은 큰 방에서 베(삼베)짜기을 시작하여 단지 하룻밤 사이에 1장(丈) 5척(尺)의 만다라를 그릴 수 있는 비단을 짜냈다. 이것은 생생하고 명확한 〈관무량수경〉을 묘사한 〈당마만다라〉의 내력이다.

법여 비구니는 두 여성의 신원을 알게 되어 기뻐했다. 첫 번째 비구니는 법여에게 자신이 아미타불의 화신이고, 두 번째 여인은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라고 말했다. 그 이후로 법여는 이 만다라를 일심으로 관상(觀想)하였으며 소원과 같이 775년에 서방정토에 왕생했다.

또 다른 내력은 현대 학자들의 고증에 따른 것으로 이 〈관경변상도〉의 화면의 누각, 인물의 이미지는 완전히 중국 당나라 양식이며, 구성 형태는 돈황 벽화의 〈관경변상도〉와 동일하다 그리고 일본은 8세기에 그렇게 뛰어난 회화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중국 당나라에서 일본으로 유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견해이다. 또한 그 내용은 선도 대사의 〈관경사첩소〉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며, 선도 대사 자신은 불화에 심취하여 직접 〈정토변상도〉를 많이 그렸는데, 이 그림은 선도 대사와 깊은 연관 관계가 있어 보이며, 당시 선도 대사가 그해에 그린 그림인지도 모른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 〈관무량수경변상도〉가 전설처럼 아미타불과 관음보살을 직접 제작하든, 아미타불의 화신인 선도 대사 그렸든, 이 그림의 내력과 신기한 권위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또한 이 〈관무량수경변상도〉의 화면을 보면, 화려 · 장엄하고 정치(精緻)한 묘사와 완벽한 구성 그리고 우수한 기교는 불교 예술의 극치를 이르고 있다. 아마도 후세에 나타나는 〈정토변상도〉와는 비교되는 미술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작품이라 평가된다.

〈동국대 연구교수(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 당뇨, 고혈압에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디스크,협착증 및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 민중의술의 특징 |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 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상담환영합니다!
빙의제거와 신기운 제거는 최고 전문가(빙의 전문의)를 만나야 문제 해결이 됩니다!!

[상담대상]
◉ 빙의와 신기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빙의 기운에는 사람, 동물, 식물, 기타 여러가지 기운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몸속에 들어오면 여러가지 신체적 장애, 정신적 이상증세를 일으킵니다.
◉ 특히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이 빙의와 신기운에 노출되면 인생 전체가 망가집니다! 반드시 제거 및 벗어나게 해주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영리하고 똑똑했던 자녀가 어느 시점 이후 갑자기 학습능력 저하, 우울증 걸리고 방콕하고 이상행동 하는 경우)
◉ 연예인, 연극인, 영화배우, 탈렌트, 가수등 마음이 여리고 순수하고 감정, 감성 중심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빙의와 신기운에 잘 접속되고 벗어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인생 전체가 불행해집니다! (예 : 만성우울증, 가위눌림, 불면증, 공황장애, 공포증, 불안장애등에는 반드시 빙의가 접속되어 있습니다!)
◉ 다 그런건 아니지만 직업상 시신을 자주 접하는 사건 현장 담당 경찰업무 하신분, 119대원, 소방업무 종사자, 장례식장 종사자 등 심약하신 분들은 빙의에 접속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 가위눌림, 악몽자주꿈, 불면증, 망자가 꿈에 자주 나타나는 경우, 외상후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 몸이 무겁고, 만성 피로감등)
◉ 이상행동, 어느 시점 이후 부터 과거와 매우 다른 행동, 습관이 있는 경우, 병원에 오래 다녀도 낫지 않은 경우등
◉ 희귀병 (병원에서 낫지 않은), 조현병, 분노조절장애는 100% 빙의로 인한 것입니다! (감정기복 매우 심함, 묻지마 폭행, 과격한 행동 등)
◉ 직업상 묘이장, 파묘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 건강이상, 정신이상 증세, 가정불화(의처증, 의부증 심함), 잦은 우환, 이상행동 하는 경우
◉ 여러번 천도재, 굿해도 효과 못보신 분

◉ 빙의전문의로서 정직과 신뢰와 꾸준한 사후 관리로 빙의 환자와 함께 문제 해결로 집중해 갑니다!
◉ 원격치유가능 (환자직접 오지않아도 됨) ⇨ 최고 전문가만 가능
◉ 문제해결, 증상해결 중심으로 상담 ◉ 전생빙의치유, 마스터과정수료
◉ 20여년 빙의, 신기운 천도 경력 노하우 갖춤
◉ 증세가 오래 되었거나 심한 경우는 일정기간 간격을 두고 천도정성과 사후 관리를 꾸준히 받으면서 가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원격사후관리 가능)

※ 전화 ·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제주불교금강선원 (빙의천도, 신기운천도 전문 상담원) ☎ 064-746-0789 오시는길 :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47 3층

시민 환수운동 모범…“세대 전승해 환수 이룰 터”

다시 돌아와야 할 성보들 ⑤ 이천오층석탑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오쿠라호텔 슈코칸(集古館) 야외에는 고려 양식의 석탑 2기가 있다. 하나는 이천오층석탑이며 다른 하나는 평양 율리사지 팔각칠층석탑으로, 모두 일제강점기 당시 한반도에서 무단으로 반출됐다. 특히 이천오층석탑은 신라계 석탑 양식을 그대로 계승한 고려 초기 석탑으로 이천 지역 고려시대 문화양상을 방증하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일제 통치 홍보 위해 반출된 석탑

이처럼 가치 높은 지역 문화유산이 본래 자리를 떠나 이역만리 타향의 호텔 전시물로 전락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천오층석탑은 본래 이천향교 옆에 자리하고 있었다. 일제는 1913년 “개성과 이천 지역 석탑 중 우수한 문화재를 골라 옮겨 고고학 자료로 보존한다(〈매일신보〉 1913년 3월 20일자)”고 공포하고 석탑들을 반출할 계획을 세웠다.

일제가 이 같은 계획을 세운 이유는 1915년 9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조선총독부가 개최한 ‘조선물산공진회’ 전시를 위해서다. ‘조선물산공진회’는 한일합방 이후 5년 동안 조선의 산업 진흥과 문명 개화를 명분으로 식민 지배의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열렸다. 조선총독부는 1913년부터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경복궁 일부 전각들을 전시장으로 개조했다.

‘조선물산공진회’ 개최 당시 반출된 석조문화재들은 야외 전시물로 전락했다. 당시 석조문화재는 광화문에서 미술관까지 총 6점이 전시됐다. 순서는 △원주 영전사지 보제존자사리탑(총 2기 중 1기) △개성 남계원지 칠층석탑 △원주 영전사지 보제존자사리탑(총 2기 중 1기) △이천 안흥사지 오층석탑 △이천오층석탑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현묘탑 등이었다. 미술관 옆에는 충주 정토사지 홍법국사부도와 탑비가 전시됐다. 본래 자리를 떠나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의 소장품이 된 석탑과 불상 등 성보문화재의 대부분은 일제의 식민 지배를 홍보하기 위해 열린 ‘조선물산공진회’를 위해 이뤄진 무단 반출의 산물이다.

식민 재벌 탐욕에 현해탄 건너다

‘조선물산공진회’ 전시를 위해 이천을 떠난 오층석탑의 수난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초대 조선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 正毅)의 하수인으로 거대재벌이 된 오쿠라 기하치로(大倉喜八郞)는 전시를 위해 철거한 경복궁 자선당(세자의 침소)을 일본으로 가져갔고, 반출됐던 이천오층석탑도 조선총독부를 통해 양도받았다.

자선당은 ‘조선관’이라는 이름으로 탈바꿈됐고, 한반도에서 가져온 석탑과 유물 등으로 오쿠라는 일본 최초 사립 박물관인 오쿠라 슈코칸을 1917년 개관했다. 당시 조선실에서 진열된 미술품이 3692점이나 됐으며, 서적도 1만 5000여 권이 있었다고 한다.

이천오층석탑의 양도는 슈코칸 개관 이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1918년 7월 오쿠라 슈코칸 이사 사카다니 요시로(阪谷芳郞)가 당시 조선총독이었던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에게 보낸 서한을 보면 오쿠라가 하세가와를 만나 재건된 자선당에 어울리는 석탑 양도에 대한 구두약속을 받았고, 총독부 담당 관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런데 애초 오쿠라 측이 양도받기를 원한 석탑은 이천오층석탑이 아니라 평양 정류장 앞 팔각칠층석탑이었다. 하지만 조선총독부는 평양 정류장 앞 팔각칠층석탑은 세인의 이목이 있어 반출이 불가함을 밝히고 대신, 박물관에 있는 이천오층석탑의 이운을 권했다. 이를 받아들인 오쿠라 슈코칸은 1918년 조선총독부 반출 허가를 요청했고 총독부는 다음날 바로 ‘허거한다’는 답신을 보냈다. 그렇게 식민 재벌의 탐욕으로 이천오층석탑은 현해탄을 건너 오쿠라 호텔 옆 슈코칸 경내로 이운됐다.

이천 향교 옆에 있던 오층석탑
1915년 공진회 전시 위해 반출
전시 이후 밀약 통해 일본으로
현재 오쿠라호텔 전시물로 돼

2003년 지역문화지 문제 제기
이천 출신 재일교포 위치 찾아
시민 중심으로 환수운동 전개
30여차례 협상에도 환수 난항

장기전 돌입…세대 전승 초점
환수염원탑 조성, 백일장개최
조직 재정 어려움…도움 절실

야외 전시물로 전락한 이천오층석탑은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하고 방치됐다. 2000년대 이후 한국 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석탑의 훼손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심지어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석탑 4층 모서리가 파손되고 옥개석이 비틀어지는 피해를 입었다. 석탑은 2015년 슈코칸 리모델링을 위해 해체됐다가 2019년 재개관에 맞춰 다시 세워졌다.

시민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잊혀졌던 이천오층석탑이 다시 알려진 것은 일본에서 발간된 재일 교민 월간지 〈아리랑〉 1996년 1월호를 통해서다. 당시 잡지는 경복궁 자선당 유구를 취재하기 위해 슈코칸을 방문했다가 석탑의 존재들을 알게 됐다고 기술했다. 이후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가 이뤄진 것은 이천문화원에서 발간한 문화지 〈설봉문화〉 제30호(2003년 가을호)에 ‘일제의 문화재 수탈과 이천지역-향교 앞 오층석탑의 이전 경위를 중심으로’를 통해서다. 이후 이천 출신 재일교포 김창진 씨가 2005년 12월 이천문화원을 방문해 석탑환수운동을 제의했고, 2006년 ‘이천의제21’에서 석탑 환수운동의 공식 제안이 이뤄졌다.



일본 오쿠라 호텔 슈코칸 야외에 전시된 이천오층석탑. 본래 이천 향교 옆에 서 있던 것을 일제가 무단 반출해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에서 전시했다. 이후 오쿠라재단의 요청에 의해 양도됐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20년 1월 환수염원탑 건립 제막식 모습. 이천 시민의 환수 염원이 담겼다.

2007~2008년 두 번의 시민토론회가 진행됐으며, 2008년 8월 지역 시민단체 24곳이 참여해 이천오층석탑환수위원회(이후 환수위)가 공식 창립됐다. 환수위는 현지 조사를 비롯해 학교 순회 교육, 전시회, 국제심포지엄 등을 진행했으며, 이천 시민을 대상으로 한 환수 서명 캠페인을 통해 9개월 동안 시민 10만 9000여 명의 서명 동의를 이끌어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환수위는 오쿠라문화재단과 환수를 위한 협의를 30여 차례 진행했다. 처음에는 1965년 국교 정상화 협정서를 근거해 종결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던 오쿠라문화재단도 10만 시민의 서명서를 보고 난 이후에는 입장이 달라졌다. 일진일퇴의 협상이 8년간 이뤄졌지만, 2018년 8월 오쿠라문화재단은 “문화재 반환은 1965년 국교 회복 당시 한일협정에 의해 모두 해결된 상태”라고 입장을 밝히며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실제적 결실을 아직 맺지 못했지만, 이천오층석탑 환수운동은 시민을 중심으로 한 환수운동의 모범이라고 평가를 받는다. 환수위 출범 이후 24년 동안 각종 토론회와 국제 심포지엄 개최, 보고서 발간, 탑돌이 문화제, 학생 백일장, 홍보사업 등이 끊임없이 이뤄져서다.

2009년부터 환수위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한 보문 스님(평택 자비사 주지, 前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은 “시민의 집념과 열정으로 시작한 환수운동은 10만 명 서명으로 확산됐고, 마침내 지역을 대표하는 사회운동으로 거듭났다”면서 “환수위는 지금도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만큼 모범적인 시민사회단체도 찾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2018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며, 이제 환수운동은 장기전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 환수위는 2020년 1월 환수염원탑을 건립하고 제막식을 가졌으며, 지난해에는 그간의 환수운동을 정리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다만 지속적으로 환수위를 운영할 수 있는 재원 마련과 세대 전승은 숙제로 남았다.

보문 스님은 “지속적으로 환수 여론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의 확장성이 필요하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이천 안흥사지 오층석탑의 환지본처 사업을 통해 일제 반출 지역 문화유산을 알리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면서 “환수염원탑 탑돌이 문화제 등의 문화사업을 통해 이천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환수 운동을 펼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상구 환수위 상임위원장은 “이천오층석탑 환지본처는 길게 보고 가야할 운동이다. 세대 전승을 통해서라도 항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구적인 운동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는 실무를 함께해 줄 직원 한 명의 월급도 줄 수 없는 형편”이라며 “정부나 시에서 급여 정도만이라도 보조나 지원을 해줬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경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김영숙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역삼 Wedding

불자님의 소중한 인연
아름답게 이루어 드립니다

법조계·의사·약사·재력가·사업가·공무원·교수·회사원 등



김계숙 원장

27년 전통 · 늦은 초혼 전문
책임 있는 컨설팅 해드립니다.

◈1:1 집중관리 ◈성사위주
◈신뢰·정확한 정보 ◈성실상담

대표 02-555-5528 H·P 010-5207-904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1 (역삼동 642-19) 역삼하이츠빌딩 15층 11호 (2호선 역삼역 5번 출구 첫 번째 건물)

“여래장은 법계장이며 법신장”

〈法界藏〉 〈法身藏〉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㉛ 여래장과 번뇌

〈원문〉 “세존이시여, 여래장은 시작된 시간(前際)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겨나거나 없어지는 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체 고통이 여래장에 의해서 심어지며, 괴로움을 싫어하고 열반을 즐겨 구하는 것도 여래장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여래장은 ‘나’라는 게 아니고 중생이 아니며, 목숨이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여래장이란 몸이 있다는 소견에 떨어진 중생이나 뒤바뀐 생각을 하는 중생, 공한 데 뜻이 어지러워진 중생들의 경계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여래장은 곧 법계장(法界藏)이며, 법신장(法身藏)이며, 출세간상상장(出世間上上藏)이며, 자성청정장(自性淸淨藏)입니다. 이 성품이 깨끗한 여래장이 객진번뇌(客塵煩惱)와 상번뇌(上煩惱)에 물드는 것은 불가사의한 여래의 경계입니다. 그 까닭을 말하면, 찰나의 선한 마음은 번뇌에 물든 것이 아니며, 찰나의 나쁜 마음도 번뇌에 물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번뇌는 마음에 접촉하지 아니하고 마음도 번뇌에 접촉하지 아니하는 것인데, 접촉하지 아니하는 법으로 어떻게 마음을 물들일 수 있겠습니까. 세존이시여, 그러나 번뇌도 있고 번뇌가 마음을 물들이는 일도 있사오니, 성품이 깨끗한 마음으로서 물든다는 것은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불세존만이 진실한 눈과 진실한 지혜로서 법의 근본이 되시며 법을 통달하시어 바른 법의 의지할 데가 되었으므로 실제와 같이 아시고 보십니다.”

〈강설〉 여래장사상의 대표적인 전거(典據)가 되는 〈승만경〉은 여래장에 대한 설명을 매우 심도 있게 전개해 나간다. 여래장이란 결국 불생불멸하는 불성 자체를 달리 표현하는 말이다. 이 장에서는 여래장이 법계장, 법신장, 출세간상상장, 자성청정장이라 하였다. 이 여래장이 과거의 어느 시점에 시작된 것도 아니고 미래 어느 때에 가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 하면서도 이것에 의해 온갖 고통이 심어지며 열반을 구하기도 한다 하여 부처의 세계나 중생의 세계가 모두 여래장의 세계임을 밝힌다. 그러나 여래장 자체는 모든 것을 떠난 것으로 중생의 경계도 부처의 경계도 아니라고 했다.

승만 부인이 부처님께 올리는 말씀 가운데 부사의란 말이 자주 나오는데 부처님의 경계는 중생이 식심으로 분별하는 사유의 차원이 아니라는 뜻에서 하는 말이다. 〈원각경〉에 사유심으로써 여래의 원각 경계를 헤아리는 것은 반딧불로 수미산을 태우려 하는 것과 같다 하였다.

여래장의 장(藏)은 만유 제법을 모두 저장하는 창고라는 뜻과 모든 것을 출생시킨다는 두 가지 뜻이 있다. 〈화엄경〉에는 나오는 무진장(無盡藏)이라는 말처럼 법계장, 법신장, 출세간상상장, 자성청정장이란 말도 무진장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말들이다.

다시 말해 〈승만경〉에서 말하는 여래장이 〈화엄경〉의 무진장이다. 〈불명경(佛名經)〉에는 ‘나무무진장불(南無無盡藏佛)’이라 하여 부처님을 무진장이라 하였다. 또 무진장보살이라는 보살의 명호도 있다.

그러나 이 무진장인 여래장이 본래는 어떤 현상의 영역에 소속되거나 국한되지 않는다 하였다. 여래장이 ‘나’가 아니고 중생도 아니고 목숨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라는 말이 미묘하다. 법성게(法性偈)의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어 일체가 끊어졌다(無名無相絶一切)”는 말과 똑같은 뜻이다. 만유의 현상은 상대적인 연기의 세계이지만 부처님의 정각의 경계는 모든 상대적인 현상을 초월한 절대의 세계다. 여기에는 사유가 미치지 못하는 무분별의 세계라서 그야말로 선(禪)에서 말하는 “말길이 끊어지고 마음이 갈 곳이 없는(節言語路 滅心行處)” 세계이다. ‘부처를 부처라 하면 부처가 아니다’는 말이 있는데 이러한 말은 〈금강경〉의 즉비(卽非) 논리에 의해 자주 해온 말이다.

여래장이 객진번뇌(客塵煩惱)와 상번뇌(上煩惱)에 물이 든다는 것은 번뇌가 없던 여래장에 홀연히 생기게 되었다는 말이다. 바다에 본래 파도가 없었는데 파도가 생긴 것처럼 번뇌도 그와 같이 생긴다는 것이다. 객진이라 하는 것은 본래 없었으므로 우연적이고 외래적인 것으로 생겼기 때문에 찾아온 손님에 비유해 하는 말이고, 상번뇌(上煩惱) 수번뇌(隨煩惱)를 말하는 것으로 근본번뇌에 따라서 일어나는 번뇌를 말한다.

〈반야불교연구원장〉

‘諸行無常’ 깨칠 때 행복 얻어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㉞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얻기 위한 수행

행복 원하면 자신 마음 변화시켜야

불자 여러분! 이와 같이 괴로움을 벗어나 행복을 원한다면 제일 먼저 자기 마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자신들이 느끼는 모든 괴로움과 행복의 감정들은 모두가 자신의 내면적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부처님께 의지하며 스스로 마음을 닦아 변화시켰을 때만이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남전 증지부 ‘일법부’에서 “우리의 마음은 빛나고 찬란한 것이다. 단지 바깥에서 들어온 때에 의해 더러워질 뿐이다.”라고 우리들의 마음 본질이 본래 청정함을 설하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끝없이 변한다

불자 여러분! 모든 존재는 끝없이 변해갑니다. 그것이 물질인 것이나 비물질인 것이나, 유형적이든 무형적인 것이든 간에 변화를 벗어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모두가 다 변합니다. 이처럼 모든 존재는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인연을 따라 한 순간도 멈춤 없이 매순간 변화해갑니다.

물질적인 것은 성주괴공(成住壞空)을 하고, 마음은 생주이멸(生住異滅)을 하며 우리들의 육체는 생로병사(生老病死)를 하면서 변화합니다. 우리들이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모든 존재가 모두 다 변한다는 진리를 확실히 믿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 마음 역시도 끝없이 변화하고 있는 것임을 확실히 믿고 있을 때만이 큰 괴로움이 닥쳐와도 그 괴로움은 때가 되면 봄눈 녹듯이 사라지고 마는 허망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존재는 변한다는 제행무상(諸行無常)의 진리를 깨치고 있을 때 우리는 괴로움을 벗어나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모든 존재들이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체 존재는 모두가 실체(實體)가 없는 무자성(無自性) 공성(空性)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존재가 실체가 없는 공성이기 때문에 인연생기(因緣生起), 즉 인연에 의해서 생성되고 인연이 다하면 소멸(消滅)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연기의 진리를 깨치시고 〈잡아함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此有故彼有) 이것이 생함으로써 저것이 생한다.(此生故彼生) 이것이 없음으로써 저것이 없고(此無故彼無) 이것이 멸함으로써 저것이 멸한다.(此滅故彼滅)”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연기의 진리는 일체 존재의 생성과 소멸의 이치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와 현상들은 원인과 조건이 만나 이루어지며 그 인연이 다하면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러한 연기의 진리를 제대로 깨치지 못하면 그릇된 사견(邪見)에 빠져서 허상에 집착하며 분별망상을 일삼고 고통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설하기를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라고 하시며, 모든 존재는 모두가 공성이기 때문에 얻을 바가 없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모든 존재는 이처럼 무자성 공성이므로 실체가 없어 인연생기(因緣生起)하므로 허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든 정신이든 무엇이든 간에 어느 것에도 집착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에서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춰 보고 일체고액을 건넜다”라고 설한 것처럼 관세음보살이 모든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오온이 공함을 비추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흠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㉛ 고씽까 법문의 작은 경 2

‘나’ 없음 아는 것이 ‘出家’

난디와 낌빌라는 “존자 아누룻다께서 세존의 앞에서 우리들에 관하여 모든 번뇌가 소멸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셨는데, 우리들이 존자 아누룻다께 이러 저러한 경지를 성취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아누룻다는 “존자들은 저에게 ‘우리 둘은 이러 저러한 경지를 성취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나의 마음을 미루어 그대들의 마음에 관해 ‘이들 존자들은 이러 저러한 경지를 성취했다’라고 압니다.

“출가(出家)를 한다”고 말하지만 출가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출가라는 첫 출발을 이렇게 말씀하신다. “집 있는 곳에서 집 없는 곳으로”, 이 문장 속에는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다. 단계라는 것이 따로 있지 않지만 바르게 떠나게 되면, 차차 출가의 의미가 넓고 크다는 것이 새삼스레 다가온다.

처음에는 몸의 떠남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은 밖에 인연의 떠남을 받아들이고, 나의 것의 떠남을 받아들이고, 나의 것이 생길 수 없음을 알고, 나의 존재의 떠남을 받아들이고, 나의 존재가 생길 수 없음을 알게 된다. 처음은 몸을 떠나는 나의 주체가 있는 떠남이었다면 나중은 몸은 그대로 두고 몸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실체가 없는 그림자임을 알아 몸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이 나의 집이 아님을 안다. 그러므로 다시 어디를 떠나야 한다는 마음을 끊어 버리는 출가를 하게 되는 것이다.

누구나 똑같은 출가의 길을 가겠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른 길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출가의 길은 지식을 얻는 것도 아니고,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고, 지위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존경 받는 것도 아니다. 오온을 나로 알고 있는 마음을 거두어 더 이상 무엇으로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알고, 모든 인연을 놓아 그들을 해탈시키는 것이 마지막 출가이다.

밭에 콩을 심었는지 팥을 심었는지는 작물을 거두어들일 때가 되면 누구나 알게 된다. 아누룻다는 도반들이 수확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 도반의 말과 행동이 세속적인 관심에서 멀어지고, 불필요한 말과 행위를 버리고, 가르침에 대한 사유를 영양분으로 삼아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견해를 버리고, 처음으로 듣는 지혜에 두려움 없이 마음의 빗장을 열고 기쁨으로 수용하는 것을 가까이 있음으로 제일 먼저 알아차린 것이다. 그래서 아누룻다는 벗들이 그것을 알지 못할 수 없음을 마음으로 알고 부처님께 도반들의 성취에 대해 그가 알고 있는 것을 알려 드릴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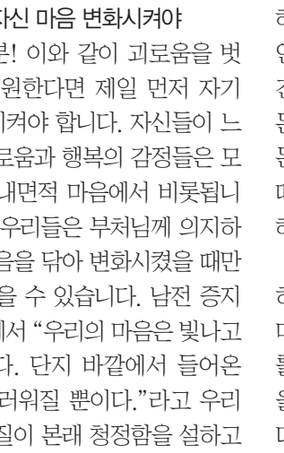
가장 가까운 인연에게 앎을 전달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그들은 나의 몸이 가지고 있는 허물을 가장 잘 알고 있다. 허물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성인군자 같은 소리를 하게 되면 누가 그것을 듣고 받아들이겠는가. 아마 마음속으로 “너나 잘 하세요”라고 말할 것이다. 가르침은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진리를 몸소 보여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말이 필요한데 조금 이해했다고 말이 법인 줄 알면 입으로 모든 것을 망쳐버린다. 언어는 가장 나중에 나오는 방편이다. 진리가 어찌 언어에 있을 수 있겠는가? 서로 언어와 모양에 있지 않음을 알 때 소통은 이름 할 필요가 없다. 아누룻다는 도반 난디, 깜빌라와 언어와 모양을 떠나 소통되고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을 알아주는 것은 스승보다 도반이 먼저 발견하게 된다.

그것을 말한다면
그것을 말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을 말하지 않았기에
그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네.
그것은 어디에 있는 것 아닌 그것이기에
아루눗다, 부처님께 그것이라 이름 붙였네.

〈(사)여시아문 선원장〉

닝마파 전통의 핵심 논서!
티베트불교의 현교와 밀교의 요점을 총합한 법장!



정해 보등론 강의

문수보살의 화신으로 추앙받는 미팡 린포체가 닝마파 대원만 기도과 전 과정의 일체 교의를 간결하고 알기 쉽게 설하고 있으며, 이번에 한국에 최초로 번역 소개되었다.

전지 미팡 린포체 조송/진메이펑춰 린포체 전수
수다지 켄포 역강/지엄 화상 한역/512쪽/값 28,000원

스님의 그림자

상담하는 비구니 스님의 자기 치유 이야기!



한국 승려 최초로 권위 있는 상담심리전문가 자격 취득!

출가수행자라는, 상담전문가라는 권위와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감추고 싶었을 자신의 내면까지 온전히 드러내 보여주는, 그리고 그것을 치유해 가는 과정을 담은 심리치유의 경험담이자 탐험기이다.

효록 지음/국판/264쪽/값 15,000원

중국불교의 교과서이자 필독서!
승조의 『조론』과 감산덕청의 『조론 약주』 완역!

조론 역주



진정한 중국불교의 문을 연 위대한 승려 승조의 『조론』과 명나라 고승 감산의 주해, 이 두 저서에 대한 철저하고 정확한 번역과 상세한 주로 그 정수를 드러내보인다.

승조 지음/감산 약주/덕우 강승욱 역주/760쪽/값 38,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4만원/회 ◆가로 8㎝: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400호 | 17 | 전면광고

위 없이 올바른 깨달음을 이루려는 마음
냈다면 그것이 바로 출가이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유마경》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제9호 영산재 천수바라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과정 모집 •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우주광명 「누진통」「천안통」 시공을 초월한 수행법

단 한시간이면 업장소멸, 번뇌가 사라져 무상무념이 되고 해탈이 되어 매일 선정과 삼매에 들어 깨달음을 이루고 병고액난의 고통과 삼악도에서 벗어날수 있음.

일광합장 010-3586-6091

입종 동참 안내

불교정신문화원, 불교수련문화원
불교선문화원, 불교명상문화원
불교문화정원, 불교문화원
(설립 운영하실 분)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교육부 산하 상학 인가)
만대 불교학 대학원
010-5412-8040 법광

불 교 용 품 고 가 매 입 전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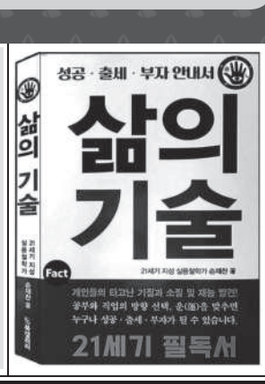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효사연락

010-5962-4600

효사비결
CD프로그램
교환



추천 - 책이름검색 해보세요 !!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지역
010-8721-219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70세 이하, 숙식 제공
외국인 환영
강원도 춘천 인근
010-5049-1533

"우리함께" 부처님 공부하면서 살아갑시다

- 남은 생을 절에서 살아가실 분(부부 환영)
- 장기간 집중기도 하실 분
- 장기요양 하실 분 • 출가 하실 분
- 주지스님 공양주겸 시봉하실 분
- 출가한 스님으로서 절을 운영하실 스님
- 끝까지 주지스님과 같이 수행하실 스님

충청북도와 강원도 경계선에 있는 절로써 공기 좋고 경치, 교통 좋은 사찰 내에서 요양원을 운영하고자 하시는 분

연락처 010-8945-1424

"영험약수"로 치유가능

◈ 효능 : 변비, 오십견, 몸 아프신 분 ◈
◈ 식약청 46가지 검증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적천리 113 법정사
지평 대종사 : 033-336-2309 / 010-4804-2309
대구종무소 : 010-4009-2388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상담문의 010-4014-8822 대구사무실 서울잠실사무실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특수한 기도법

전수비 300만원 스님께만 전수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0-3741-0867

성명학·타로·절간사주·비법

절간사주 · 타로 · 인상학 · 수상
특별비법 **비구니 스님**께만 전수 **수강료 100만원**
★간절하게 꼭 배우고 싶은 비구니 스님만 문의 주세요★
아로마테라피 1급강사 ◈ 아로마테라피와 싱잉볼명상 전수해드림 ◈

문의전화 010-6284-6172

현대인의 지친 삶을 위한 쉼터

빙의, 신병, 우울증, 불면증, 화병, 중독, 스트레스,
가정 · 사업문제, 심령치유, 금식기도, 장기요양

✻ 마음치유 · 심신수련 · 쉼 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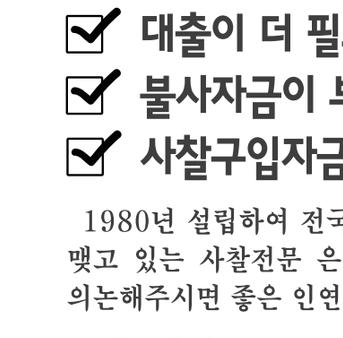
땅끝마을 청정지 해남 견성원에서 새로운 삶의 기운을 받아 가세요!
견성원 문의전화 010-8208-7836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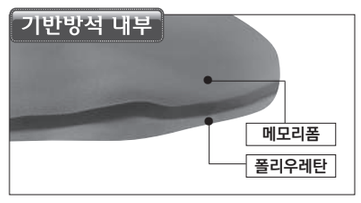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계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19,000~~ → 16,150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향(香) 특판 안내

● 능인계향 ● 능인라벤더 ● 능인로즈마리



능인계향
판매가 : 20,000원
능인계향은 히말라야와 베트남, 라오스 국경지대에서 구해온 향나무와 꽃 등다섯 가지 재료를 배합하여 만든 향으로 심신 안정과 기혈 순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능인라벤터
판매가 : 15,000원
라벤더는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로즈마리
판매가 : 15,000원
로즈마리는 항균, 살균 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마하몰 TEL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00호 | 18 | 전면광고

사나우면 남들이 꺼려하고 나약하면 남이 업신여기나니 사나움과 나약함을 버려 지혜롭게 중도를 지켜라.



부처님 말씀 읽기 - 《잡보장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 대지 : 300평
◎ 건평 : 50평 외
◎ 시내산 및 주차가
◎ 가액 : 가격협의
◎ 위치 : 인천
◎ 부지 : 700평
◎ 건평 : 약100평
◎ 주차, 공원
◎ 가액 : 11억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안내 가람

- 경남 창원 사찰 양도합니다.
- 부지 총면적 : 2,231㎡(674평)
- 건물 총면적 : 279.12㎡(84평)
- 가액 : 12억

사진은 인터넷 검색창 "사찰양도안내가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10-8980-4789
다래공인중개사사무소 : 서울중랑구 봉우재로203-1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공기 맑고 아늑한 절
- 잡종지내의 대지 143평
- 가액 : 1억2천5백(조정 가능함)
- 노스님 몸 아픈 관계로 급양도
- 가전제품 보시 ●당일법회 가능
- 현재 운영중입니다.
- 법사님, 보살님도 환영합니다.

010-4180-17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기도 도량 안내

- 위치 : 강원도 춘천시 삼악산
- 건물 : 법당, 관음전, 삼성각, 미륵대불, 요사채, 공양간
- 가액 : 급양도(협의가능)
- 특징 : 유명 등산로 입구, 참배객 많음, 도보 5분 버스정류장
- 영험있는 기도도량입니다.

010-3428-2774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청주시 남이면
- 대지 : 951평 (종교부지) 300평(법당뒤 임야)
- 건물 : 법당22평, 요사38평, 지장전40평(2/2층) 창고40평(1/2층, 임대중)
- 신도다수, 시내근접
- 가액 : 현장 답사후 절충

010-3346-3302

전원주택&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임법당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북부지역
- 대지 : 326평, 본채40평, 별채40평, 공양간10평, 큰창고 2개, 방7, 욕실3, 화장실4, 산신각, 지장전
- 가액 : 4억
-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2008-037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창원시 마산 어시장 상가 3층 정오사
- 법당50평, 삼존불, 신중, 칠성, 산신, 용왕, 영가단
- 4층 스님방1칸, 에어컨2대, 난방기1대, 냉장고2대
- 보증금 1천만원, 월50만원 시설비 2천5백만원

010-6554-3784

도심속사찰(급)안내

- 위치 : 인천광역시 신석로 111번길 3-1
- 건물 : 2층 법당 30평, 1층 요사채 30평, 지하 20평
- 건강상 문제로 급양도

010-9286-1008

토굴·별장 주택 안내

- 위치 : 전남 보성군 회천면, 바다가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명당자리, 상담하시는 분이면 최고의 자리
- 대지 253평, 건물 두채, 건물1 요사채 경량철골구조(벽돌마감) 연면적 30평, 방4개, 거실, 주방, 화우소2개, 건물2 경량철골구조, 법당 20평, 방2개, 해우소
- 가액 : 3억

010-4866-805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안강읍
- 대지 : 90평
- 건물 : 아래층 34평 2층 법당 24평
- 조용한 주택가, 주위 모든것이 편리함(은행, 병원, 마트 등)
- 가액 : 7억(절충 가능함)

010-2458-665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유계리
- 계곡물 흐르는 청정지역 대지388평
- 대웅전 요사채 1동 산신각 용왕당 1동
- 가액 : 3억7천(절충가능)

010-4123-759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하북면
- 통도사에서 15분, 양산IC에서 15분
- 총평수 : 588평, 법당 단독 기와집 주방 방3개 46평, 남향양지, 영축산을 등지고 천성산을 바라봄, 산신각 전통목조 6평, 콘크리트조 9평, 지하수(청옥 암반수), 시수도 연결되었음, 농사용 전기, 저온창고
- 가액 : 11억

010-5309-9117

사찰(급)안내

- 위치 : 강원도 읍내 거리 5분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사찰
- 부지 : 약 1,700평
- 대웅전 1동, 삼성각 1동, 108돌탑, 요사채 2동, 태양광열설치, 대형주차장 완, 집기 일체, 법회 바로 가능
- 가액 : 13억(답사후 절충가능)

033-562-0488

멋진사찰(급급)안내

- 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 대지 : 약 173평
- 건물 : 법당 1동 25평(단청) 산신각 1동 약 4~5평
- 요사채 : 1동 약23평, 1동 약 25평, 2층 약6평
- 가액 : 3억 2천에서 5천만원 절충함

010-4999-5622

포 교 원 안 내

- 경남 밀양시, 5층중에 2층, 70평
- 삼존불, 인등, 원불, 영가위폐인등, 산신인등, 각방 에어컨, 방4개, 냉장고, 세탁기 등 시설완비(시설비 1억 7천)
- 무료주차장 약 50대, 병원, 은행, 마트 1분거리, 사주 하시는분 강력 추천, 비품대 확실히 잘해드리겠습니다.
- 가액 : 보500, 월43, 시설비 4500

010-9424-4777

양평, 임야 안내

- 서울에서 1시간 거리(동남향)
- 약 2,200평(계획관리+보존임야)
- 명상과 더불어 조용한 전원생활
- 향후 양평 ↔ 송파간 고속도로 착공으로 투자성이 매우 좋은 저렴한 땅(평당 : 13만원)

주인직접 010-2215-3657

사찰(급)안내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소재
- 대지 600평, 건물, 법당, 탑, 산신각, 미륵불, 요사채 2동
- 스님 노환으로 급양도 합니다
- 시내와 인접해 있습니다
- 가액은 상담후 결정

010-2366-2821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합천 용주면 봉기리 431
- 대지 : 300평(종교부지) 농지 : 114평(논)
- 목조법당 : 25평 요사채 : 20평
- 가액 : 3억 3천만원

010-4835-1739

사찰(급)안내

- 산밑 아늑하고 기운있는 도량
- 통영시내 인접
- 개인사정으로 급양도
- 직접 와보시고 결정하세요
- 가액 : 1억 7천(조정가능)

010-9421-077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 동해면 봉암리 144-17
- 법당, 산신각, 요사채, 텃밭 260평, 화장실2, 정원처럼 잔디밭(바다보임)
- 가액 : 대출 5천만 안고 3억 3천만

010-8643-5235

사찰안내 가람

- 홍천강변 토굴 양도합니다.
- 춘천시 남면 한덕리 402-8번지
- 부지 총면적 : 1,000㎡(302평)
- 건물 총면적 : 90㎡(30평)
- 가액 : 6억

사진은 인터넷 검색창 "사찰양도안내가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10-8980-4789
다래공인중개사사무소 : 서울중랑구 봉우재로203-1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면 세도북로 149번길 34 마강사
전화 041)832-4153 **팩스** 041)833-4154

우리불교조계종 총무원 Tel 010-6478-1569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 5권 묶음판매

에 동참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묶음판매를 종료합니다.
본 광고 이후 〈불서총판 운주사〉에서 전국서점에 공급합니다.



깨달음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석호 지음
218쪽
값 12,000원

깨닫기 위한 3일의 실천과 그 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지침



금강경이 소설로 - 금강경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석호 지음
292쪽
값 13,000원

물질만능시대-물질을 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황폐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메시지

○ 매순간이 기적이다. 이 사실을 사무쳐 느끼는 자. 나는 그를 깨달은 이 - 붓다라고 부른다. <석호>

보급처 : 불서총판 **운주사** ☎ 02) 3672-7181

불자의 궁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지사	손문철	T 053-768-8008	H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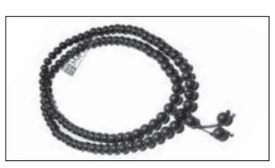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엽 스님의
자연힐링차
⑮ 차를 우리기 전에 할 일 3

茶道 통해 삶 이치 깨달아

법도

기초차식의 제4식 법도는 차를 취할 때 양을 조절하는 방법을 말한다. 차를 우릴 때 물의 온도와 우리는 시간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찻잎의 양은 차의 농도와 맛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즉 차의 양을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따라 차 맛이 결정 되는 것이다.

보통 4~6인이 차를 마실 때 차의 양은 8g이 적당하다. 차를 마시는 기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찻잎과 물의 비율은 1대 30 내지 1대 50 정도가 적당하다.(보이차의 경우)

황차의 경우 차의 양을 조금 늘리고 녹차의 경우는 차의 양을 줄이는 식으로, 차의 성질에 따라 반복적인 경험에 의한 체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한 번 습득한 것을 고집할 필요 없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한다.



찻잎 양, 차 농도 · 맛 결정 주요 요인
버리지 못하는 마음과 탐욕심 경계를
편안함과 즐거움 충만한 세계 경험해

내가 아는 것만 고집하는 사람이 우린 차는 자칫 '고집차'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차속에도 고집이 들어있어 도를 수행하기 어려운 번뇌차가 된다. 향기로운 차 한 잔을 우리기 위해 어느 정도의 찻잎을 취하는가가 중요한 만큼 향기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취함과 버림의 도를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차를 우리는 과정을 통해서 세상을 사는 이치, 인생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다도의 큰 매력이 아닐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인생의 취사 도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취한다는 것은 삶의 태도이고 버린다는 것은 인생의 철학이기에 기꺼이 버릴 수 있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일정수준의 경지에 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취함과 버림은 얼핏 보기에 반대되는 개념 같지만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늘 함께 붙어 있는 것이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취사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은 언제든지 있게 마련이다. 이럴 때 마음속 번뇌에 속지 않고 확고한 기준 선택의 순간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논어 계시편에 군자에게는 세 가지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 "첫째, 젊을 때에는 혈기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니 색을 경계해야 한다. 둘째, 장성해서는 혈기가 왕성하므로 싸움을 경계해야 한다. 셋째, 늙어서는 혈기가 쇠하므로 탐욕을 경계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공자의 취함과 버림에 대한 지혜를 볼 수 있는 구절이다.

다도를 익혀 깨달음을 얻고자 할 때에도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버리지 못하는 마음과 과도한 탐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과연 어떻게 취하고 버려야 할 것들이 있을 수 없고 장성해서는 버려야 할 것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인생의 초년기에는 외적으로 성장을 위한 양식만 있으면 되고 내적으로는 소양을 쌓고자 하는 지식을 얻으면 될 뿐이니 딱히 버려야 할 것이 없다. 사람이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취하고 버릴 것이 생겨나니, 재산을 얻고자 하면 인생의 여유를 버려야 할 것이고, 권력을 얻고자 하면 청춘을 버려야 할 것이다. 또한 노년기에 접어들어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 자연스레 이해하게 된다. 이는 마치 산이나 바다와 같은 대자연에서 위험에 처하게 되면 불필요하고 무거운 짐부터 버리기 시작하여 끝내는 한 몸 외에는 그 어떤 물건도 지니고 있을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이다. 불가에서는 미혹을 버리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작은 것을 버리면 큰 것을 얻을 수 있고, 망념을 버리면 진실됨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허망함을 버려야 비로소 진실되어진다고 가르친다. 이 역시 취함과 버림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마음속의 편협함, 집착, 근심, 번뇌, 슬픔의 우비고뇌를 모두 여의어야만 편안함과 즐거움이 충만한 인생의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 있다.

이를 다도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면, 인생이 끝없이 흘러가는 긴 강물이고, 차는 강물 위에 유유히 떠 있는 한 척의 배와 같아 우리는 그 배를 타고 인생이라는 여정의 강을 건너 '도'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도행다를 통한 인생의 여정을 잘 사유하여 깨달음의 목적지, 해탈의 목적지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 다도의 목적이다. 다도가 지향하는 것이 역시 인생의 참된 진리이니 차를 얻고 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차를 버리고 도를 얻어야 한다. 꼭 지금의 대한민국 다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당부이다.

〈체질별약차 전문점 마음정원 대표〉



박주용의
소금&건강
⑮ 면역력

소금 섭취로 면역력 강화

질병은 균형의 파괴이고 치료는 균형의 회복이다. 균형이 깨어지면 세균이나 바이러스, 암은 공격을 시작한다. 영양과 미네랄의 불균형, 노동과 운동의 불균형, 정신과 육체의 불균형, 환경과 생명의 불균형, 영양 간의 불균형, 미네랄 간의 불균형, DNA 삶의 불균형이 깨어지면 우리의 몸을 지탱하던 면역력은 힘을 잃게 되고 세균, 바이러스, 암 등이 활개를 치기 시작한다.

질병이 우리 몸속에서 득세하게 되면 우리는 치료를 시작한다. 약을 먹고, 수술을 하고, 좋다는 것을 챙겨 먹기 시작한다. 그러면 외적인 것은 좋아질 수 있다. 열은 내리고, 종기는 사라지고 암세포는 제거가 된다. 그럼 완치가 된 것일까? 균형이 회복된 것일까? 면역력이 작동하게 된 것일까? 다시는 같은 질병에 안 걸리게 된 것일까? 불행하게도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력이 작동하지 않고 균형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몸은 또다시 질병에 걸리게 되고 회복은 더 어려워지게 되고 끝내 죽음으로 내몰린다.

지금 우리나라는 5000만 환자시대라고 이야기한다. 국민 모두가 다 어딘가 아프다는 뜻이다. 1년에 병원에 한 번도 안가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 매일 약을 먹는 사람이 넘쳐난다. 균형이 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진 결과이다. 균형을 회복하고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건강의 열쇠다.



① 엠큐눈소금
② 물에 화장품처럼 녹은 모습
③ 피부에 바른 모습

미네랄 소금 섭취로 면역력 회복가능
소금섭취, 단순한 나트륨 섭취아니라
면역력 강화와 회복에 도움될수 있어

소금은 오래 전부터 균형을 회복하고 면역력을 키우는 물질로 사용되어 왔다. 소금을 먹음으로써 미네랄 균형을 회복하고, 호흡함으로써 기를 회복하고 피부에 사용함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면역력을 회복하게 된다.

지나친 저염 운동으로 소금을 멀리하고, 미네랄 없는 소금으로 미네랄 섭취가 부족한 사람은 지금부터 미네랄 소금을 섭취해 면역력을 회복해야 한다. 소금을 호흡함으로써 기의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 피부 건강을 되찾아야 한다.

유럽의 경우는 소금 생산을 암염에 의지하여 왔다. 땅속에 묻힌 소금을 광산을 개발하는 형태로 채굴하여 왔다. 소금광산에서 소금의 채굴은 힘이 드는 중노동이었다. 소금 채굴이 계속됨에 따라 광산은 깊어지고 채굴은 더 힘이 들었다. 그 결과 소금 채굴에 동원된 광부들은 광산 속에서 살아야 했다. 일주일 내내 일을 하고 주일날에는 광산 속에 교회를 짓고 예배를 드리며, 밖으로 나오는 일 없이 햇볕도 거의 쬐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중노동에 시달렸다. 당연하게 건강이 염려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탄광이나 철광석광산 같은 다른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건강을 잃어가고 특히나 호흡기와 폐 질환에 시달리고 일찍 사망한 것과는 달리 소금광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하였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소금광산의 공기 중에 떠 있는 소금 입자, 소금에서 뿜어 나오는 기(이온)가 호흡기에 폐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입증된 치유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날 유럽의 폐소금광산은 호흡기 질환자를 위한 치유의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효과를 체험했다.

소금광산에서 소금을 호흡하고 소금의 기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다에는 더 많은 사람이 소금으로 인해 건강을 찾고 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이 바다를 찾는다. 바닷물에 몸을 담그는 행위만으로 건강에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 바닷물이 농축된 이스라엘의 사해 바다는 치유의 효과로 이름이 높다. 바닷물이 농축되어서 미네랄 함량이 매우 높으므로 치료효과 또한 높은 것이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이 미네랄 치유 효과를 경험하고자 사해 바다를 찾고 있고, 사해 바닷물의 소금과 미네랄로 만든 제품이 절찬리에 판매가 되고 있다. 바다의 미네랄이 피부를 통해 흡수되고 피부에 자극을 주고 노폐물을 걷어가 버리는 것이다. 소금을 이용한 피부마사지, 소금 찜질, 소금을 이용한 잇몸 마사지 등은 대표적인 소금을 피부 건강에 사용하는 방법이다. 엠큐눈소금은 심층수에서 수분만을 제거한 것이기 때문에 물만 첨가하면 바로 질 좋은 해양심층수가 된다. 입자가 곱기 때문에 피부 자극이 없고 이온화가 쉽게 되기 때문에 피부 흡수율 또한 높다.

소금은 이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치료의 효과를 제공한다. 물론 소금 섭취로 인한 면역력 회복효과는 말할 필요도 없다. 면역력은 미네랄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면역력을 회복하는 것은 신체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고 이는 미네랄의 균형적 섭취를 통해 만들어지게 된다. 소금 섭취는 단순한 나트륨의 섭취가 아니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준다. 그러기 때문에 좋은 소금은 치료 효과를 만들어 낸다. 먹고, 호흡하고, 몸에 바르는 과정 모두에서 우리는 소금을 활용한 건강법을 경험할 수 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신경, 세포, 혈관 구석구석까지 소금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우리 몸을 지키고 면역력을 키워 가려면 좋은 소금에 주목해야 한다.

〈(주)오씨아드 이사〉

무더운 여름을 이기기 위한 나만의 솔루션
20회 세탁 후에도 90% 기능유지!
여름용 기능성 비말차단 쿨~! 마스크 출시!!
FDA 등록 · ANTI-BACTERIAL · DEODORIZATION · 항균 · 탈취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는 청량한 색상 **화이트, 연분홍, 스카이블루, 연회색, 블랙** 5색에 **연꽃문양**이 아름답게 인쇄된 여름용 **Cool~ 마스크**

쿨~! 마스크 (연꽃문양/5색)
자외선 차단 및 빠른 건조기능으로 야외활동에서도 안정성이 입증된
여름용 기능성 비말차단 쿨~ 마스크
※ 로고 및 사찰명 인쇄시 장당 300원 별도 추가됩니다.
※ 주문제작상품으로 5~7일정도 소요됩니다.
대량주문시 별도문의
5개 1셋트 27,500원

패션마스크 (연꽃문양/4색)
●재 질 : 폴리에스테르 92%, 스판 8%
●색 상 : 연회색, 백색, 청색, 검정색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4개 1셋트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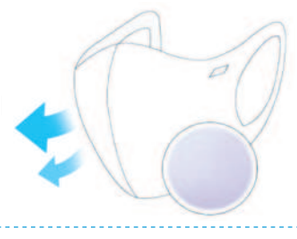
구리마스크 (연꽃문양/진회색)
●재 질 : 폴리에스테르 81%, 구리 7%, 스판 12%
●색 상 : 진회색 (그외 색상 주문 가능)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4개 1셋트 22,000원

※ 3만원 미만 주문시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AeroCool™
코오롱의 AeroCool™원단은 특수 원사단면제어 기술을 적용해 천연섬유보다 땀과 수분을 잘 흡수하고 빠르게 건조 가능한 기능성 소재입니다.



Deodorization 소취 · Antibacterial 항균 · Anti-Splash 비말차단 · UV Protection UV차단 · Fast Drying 빠른건조 · Reusable 재사용가능

문의 : 02)732-1520 www.mahamall.co.kr

마음책 다시 읽기 스님의 그림자 1 상담의 가치

▶ 한줄 요약
속으로만 갖고 있는 고민 털어놔야 '속병' 생기지 않는다.

행복 지름길, 내면 탐색의 시작 '상담'

"느낌을 표현하라고 했는데 모두 생각을 말하시네요."

나는 불교 공부에 목이 말라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동국대학교에 입학했다. 도반들은 기도하러 가거나 선방에 갔으며, 은사스님 절에 돌아가기도 했다. 나는 화두를 드는 것이 어려워서 선방에 갈 엄두를 내지못했다. 큰스님의 법문을 들어도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하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고, 살아 있는 화두가 생기면 선방에 가겠다' 고 생각했다.

나는 불교 공부에도 열망이 컸지만 심리학에도 관심이 있었다. 때마침 만학도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있었고, 누군가의 권유로 동참하게 되었다. 주 2시간 집단상담은 자신의 내면을 볼 수 있도록 쉽게 구성되어 있었다. 나는 내가 자기중심적이며 자존감과 에너지 수준이 낮다는 것을 확인하고 속으로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며 티내지 않았고, 잘난 체하고 싶어서 적극적이었다.

어느 날은 마당에 붉은 물감을 쏟아 붓고 싶은 충동과 환상이 보였다. 내면에 억눌러 놓았던 것들이 쏟아져 나올 것만 같아서,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었다. 집단상담 선생님에게 미술학원을 소개해 달라고 청했더니 미술치료사를 소개해 주었다. 그렇게 미술치료와 인연이 닿아 거의 3년 동안 집단미술치료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때도 '느낌' 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자신의 그림을 전시할 때 지도자가 집단원들에게 "느낌이 어떠세요?"하고 물었다.

그런데 나와 집단원 모두는 '생각' 을 말했다. "느낌을 표현하라고 했는데 모두 생각을 말하시네요?" 나는 생각과 느낌을 구분할 줄 몰랐고, 특히 느낌을 자각하거나 표현할 줄 몰랐다. 개인상담이나 집단상담에 참여하면서 울기도 하고, 감동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낌' , '감정' 으로 인식하지 못했다. 그것을 인지하고 감정적인 언어로 표현한 것은 한참이 지나서였다.

이렇게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밖으로 자연스럽게 표출하지 못하면 건강이 악화되고, 감정을 표현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 이 생길 수 있다.

상담을 만나기 전까지 이것은 '감정' 이고, 이것은 '생각이다' 라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느껴도 된다' 라거나, '(부정적인)감정을 표현해도 된다' 라는 것을 알려준 사람이 있었나를 생각해 보았다. 없었다!

"잘 나가는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으로 인해 현실이 불만족스러우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라고 묻는다면, 예전 같으면 "글쎄요. '내가 복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고 생각을 하게 돼요."라는 식으로 대답했을 것이다. 이제 똑같은 질문을 다시 받는다면, "좌절하면서도 화가 나요. 무력해지기도 하고 무능감도 느끼고, 때로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까봐 두려워요."라며 감정을 표현할 것이다.



감정은 몸의 감각과 연결되어 있었다. 감정을 느끼면서도 그 것을 '느낌' 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에 새삼스레 놀랐다. 그만큼 주의가 생각에 꽂혀 있었고, 밖을 향해 있었다.

자연스런 감정 표현 부족함
건강 악화나 표현불능 초래
마음의 고통과 느낌을 직시
'상호관계' 감사 · 희망 쌓아

느낌이 뭐예요?

나는 감정이나 느낌에 무감각하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그리고 이것이 일반적으로 만연해 있다는 것을 알고 위안이 되기도, 놀라기도 했다. 우리 집단만 그랬던 것이 아니었다!

느낌은 신체에서 감정이 어떻게 감지되는지 묘사할 때 사용하는데, 본인이 직접 몸에서 알아채지 않으면 알 수 없다. 몸에서 느낌을 자각하고 머물 수 있는 능력은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서 단번에 익혀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담을 실시하면서 나는 고통을 호소하는 분에게 "지금 어떤 느낌이 드세요?"라며 감정을 묻는다. 그러면 "아무 생각이 없는데요.", "머리가 하얘지는데요.", "느낌이 뭐예요?"라고 되묻는 경우를 만난다. 예전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상처받은 아픈 마음을 한 방에 빨리 치유(치료)하고 싶어 한다. 치유되려면, 감정을 몸으로 느끼고, 그것을 정서적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그러기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조급해질수록 찬찬히 나아가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고통스럽다거나 힘들다고 말하면서도 '느낌' 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간다. 고통스런 느낌은 느끼고 싶어하지 않고 회피하거나 외면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것을 느끼는 것이다. 자신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 느낌, 즉 그 기분(氣分, 감정)을 몸으로 느껴야만 그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사실, 우리가 몸의 감각을 느낄 때, 내면이 더 고요해진다는 것을 알려준 사람도 가르친 곳도 없었다. 고통스러운 부정적인 감정을 피하지 않고 몸으로 느끼면 그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이 진리를 알았을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버려질 뻔했던 순간이 몸에 남긴 흔적

내가 만약 출가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알게 된 진실을 평생 모르고 살았을 가능성이 높다. 미술치료를 받을 때의 일이다. 어느날 대상관계(object relations) 워크숍에 참석했다. 강의를 듣는 내내 나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때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확신이 들었다.

대상관계이론은 프로이드 이후 정신분석학 테두리 안에서 발전한 몇 가지 이론들 중의 하나이다. 이 이론은 생애 초기 양육자와의 관계 경험이 자구조의 형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즉, 생애 초기 주요 타자들과의 관계에서 경험한 것이 어떤 정신적인 표상(mental representations)과 대인관계의 상호작용의 틀로 내면화되어, 개인이 외부 사람들과 관계 맺는 기본 방식을 결정한다는 이론이다.

그 날 밤 나는 고향으로 갔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어머니가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이야기가 듣고 싶었다. 늦은 밤에 도착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나란히 누웠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물었다.

"보살님, 나 뱃속에 있을 때 떼버리려고 했어요?"

"아니, 아들 놓을까~ 해서 그런 생각은 안했지."

"그럼, 나 어릴 때 버리려고 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

과거로 돌아가자마자 어머니는 어린 딸을 대하듯이 편하게 말을 놓았다. 어머니가 기억하는 상황은 이러하다.

부모님은 딸 넷을 낳고 얻은 삼대독자 하나로는 부족해서 남자아이를 더 원했다. 그래서 하나 더 낳은 자식이 언니이다. 그래도 아들 낳기를 포기하지 않고 얻은 자식이 나였다. 여섯 번째 딸이자 일곱 형제의 막내였다.

딸자식이 많은 가난한 농사꾼의 속사정을 알고 있던 친척의 권유가 있었다. 자식 없는 집으로 막내딸을 보내면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일 수 있고, 대학까지 보내주며, 게다가 성인이 되면 친어머니를 찾아오니, "지 자식 어디 안 간다"는 말에 어머니의 마음이 움직였다.

어머니는 돌이 되지 않은 막내를 데리고 읍내 친척댁으로 갔다. 그때 마침 3살이던 언니가 엄마와 같이 가겠다고 졸랐고, 어머니는 언니를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입양을 원하던 사람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참 나눴다.

"그때 나는 어땠어요?"

"너는 여기 왼쪽 무릎 위에 앉아서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 말똥말똥 쳐다봤지!"

어머니는 그날의 장면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내 생일은 잊었으면서.

"그런데, 자야(바로 위 언니)가 울며불며 여기 오른편 뒤쪽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동생 데리고 집으로 가자고 하도 졸라서 못 주고 돌아왔지. 차마 못 주겠데!"

그 일에 대해 몇 번 더 물었다. 신기하게도 어머니는 이야기 할 때마다 약간씩 다르게 기억했다. 예를 들어 처음엔 아버지 몰래 어머니 혼자 결정했다고 했다가, 다음번엔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식이었다.

몸을 다루는 사람들은 내 몸이 오른쪽으로 틀어져 있다는 것을 단번에 발견하곤 했는데, 신기하게 느꼈다. 아마도 그 당시깜짝 놀란 몸이 어머니를 향해 오른쪽으로 돌아간 건 아닐까!

그 후 나는 개인상담이나 가족들과의 대화 또는 스님들과의 대화에서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다뤘다. 그럴 때마다 그저 지나간 옛이야기를 추억하는 정도였고, 그때의 감정에 직접적으로 닿지는 않았다.

그러다가 사이코드라마에서 그때의 상황을 연출했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순식간에 그때의 감정에 가 닿았다. 인지적으로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접촉이 일어났다. 역할에 들어가자마자 몸은 다 기억하고 있었던 것처럼 시작하자마자 가슴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역할을 바꿀 때마다 처음 흘리는 것처럼 눈물이 흘러내렸다. 몸은 기억하고 있었다. 역할을 바꿔보면 그 사람의 입장으로 순식간에 옮겨갔고, 그들이 어떠했는지 새로운 이해 와 앎이 생겨났다.

내가 느낀 어머니의 긴장과 불안은 어린 내가 느낀 그것과는 다른 차원의 아픔과 슬픔이었다. 가난이 빚어낸 상처가 참으로 가슴 아팠다. 어머니 역할을 자주 할수록, 그녀의 고통에 더 깊이 연결될수록,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가 커져 감사함이 더 자라났다.

다른 가족들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그들의 역할을 하면 할수록, 가족들의 아픔과 상처에 가 닿을 수 있었고 그들에 대한 감사함도 커졌다. 상처가 있던 자리는 사랑과 감사함으로 대체되었다. 자비심은 애써 기르는 것이 아니라, 아픔이 흘러나가니 그 자리에 저절로 가득찼다. 신기하게도.

저자 : 효록 스님(운주사)

사주공부 어렵지 않다, 이 강의로 끝낼 수 있다.
18기 명리학 온/오프라인 수강생 모집
9월 5일 (월요일) 개강. 주 2회 4개월 과정
● 매주 월요일 2시~5시 : 비법 수리역학매화역수
● 매주 화요일 2시~5시 : 사주/오주 명리학, 일주론, 성명학
■교육과목 : 수리역학매화역수, 사주/오주 명리학, 일주론, 성명학
■강 사 : 이동현 나는역학이다 대표원장(10만명 실관, 17년 강의)
■특 전 : · 온/오프라인 동시 강의
· 역학상담사 자격증, 나는역학이다 학술위원 위촉장 수여
· 수료 후 전과목 USB 증정
■수 강 비 : 월/화요일반 : 각 120만원 (전과목 교재대 포함)
■교육장소 :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8번출구 첫건물
나는역학이다 강의센타
다산법륜사주 나는 역학이다 02)877-8771, 010-9687-0080

화제의 신간
비법 수리역학매화역수
불교계의 역/학/비/법
수리역학매화역수는 우리나라 불교계의 고승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온 역합비법서입니다.
이동현 지음 / 549P / 54,000원
※서적구입 & 동영상신청 나는역학이다. 교보,영풍 등 전국서점
NAVER 나는 역학이다 검색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약사사
• 주 지 : 청 덕 (속명 : 김태숙)
• 주 소 :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관음리 84

위 사찰은
귀 종단과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9일

대한불교 태화종 주지 법하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 과정
학인모집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동부교구 종무원에서는 불교의식의 중요함을 인식하여 각 사암에서 꼭 필요한 의식을 여법하게 할 수 있도록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의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교육과정 : 1년 (서울, 경기 의식 기준)
① 사물 다루는 법 : 도량석, 조석예불, 각단예불, 각청(불공), 시식
② 천도의식 : 49재,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상단권공, 시식
③ 각종 바라작법(꼭 필요한 의식만을 집중적으로 교육함)
개 강 일 2022년 9월 7일(수)
교육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경우에 따라 요일변경)
수 업 료 매월 10만원 (교재비 별도)
장 소 경북 동부교구 종무원 설법전 (경주시 강동면 모서별봉길 52-33)
접수 연락처 054)762-5888 / FAX : 054)762-5889
접수기간 상시모집(전화접수가능)
자 격 종단, 승속 관계없이 가능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동부교구 종무원장 김지공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400 호 현대불교 21
2022년 8월 24일(음 7월 27일) 수요일 / 불기 2566년

고덩어리를 면하려면 그 고덩어리가 나온 자리에 그냥 되놔라

(지난 호에 이어서)

그 사람도 사람이고, 그 사람도 어떤 어머니가 아들 낳았다고 좋아했을 테고 또 나도 인간이고 그런데, 생각하면 가엾고 안됐지. 그러니까 동생으로 생각을 해도 되고 또는 그 때 생각을 안 해봤지마는 지금 얘기하자면 동생이라도 몇째뻘 동생이더라고.

그래서 '에이휴, 만약에 내 동생이 저런다면 얼마나 속이 썩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봤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게 아깝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그 손에 죽는다 하더라도 아무 그것도 없어. 왜? '내가 하고 갈 게 있다. 내가 뭘 해야 할 텐데. 내가 꼭 있어야만 해.' 이런 건 다 부질없는 애깁니다. 아, 죽을 때 되면 그냥 죽으면 고만이고, 살 때 되면 사는 거고 그냥 그저 길을 걸어갈 뿐이죠. 구태여 뭐, '내가 이렇게 살아야만이 너희들이 잘산다' 이럴 것도 없어요. 또 '내가 없으면 못산다' 이럴 것도 없고요.

이 세상에 나왔으면 다 자기네 나오기 이전, 전생에서 짓고 나온 대로 악업이 많으면 더 많이 고를 당하고, 선업이 많으면 고를 덜 당하죠. 아, 국회의원도 표가 많으니까 국회의원 됩디다. 그런 거와 같은 겁니다, 우리의 악업 선업을 짓는 것도. 그러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이 내 한 생각을 잘 돌려서 나라고 하는 거를 다 버린다면 이 속에 든 악업 선업도 다 그냥 송두리째 버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덩어리 하나 착을 두지 않는다면 멸(滅)하게 되고, 도(道)가 돼죠.

그런 거와 같이 서산 대사께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 길을 걸었답니다. 그 길을 걸었는데 그때 시대에는 칼이나 활을 썼죠. 창이나 그런 걸 썼죠. 비행기도 없었고 총도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는 그 환경대로 육신통을 안 하면 아주 어려웠을 때고, 또 중생들을 제도하는 데도 필요했고 어떠한 난리가 나도 그러한 술수가 참 필요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 육신통의 술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됐죠. 그래서 그것을 잘 이끌어 가고 참, 고도로 발전을 시켜서 대도를 이루신 분이 서산 대사죠.

그랬는데 어느 날 사명 대사가 말입니다, 새를 한 마리 잡아 가지고선 덜렁덜렁 왔단 말입니다. 방에 들어와서 하는 소리가, 빼먹고 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그건 안 해도 되니까.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얘기만 합시다. 그래 와서 하는 소리가 새를 손에 쥐고 "이 새를 날려 보내겠습니까, 죽이겠습니까?" 하거든. 그러니깐 서산 대산 아무 소리 없이, 같잖다는 것도 되지만 아무 소리 없이 일어나서 문지방을 걸터 짚고 서서, "내가 나가겠느냐 들어오겠느냐?"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 대사가 고만 허무하게 뚝 떨어진 거죠.

그래서 절을 한 번 하고 제자가 되겠다고 해 놓곤 '그래도 못 믿어. 저놈의 술수는 나도 할 수 있는 건데…. 그거 뭐, 육신통 했다고 정말 대도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내가 알 바가 뭐야?' 이러면서 또 한 가지 계책을 쓴 것이 계란 쌓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란을 아래서부터 탁 쌓아서 지붕까지 붙였는데 서산 대사가 쓰윽 그걸 보더니 하는 소리가 "그 장난 참 심하구먼." 하고선 "그럼 나도 장난 좀 한번 해 볼까?" 하곤 지붕에서부터 내려 꽂거든요. 허허허.

아, 그러니 아래까지 턱 내려놓고 하는 소리가 "그래, 이것이 옳은가 그것이 옳은가?" 이러고 묻더라는 겁니다, 사명 대사한테. 그러니까 사명 대사가 거기서 또 그냥 "아휴, 잘못했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는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고 백배사죄를 했죠.

그래서 이럭저럭 지내다가 어느 날 어디 길을 걷게 됐습니다. 사명 대사는 스님을 쫓아가는데 또 속으로 '키는 조그맣고 몸뚱이는 가냘프고 조그만 저것이 대도를 이루었을까?' 또 의심이 난 겁니다, 인제. 허허허. 못생기기도 했지마는 '저거, 아유!' 그 사명 대사 자기는 출중하고 아주 훤출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보고선 스님을 보면 아주 천지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속으로 중얼중얼하면서 인제 가는 거죠. '저거 정말 대도를 이루었을까, 과연? 내가 정말 스승으로서 모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을까?' 생각을 하고서 뒤에 슬슬 쫓아가니깐 그냥 착 돌아다보면서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거든요. "이놈아! 그렇게 못 믿고 그렇게 보잘것없는 걸로 보이걸랑은 지금 빨리 가라!" 하고 말이야. 그냥 벽력같이 소리를 질렀거든요.

그러니깐 거기서 자지러졌단 말이야, 그냥. 자지러졌어요. '야! 속까지 들여다보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걸 어쩌나.' 하고선 속으로 생각을 하다가 생각을 굳혔습니다. 뭘 굳혔느냐 하면은, 팥으로 메주를 쑨대도 인제는 믿겠다는 각오가 섰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이 거꾸로 간대도 "네, 옳습니다." 했고 바로 간대도 "옳습니다." 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지냈는데 어느 날 두 분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큰 구렁이를 만났단 말입니다. 그 순간에 서산 대사께서 사명 대사를 천야만야한 절벽으로 탁 밀어 던졌죠. 그러니 천야만야한 데로 떨어질 수밖에. 떨어지다 보니깐 자기 가는 지금 그 절의 부목이 나뭇짐 해다 놓은 큰 더미 위에 뚝 떨어져서 자기 몸뚱이가 출렁대더랍니다. 그래서 떠다 밀어도 요런 데다 떠다 밀었으니 "참 스님, 고맙습니다." 하고는 올라가서 백배사죄를 했죠.

그러니까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떨어진 것이 화가 나느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떨어진 것이 옳은 일이냐?" "아닙니다." "그러면 떠다 밀지 않은 것이 옳은 일이냐?" "아닙니다." 그러거든. "그만하면 됐구나."

그러고는 이튿날서부터는 또 뭘 해 줬느냐 하면 날콩물 있죠? 날콩물에다가 솔 이파리를 찧어서 그 시퍼런 물에다가 날콩가루를 타서는 한 그릇씩 먹는 겁니다. 그걸 먹고 나니깐 설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앉았다 섰다 할 수가 없이 그냥 앉으면 서야 하고 서면 앉아야 하고, 이렇게 그냥 뭐, 하루 종일 그냥 드나드니까, 똥이 나와서 그냥 죽겠어서 벌떡 일어나니까, 큰 작대기로다가 그냥 후려치며 "나는 먹고 된똥을 누는데 너는 어째서 먹고 설사만 하느냐!" 이거야. 물지똥만을 누느냐 이거야, 응?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일본군이 쳐들어와서 난리를 쳐도 "이놈아, 설사하느라고 볼일을 못 보니, 된똥을 못 누니 어찌 네가 막대기 하나, 손가락 하나 쳐들 수가 있겠느냐?" 하곤 "술수만 배워 가지고는 절대 안 되느니라." 하곤 "그건 급할 때 쓸 수 있는 거지, 진짜 우리가 도를 이루려면 그게 아니니라." 하고선 그냥 어떻게 작대기로 때리는지 설사똥끝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그날부터 된똥을 누기 시작했다는 얘깁니다, 허허.

사명 대사가 그만큼 했으니 지금까지도 일본은 사명 대사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 때문에, 하다못해 우동 가게 앞에까지도 그 개집처럼 해 놓고 있죠. 얼마나 놀랐으면…, 허허허. 그래서 지금 '하오리'를 입은 것도 조선의 도포를 보고 그렇게 했고 참, 공깃밥 먹는 것도 우리 발우공양 하는 걸 보고, 또는 각반을 친 것도 우리 행전을 보고 그렇게 했고, 또 오조 가사를 보고서는 총받이를 만들었죠,

여러 가지로 잘 생각해 보세요. 2차 대전 때 그 폭탄 하나로 인해서 일본이 사경을 헤맸던 그 이치를 생각해 볼 때에 꼭 주면 받고, 받으면 줘야 하는 그런 이치가 있다는 거를 일본이 그렇게 혼나고 난 뒤에야 깨달았

☞ 22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내가 오다가 엎드러졌으면 내가 일어나야지 누가 일으켜주는 게 아닙니다

☞ 21면에서 계속

죠. 그리고 그전에도 참, 미국 사람한테 너무 까불다가 한번 혼났고, 또 너무 까불다가 사명 대사한테 혼났고, 그래 가지고 아주 자지러져서 이제는 저 국수 가게까지도 갖다 놨습디다.

그러니 모든 게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 겁니다. 좋은 일을 했으면 좋은 결과가 오고, 언짢은 일을 했으면 언짢은 결과가 오는 거는 당연하겠죠. 그러니 우리가 이 공부 하면서 사명 대사도 서산 대사도 이 조국을 위해 애쓰신 걸 잘 생각해 봐야죠. 그분들은 일본 군사가 붙들러 오면 이쪽으로 가면서도 짚세기를 거꾸로 신고 갔단 말이야, 짚세기를. 거꾸로 신고 담을 뛰어넘어 가니까, 담을 뛰어넘어 온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붙잡히질 않고 그렇게 우리 국민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고 그랬지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점이 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서른 안짝으로 나이가 적었을 때 얘깁니다.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산으로 다니면서 이럭저럭 지내다가 뭘 생각을 했느냐 하면,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여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사정이 있는 이치가 있어서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걸 맹물에다 빨아서, 물이나 뭐, 맹물이나 어디 그렇게 있습니까, 산에. 그런 것도 없는 데다 빨아서 입었으니깐 너무 추웠습니다. 내가 이런 소릴 지금 세 번째 하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먼발치에서 불이 깜박거렸습니다. 그래서 '서산 대사처럼 축지법을 했으면 내가 이런 추위를 모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다가 문득 무슨 생각을 했습니다. '아하! 그때는 시대가 시대니만큼 활이나 칼이나 창을 쓰던 시절이고, 지금은 몸뚱이로다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국민들을 혼란시키고 이런다면 그건 몹쓸 일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찌 내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랴. 몸뚱이가 가지 않고 내 이, 춥다는 의식 자체를 빼서 좀 뜨듯하게 만들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대가 시대니만큼 태양이 크게 확산이 돼서 만약에 우리 국민을 아니, 국민보다도 이 지구의 주인들을 그냥 삽시간에 다 삼켜 버린다면 어떻게 하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지구도 그렇지마는 저 태양도 우리 손아귀에 들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뭐든지 마음대로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네가 될 수 있는 그런 나툼.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했죠? "세 번째도 죽어야 한다." 일체 나와 더불어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네가 되는 나툼을 알아야 하겠기에 또 죽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서로 문답식으로 차차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요 말을 왜 하느냐 하면 지금은 내 영력으로써 이 몸속에 들어 있는 모든 생명들이 들고 나면서, 수십억 마리가 다 모습을 바꿔 가면서 급하면 급한 대로 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생각에. 그러면 멀고 가까움도 없는 겁니다. 한 찰나입니다! 저런 혹성 세계에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벌써 은하계하고 그 별성과 더불어 나와 둘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모든 게 천지가 다 통신이 되고 천지를 다 볼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는 보이는 몸뚱이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감추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이 마음이 한생각을 해서 내가 이거는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내가 돼서 바로 나는 여기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도 내가 천백억도 될 수 있고…, 그, 말로 어떻게 합니까, 그 수효를. 그렇게 일체가 다 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두뇌의 얘기도 해 드리고 그랬으니까, 이것이 우리가 다 갖추어 가지고 있다는 걸 아시면서 우리 오늘 질문으로 들어갑시다. 어때요? 질문하실 분, 어떠한 문제라도 질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더라도 또 때에 따라서는 모르는 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질문자1(남) 스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육신의 내가 내가 아니고 주인공이 진실한 나이며, 너와 나는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라는 부분에서 의심이 가는 거는 나의 주인공, 너의 주인공이 따로따로 있으며 그것을 관장하는 또 하나의 주인공이 있어서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이냐, 아니면 본래부터가 너와 내가 없이 태양 같이 하나가 있어 가지고 그거를 전체를 관장하는 주인공이 구분이 없이 하나이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큰스님 그러면 이거 한마디 묻겠소. 당신이 마음과 지금 말하는 그 이치가 있는 것도 당신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있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 내놓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질문자1(남)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큰스님 그러니까 둘이면서도 둘이 아니죠? 일체가 다 한마음에 벌어진 일이죠.

질문자1(남) 네.

큰스님 그런데 그 마음조차 없어요, 원칙으로는. 마음조차 없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만약에 시계추가 있는데, 시계가 있고 시계추가 있죠? 왔다 갔다 하니까 이쪽으로 갔다고 말할 수도 없고, 저쪽으로 갔다고 말할 수도 없죠. 고정되게 묶여 있지 않으니까. 그것이 당신이라면 어떻게 내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깨달아야 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비밀이라는 얘깁니다. 그래 죽어야 자기를 알죠. 자기를 버려야 자기를 얻죠.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자기를 얻지 못해요.

사회자 말씀하실 분 없으시면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큰스님 가정에서 살아나가는데 이런 예가 있어요. 나를 발견했는데 그것을 어디 절에 가서 큰스님한테 여쭤 보니까 "너는 잘못 귀신이 들렸으니까 시식을 해라." 했다고 합디다. 그래도 낫지 않아서 왔다고 하는데, 그걸 나는 아무리 영계가 들렸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일 땐 그렇게 해 줘선 안 되죠. 아무리 영계가 들었다 하더라도 그건 "너 자신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을 해 줘야 되겠죠. 왜냐? 마음은 체가 없으니까 영계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들어온 사이가 없는 거니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거기에 대치를 해 주느냐면 "그게 주인공에서 나오는 거니까, 어떠한 문제가 보인다 들린다 하더라도 전부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거기서 안 나오게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라." 하고 거기 맡겨 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점점점점, 더딘 사람도 있고 빠른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정신을 가다듬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뭐를 했다? 무슨 호흡인가 뭐를 하다가 열이 머리로 올라와 가지곤, 선생님인데 학교에 나갈 수도 없다고 그러더군요.

그랬는데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모든 걸 놓지 않고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기라는 걸 놓지 않고 항상 그 머리에 열을 올려 가지고 이거다 저거다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 몸뚱이는 호흡법을 해도 피를 모아서 사대(四大)를 탁 펼치는 반면에 그 몸의 피로한 거를 풀기 위해선데, 그 몸을 풀기 위해서라면 주인공에 맡겨 놓으면 다 여기 생명들이 운반해 줘서 건강해질 텐데, 구태여 그걸 꿇어앉아서 말이야, 그 피를 모아서 하다가 잘못되면, 머리로 올라가면 그건 고칠 수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한 짓은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위험치 않게, 여러분이 위험하면 내가 위험해. 왜? 나니까, 하하.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파 우는 걸 보면 내가 아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픈 짓은 안 하죠. 그러니 여러분이 사고 나지 않도록 시키기 위해서 주인공을 믿고 '당신이 오다가 엎드러졌으면 당신이 일어나야지 누가 일으켜 주는 게 아니다. 전생에 내가 살면서 악업 선업을 지었다면 그 속에서 다 악업 선업이 나오는 건데 나오게 되면 한번 거기다 다시 넣어라. 거기서 악업 선업도 지은 거니까 그 악업 선업을 무너뜨리는 것도 거기다.' 하곤 탁 놓는다. 또 안 되는 것도 거기서 되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거기다가, 잘된다 하면 또 '잘됐으니까 감사하다. 우리가 지수화풍으로서 지수화풍을 먹고 사는데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나?' 하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또?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번 죽고, 두 번 죽고, 세 번 죽어야 한다는 요 말 한 마디를 이렇게 해 보죠. '나를 버려서 나를 얻는 소식이다' 하고 '탕!' (주먹으로 법상을 치시며) 이렇게 칠 수 있는 이런 겁니다. 또 '나와 더불어 일체를 버려서 일체를 얻는 소식이다', '탕!' 이렇게 치고. 이 소식이 이게 광대무변해서 말로는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옛날분들도. 그러면 또 '나와 더불어 나를 버려서 일체 나툼의 소식이니라.' 하는 것을 그 말로는 할 수 없으니까, 이게 '탕!' 이렇게.

여러분이 이 세 가지의 소식을 아신다면 나와 같이 동등하고 또는 일체와 같이 동등하고, 일체 우주 천하가 도량이고 일체 천하가 다 나 아님이 없고, 또 내 몸 아님이 없고, 참 내 아픔 아님이 없어서 정말 옛날에는 창, 칼, 활로 전쟁이 나도 그렇게 쓰던 건데, 우리가 이 도리를 알면 그냥 보이지 않는 데에 까마귀 떼 가듯 해서 그 참, 의식 속에 들어가서 서로 해치지 않도록 돌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중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이 공부를 잘해서 전체의 모든 남과 나를, 나도 남도 다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 일체를 구하려고 든다면, 만날 싸움질들을 하니까 싸움하게 놔두었다가, 재미로 보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좀 재미로 봤다가 나중에 이게 큰 어른 싸움이 나겠구나 이러면 말려야죠. 그 말릴 때에 창이나 칼이나 활이나 이런 걸 가지고는 지금 세상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으로 육신통을 해서 술수를 안다 하더라도 그거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는, 시대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써 뭐든지 내가 될 수 있고, 나툴 수 있고, 또 내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과거를 알 수가 있고, 현실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어서 내가 바로 결단적으로 누진을 통해서 대뇌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거를 결정을 짓는다, 이럴 때 바로 우측, 그 바른쪽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단을 하는 거는 우측에서 하고, 나와서 일을 하는 거는 바로 좌측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남을 해치려 드는 한 사람이 열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면 그 한 사람을 죽여도 살인이 되지 않는 거죠. 살생이 되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이것도 자비니까. 그렇게 쓸 수 있는, 싸움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바로 여러분이 원심력에서 원통력을 굴릴 수 있는 데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내 몸 이 혹성 안에서도, 내 이 혹성 안에 들어 있는 이 생명들도 마음대로 운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뭐 걱정입니까? 야, 여기서 신호가 오면은 '내가 죽겠다' 고 그러걸랑 '그럼, 그거 얼른 공장장한테 얘기해서 고쳐!'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걸 그냥 애를 쓰고 그러는 건 여러분이 여러분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 것도 그 속에 악업 선업의 그 생명들이 돌아가면서, 육체로는 돌아가면서 그 악과 선을 자꾸 풍긴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보이지 않는 데서 풍기니까 보이는 데로 나올 수밖에. 그러니 여러분이 고덩어리죠. 그래서 고덩어리를 면하려면, 그 고덩어리가 나온 데다가 고덩어리를 그냥 되놔라 이거야. 오늘은 이것으로써 마치고요, 요다음 법회 때는 질문을 하실 거를 간단하게 써 가지고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아셨죠?

> 죽어야 자기를 알죠.
> 자기를 버려야 자기를 얻죠.
>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자기를 얻지 못해요.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9년 8월 20일 정기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마음이 향기를 내는 책, **법보시 주문**은 02)732-1520 으로 하시면 됩니다.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베스트 셀러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걷고 있는 당신에게,
막막하고 불안하고 외로운 당신에게,
정목스님이 내미는 따뜻한 손길 같은 이야기들

잠도 안 올 만큼 분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할 때 인생은 고통스럽습니다.
반면에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고통을 선택할지 기쁨을 선택할지는 자신의 결정에 달려 있지요.
식당에 가서 원하는 음식을 결정하듯 깨어 있는 사람은 사랑과 미움도 스스로 결정합니다.
기쁨을 원하면 사랑을, 고통을 원하면 미움을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용서와 화해로만 풀 수 있지요.
그 용서가 말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잘 용서가 안 된다면 우선 상처 준 그를 향해 이렇게 속삭여보세요.
"나와 똑같이 저 사람도 삶에서 행복을 찾고 있다."

정목 스님 낭독 -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이 책의 저자 인세 수익금 전액은
아픈 어린이 돕기 '작은사랑'에 희사합니다.

정목 지음 / 248쪽 / 14,000원⇨ **12,600원** (배송비 별도)

모네의 정원 TEL. 02-732-1520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현불 논단

지도자와 공감능력



정운 스님
前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기습적 8월 폭우에 이재민 발생
국회의원 망언으로 국민들 분노
지도자의 도덕적 임무 상기해봐

부처님 재세 당시 '코삼비 분쟁'
갈등엔 부처님도 대장 코끼리도
숲 속으로 숨을 수 밖에 없었다

지도자는 험난하며 고독한 자리
공감능력이란 도덕적 책무 가져

8월 둘째 주, 우리나라에 기습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10여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수재민이 발생했으며, 수천대의 차량이 침수됐다. 이번 폭우로 재래시장 상인들이나 반지하 주민들의 고난이 심각했다. 이 수해 현장에 수많은 정치인들이 자원봉사를 위해 방문했다. 그런데 한 국회의원이 이런 말을 하였다. "사진 잘 나오게 비 좀 더 왔으면 좋겠다."

비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강심장이 있다. 이는 실언이 아니라 망언이다. 필자는 승려로서 정치에 문외한이요, 관심조차 없다. 하지만 이런 정치인을 보면서 수재민들이나 가족 잃은 사람들에게 민망하고 미안함이 앞선다.

마침 조계종에서도 큰 지도자를 선출해야 하는 일이 다가왔다. 총무원장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필자는 4년 마다 치루는 선거에 조계종 종도로서 무탈하게 끝나기만을 발원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다르다. 단독 후보로 나오는 진우 스님을 모시고 교육원에서 소임을 살았던 터라 관심을 갖고 언론을 주시했다. 이 어른의 성품을 아는지라 앞으로 조계종은 큰 걱정이 없을 거라고 본다.

근자에 사회적으로나 불교계에 일련의 이슈된 사건들을 접하면서 여러 상념이 교차한다. 〈법화경〉에도 길잡이가 등장한다. 정치하는 이들은 사람들을 이끄는 길잡이인데, 그 '지도자'의 역할이 무엇이고, 지도자급 사람들은 어떤 도덕적인 임무를 띠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본다.

지도자급 자리는 고독하고 힘겨운 위치라고 본다. 부처님 재세시 코삼비 분쟁이 있었다. 코삼비 지역의 강사와 율사 두 비구가 사소한 계율 문제로 서로 다투게 되었다. 두 비구의 제자들까지 합류하면서 분쟁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부처님께서 직접 중재에 나섰으나 소용이 없었다. 급기야 부처님이 홀로 숲속으로 숨었는데, 그곳에서 코끼리를 만났다. 그 코끼리도 코끼리 무리 가운데 왕인데, 암코끼리와 수코끼리 등이 서로 얽혀 싸움질을 해서 숲속으로 도망쳐 온 것이다.(〈법구경〉에 출처를 둔다.)

삼계 도사인 부처님과 축생계 대왕 코끼리! 지도자의 위치가 얼마나 힘든 자리인줄을 의미한다. 적어도 지도자라면 철저히 고독함을 뼈저리게 느낄 만큼 힘들고 외로워야 한다. 이런 지도자라야 도덕적 임무를 짊어진 길잡이라고 생각한다.

인도의 성자 크리슈나무르티(krishnamurti, 1895~1986)는 제자들과 함께 기차로 인도 여행을 한 적이 있었다. 기차 안에서 제자들이 '명상'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하였다. 제자들은 결론이 나지 않자, 스승에게 정답을 물었다. 크리슈나무르티가 이렇게 답했다.

"우리가 타고 가는 이 기차가 조금 전에 철로에서 염소를 치어 기차가 잠시 멎었다가 떠났다. 그런데 자네들은 명상 토론에 열중해 있느라 그런 일이 일어난 줄조차 모르고 있으니, 그것은 명상과는 거리가 멀다."

수행자의 일상 과정이자 목표가 명상인데, 중생을 저버린 명상은 깨달음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중생 없는 부처가 존재할 수 없고, 국민 없는 정치인은 건재할 수 없다. 비 피해로 고통 받는 수재민들 앞에서 사진이나 찾고 있으니, 민중을 염두에 두지 않는 정치인·지도자는 꽃향기가 전혀 없는 조화나 다름없다.

길잡이! 지도자! 민중 앞에 군림하기 위해 비단 방석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위치만큼 험난하고 고독한 자리여야 한다. 적어도 지도자급 길잡이는 도덕적 임무를 짊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그 도덕적 임무란 민중에 대한 '공감능력과 연민심'이다. 추석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인현 스님의
제주 山房日記

여름은 바람이다

제주의 바람은 일출봉에서 하루를 시작해 산방산에서 일몰을 배경으로 모래와 함께 한바탕 살풀이를 추고서 떠나간다. 그렇게 모래 개울이 흐른다고 하여 산방산 아랫마을을 사계리(沙溪里)라 한다.

이런 곳에 어찌 전설이 없겠는가. 옛날 어떤 사냥꾼이 한라산 백록담까지 사냥하러 가게 됐다. 마침 흰 사슴을 발견한 사냥꾼이 흥분하여 활시위를 당겼다. 그런데 흰 사슴은 옥황상제를 모시는 영물이었다. 그 눈빛과 마주친 그의 화살은 목표물을 빗나가 옥황상제의 엉덩이를 건드리고 말았다. 사냥에 눈이 먼 사냥꾼이 급한 마음에 만든 큰 사고였다. 생명을 살피는 옥황상제가 차마 인간에게 뭐라 꾸중하기도 난처해 한라산 봉우리를 뽑아서 서쪽으로 던졌다. 그것이 산방산이고, 백록담은 봉우리가 뽑혀 움푹 팬 분화구를 한 모습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여기서 먼 인도의 진주 스리랑카의 탄생 유래와 비교해보면 재미를 더한다. 수미산의 북서쪽 바람의 신 바유가 있었다. 그를 풍천(風天)이라고도 한다. 그는 사슴을 타고 흰 깃발을 들고서 인드라의 전차 마부 역을 담당한다. 그리고 바유신은 재산과 명성을 바람으로 실어 나르는 신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격정적인 기질을 타고났다. 그래서 언제나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 했다. 그에게 우주의 산 메루산은 바람의 힘을 보여주기에 알맞다고 생각됐다. 그런데 그 산은 신조(神鳥) 가루다가 언제나 큰 날개로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힘을 쓸 수가 없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절호의 기회가 왔다. 마침 방심한 가루다가 잠시 자리를 비웠다. 이때를 놓칠 리 없는 바유신은 온 힘을 다해 일순간에 폭풍을 일으켜 메루산을 향해 일장을 날렸다. 그렇게 해서 정상이 떨어져 나갔는데 지금의 스리랑카라고 한다.

두 이야기는 바람의 신화 속에서 상상의 날개를 펴기로 한다. 성스러운 산에는 신비한 이야기도 많은 법이다. 고려시대 혜일(慧日) 선사가 '산방법승(山房法僧)'이라 하고 이곳에서 정진할 때 일이다. 고단이라는 사람이 느지막이 귀동이를 얻었는데, 선사는 이 아이를 거둬 이름을 방철이라 짓고 천축국에 보내어 공부를 시켰다. 공부를 마친 방철이는 금강산에서 기도하다가 선녀로 변한 관세음보살에게서 생진주를 얻는다. 그 후 산방굴사로 돌아와 생진주로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며 여생을 보냈다고 한다.

서기 깃든 데는 수난사도 있기 마련이다. 조선 중기 이형상 목사는 가을바람 좋은 날 제주를 21일간 돌며 〈탐라순력도〉를 남긴다. 여기 '산방배작'을 보면, 목사 일행이 산방굴사의 불상을 바다에 빠뜨려 버리고 그곳에 앉아서 술잔을 주고받는 장면이 있다. 그 후 100여 년 뒤, 추사 김정희가 8년 넘게 제주 유배를 지낸다. 이때 해남 대흥사의 초의 선사가 부인의 부고와 함께 정성으로 덖은 녹차를 들고 방문한다. 선사는 반년을 산방굴사에 머물면서 추사의 적거지까지 10리를 오가며 '밀다경'을 써 널리 전하였다고 한다. 이때 쓴 추사의 '초의정송반야심경(草衣淨誦般若心經)'과 '명선(茗禪)'은 추사체의 대표작이다.

바람이 불면 히말라야 설산의 부탄에서 날리고 있는 풍경(風經)이 보고 싶다. 그 바람이라면 산방덕이 흘리는 사랑의 눈물을 보듬어줄 수 있을 텐데. 누구는 산방산 앞 용머리 해변의 바위를 보며 베토벤의 '운명'을 바람 신이 형상화해 놓은 것 같다고 했다.

〈제주 선래왓 주지〉

社 說

10돌 사노위 앞으로 10년이 기대된다

2012년 8월, "약자의 아픔을 보듬고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겠다"고 발원하며 출범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10주년을 맞았다.

지난 10년 간 사노위가 걸어온 길은 파격적이다. 승복을 입은 스님들이 우리 사회에서 대두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염불을 외고 목탁을 치며 사회적 약자들을 위로했고 시민사회단체, 이웃 종교와의 연대에도 거리낌이 없었다.

그러는 동안 종교의 사회참여에 대한 방향성을 새롭게 만들어 갔다. 오체투지, 49재를 문화행사에 접목, 대중성을 확보했고 사회 문제라고 하면 "사회문제 해결은 곧 투쟁"이라는 인식을 넘어서 함께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운동의 개념으로서가 아닌 종교행위로서 사회적인 여론을 만들어 나간 것이다.

오체투지로 또 다른 사회운동 형태를 만들었다. 사노위의 오체투지는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의지를 강렬하게 피력하는 모습으로 대중 속으로 다가갔다. 이웃 종교 성직자들 역시 오체투지에 함께 나설 수 이었던 것도 바로 불교적 예법의 사회화 덕분이다.

여기에 사노위의 꾸준함은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는 물론, 대중들에게도 신뢰감을 주기 충분했다.

10년 간 수많은 현장에서 우리사회 곳곳의 고통 받는 사람들을 만난 사노위는 이제 미래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 사회노동위원장 지몽 스님은 현장 중심 활동에서 한발 더 나아가 불교의 연기적 사유와 평등사상을 현대인에게 쉽고 편하기 전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는 소식이다. 차별과 편견으로 생성된 사회갈등이 사라지고 화합으로 평등한 그날이 올 때까지 활발발할 활동을 해나갈 사노위의 앞으로의 10년이 기대된다.

만일염불 전승에 큰 관심을…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다. 매일, 매시간 같은 마음을 갖고 꾸준히 반복하다보면 이뤄진다는 말이다. 그 1만 시간을 1만일로 확장해보면 어떨까. 27년 5개월에 달하는 긴 시간을 하루하루 어떠한 목표를 위해 정진한다면 분명 그 일이 이뤄질 것이다.

국난의 위기 때마다 불교에서 1만일 정진 기도 등이 이뤄진 것도 그런 이유다. 수많은 대중들이 같은 마음으로 긴 시간 정진하다보면 그 마음이 음으로 양으로 한데 뭉쳐 국난극복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중 가장 대중적인 수행인 염불이 선호 받았고 전국적으로 염불만일회가 구성되곤 했다. 758년 고성 건봉사에서 발징 화상이 31명의 스님들과 함께 진행한 염불만일회는 그 효시로 꼽힌다. 이후로 6차에 걸쳐 염불만일회가 구성됐고,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 8월 26일 고성 건봉사에서 7차 염불만일회가 입재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8월 14일 고성 건봉사에서는 2년차 입재가 이뤄졌다.

고성 건봉사 측은 이러한 불교 수행문화를 무형유산으로 전승하겠다는 계획이다. 발징 화상이 염불한 자리인 등공대일대까지의 참배 프로그램을 만들고, 성역화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염불만일회 기도도 국가무형문화재로 등록 추진한다. 염불은 누구나 쉽게 참여 가능하다. 생활 곳곳에서 '아미타불'을 염호하는 순간이 바로 수행의 순간이다. 이러한 원력들이 모이고 모이고, 1만일이 되면 하나의 더 큰 힘이 된다.

한국불교 전통을 잇는 이러한 만일결사에 대한 관심과, 불교문화로 전승해가는데 불자 대중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구태서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14, 8216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일일시호일

간질성 폐질환에 무너진
미얀마 청년의 일상

2015년 한국 찾은 민팡씨…호흡곤란…기침 잦아 병원 찾았다
폐 딱딱해지는 간질성 폐질환 진단…하루 병원비만 100만원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마음돌봄 치유 "늘봄" 사업

늘봄 : 늘 바라보고 늘 돌보면 마음은 늘 봄입니다.

불교상담개발원은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산하 불교상담심리교육 전문기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마음돌봄 치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명 2022년 마음돌봄 치유사업 "늘봄"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코로나19로 우울감이 심화된 전 국민의 마음치유 필요
○ 명상과 심리치유,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특히 의료, 복지, 돌봄, 재난 분야 등의 공공서비스 직군 및 사회취약, 소외계층의 마음돌봄, 나아가 자살예방에 기여

사업 내용

○ 사업기간 : **2022년 4월 ~ 12월**
○ 사업내용 : "늘봄" 명상프로그램
– 불교계 전문 분야인 명상을 활용하여 '참깨나무' 명상프로그램 운영
마음돌봄이 필요한 곳에 불교명상지도사 전문가들을 파견하여 참가자들의 스트레스, 불안감 등을 해소
○ 사업대상 : 전국의 복지, 돌봄, 의료, 재난 분야 등의 공공서비스 영역 직군 및 사회취약, 소외계층, 정서적 취약계층(자살유가족) 포함

참깨나무 명상프로그램 총 4회기 프로그램

회 기	프로그램명	제 목	목 표
1회기	참여하기	지금멈춤	멈추고 참여하기
2회기	깨어있기	온몸관찰	자각과 수용으로 깨어나기
3회기	나눔하기	돌봄나눔	돌봄으로 나눔하기
4회기	무르익기	성장확인	성장으로 무르익기

참여기관 모집 전화문의

문 의 본원 사무국 **02-737-7378** (jabi7378@naver.com)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후원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